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
남종선의 돈오·남종화의 직관
'마음수행' 결실
13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5월 17일) · 주간

제1051호 2015년 7월 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신의 마음 속을 살펴라.

선원·승가청규 한계 명확 현대적 新 청규 제정 필요

조계종 교육원, 25일 '현대사회와 청규' 세미나

종교학대사전에 따르면 '청규(淸規)'은 "교단의 기구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청정대중의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나라 시절 백장화해 선사의 '백장청규'로 시작된 청규는 현대의 조계종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성안됐지만 제대로 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이 새로운 청규 제정과 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청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사회 승가청규는 어떤 내용으로 제정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는 2010년 선원수좌회가 발간한 '조계종 선원청규'와 2013년 성안한 '승가청규'를 점검하고 새로운 청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종 선원청규'는 한국의 선사상과 청규정신을 잘 결합했지만 4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비해 규범이 적고 선원생활을 위한 청규 개론서에 가깝다고 금강 스님은 분석했다. 2012년 백양사 도박 사건 이후 종단쇄신위원회에서 성안한 '승가청규'에 대해서는 "승가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규라기보다 수행 생활에 필요한 권유문이 같다"고 평가했다.

금강 스님은 새로 제정되는 청규는 승가를 바탕으로 한 '간략한 실천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식주와 언행을 포함하는 청규 항목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인터넷 게임·사행성 투자·자동차 소유 등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새로 제정되는 청규는 간결하고 집약적이면서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현대사회와 관련한 문제는 개인적 부분이어서 효율적인 규범 확립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의식 환기를 촉구할 수 있는 측면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강 스님은 청규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권위 확보와 종도들의 관심 환기, 교육을 통한 계몽 등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계종선원청규'나 '승가청규'가 조계종 안에서도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몇몇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이를 폐쇄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종단청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청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원 및 승가청규 재검토
'분량 많고 폐쇄적' 지적

구속력 위한 청규 법제화
"계도에 중점" 반대의견도
"간략한 실천원칙이어야"
하반기 학인대상 청규 교육

이어 "청규의 보편적인 정착은 위에서부터의 모범을 통해서만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새로운 승가청규 어떻게 종단에 정착시킬 것인가'를 주제한 발제에서 법제화를 통해 청규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주경 스님은 "종단의 기준과 지침이 돼야 할 청규와 위의 세목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실천적인 규정이기보다는 개념적 역할에 머물고, 법적 실행력과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법제화를 강조했다.

또한 승가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계율과목에 '청규법'을 교육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행자교육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 만당 스님은 "청규의 법제화는 실천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가 대중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교육 아사리 자현 스님은 "승려법과 관련한 징계도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청규를 법제화 한다고 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이 현대사회 부합하는 승가청규에 대해 다시 논의함에 따라 새로운 승가청규 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급 승가대학에 청규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교재 제작도 이뤄진다. 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몽과 계도가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세미나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청규의 방향성을 살피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려 한다"면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승가교육 교재를 제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인사 개산 70년 찬탄의 하모니

명실공히 국내 최대 관음성지로 발돋움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대중 원력을 찬탄하는 불음의 하모니가 소백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6월 19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된 개산 70주년 음악회는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의 기원'을 주제로 열렸다. 음악회에서는 천태종 말사 10곳 합창단원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장엄함을 연출했다. 이날 총지휘는 영춘지회 권준대 지휘자가 맡았다. 합창단은 '묘법연화의 노래' 등 10여곡의 찬불가를 음성공양 했다.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현장 기사 5면〉

승가교육분담금 영구 존속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22일 사찰문화재법 개정안 가결

입장료 5% 징수 부칙 중
5년 시한 내년부로 폐지
종헌 개정안 가결 이뤄져

중앙승가대 지원 등 승가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입장료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해 온 제도가 갱신 없이 영구히 존속된다. 이에 따라 승가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은 6월 22일 제202차 임시회를 열고 종헌 개정안·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하루만에 폐회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교육특별분담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갱신했던 교육특별분담금 징수 시한이 2016년부로 폐지된다.

이와 함께 종법 개정안으로 함께 상정됐던 △총림법 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은 차기 회기로 이월됐으며, 총무원이 발의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법안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제48차 원로회의 의견을 반영해 상정된 종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66표 중 52표가 찬성해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3명, 무효는 1표가 나왔다.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의 명칭을 현행대로 존지 △제9조 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를 권리제한을 한다 △제94조 4항 '사살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를 승계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원로회의가 권고한 △제3조에 '소의율은 사분율과 범망경으로 한다'를 추가 △제105조 3항의 방장 중임 금지 사항 재검토 △제128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삭제 권고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성민 기자
〈관련 해설 2면〉

동행, 1:1 해외 아동 결연 사업 실시

불교계 단체로는 최초… 교육·의료 혜택 등 제공

빈곤국가 아동과 1:1 결연은 일반 해외 구호 단체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이지만 불교계 구호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같은 1:1 빈곤 아동 결연사업이 불교계 최초로 시작된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모금 전문 기관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은 "탄자니아 무와송가 마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준비한 결연 후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동행은 무와송가 지역 4개 초등학교의 결손가정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440명의 학생을 인터뷰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330명의 아동을 선발했다.

1:1 결연 사업은 1인 매월 3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아동과 결연이 되면 동행은 한 달간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비, 학용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식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이 속한 지역에 식수개선을 위한 우물사업과 위생교육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이에 대해 라윤선 동행 탄자니아 지부 주임은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한 흙집에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버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물동이가 아닌 연필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며 "2년 간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에 대해 잘 알지못했던 탄자니아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좋아한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연 후원 문의 (02)737-9594

신성민 기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현불샵 단독 입점 상품



Design 등록원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종 류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해인사 주지 추천, 방장 스님 고유 권한”

방장 추대위, 24일 회동… “방장스님 뜻 따르겠다”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추천은 방장 원각 스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각 스님이 대중들에게 맡겼던 주지 추천이 다시 방장 원각 스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제9대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 추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은 6월 24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회의를 열고 2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대위에서 활동한 4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중의 뜻에 따라 차기 주지를 추천하겠다는 방장 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뤄졌고 향적 스님과 여연 스님의 정견 발표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석 대중은 회의를 통해 차기 주지 후보를 추천하는 것보다 주지 추천권이 방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방장 원각 스님 뜻에 따르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차기 주지는 방장 원각 스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한편, 현재 해인사는 전임 주지 선해 스님이 사직해 혜일 스님(전 총무원 문화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용주사, 現 주지 신상 놓고 갈등 격화

“사실혼 관계 확인” VS “명예훼손, 법적대응”

비대위 24일 기자회견 열고
‘산문출송’ 추진 의사 밝혀
성월 스님 “모두 허위사실”

돈 선거 의혹이 불거졌던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가 현 주지 성월 스님의 신상과 관련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대안, 이하 비대위)는 6월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월 스님의 허위 승적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산문출송’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현 주지의 즉각 사퇴와 종단의 멸빈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대위 대표 대안 스님을 비롯해 강설 스님, 덕현 스님, 성견 스님, 성화 스님, 인해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과 지역 불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월 스님은 불법적인 돈 선거를 통해 주지가 된 후 문중의 전통과 운영위원회를 통한 본사 운영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파행적으로 교구를 운영해왔다”고 비판하며 “성월 스님을 지지했던 10여 명의 중진 스님은 돈 선거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성월 스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돈 선거 의혹 이외에도 성월 스님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고향인 향리에서 틈틈이 어린 자식과 함께 했던 행적이 있으며 용인 B 사찰 주지 시절에 있었던 사실혼 관계와 자식 문제 등에 관한 소문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조계종은 ‘독신출가’가 근본이며 혼인관계는 가장 큰 바라이죄가 된다. 종법으로 멸빈, ‘산문출송’의 대상이 된다”고 힐난했다.

선거 당시부터 제기된 허위 승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삼았다. 비대위는 “성월 스님은 용주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사미 · 비구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승적과 관련해 사안이 종단 법규위원회에 제소돼 있다. 오랜 기간 종단의 혼란기에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중 대중공사를 통해 현 주지에 대해 ‘산문출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진 대중이 결의한 ‘산문출송’을 문도 스님과 종단 스님들이 혜량하고 정화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성월 스님은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성월 스님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 ‘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단체가 무책임한 비방과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과 산중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이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혼 의혹에 대해서도 “출가 수계한 이래로 범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자에 관한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로 인해 협박을 당하여 수긍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안은 지난 2004년 호법부에 진정이 된 동일한 사건으로, 당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성월 스님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대중을 속이는 것은 명백한 범계행위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라면서 “비대위 선언문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입법 · 감시’ 알맹이 빠진 중앙종회

[해설] 조계종 중앙종회 제202회 임시회 평가



조계종 중앙종회 제202차 임시회 개원 모습. 이날 종회는 종헌과 종법 개정을 위한 ‘원 포인트’ 종회였다. 하지만 5개 종법 개정안 중 4개가 이월 · 철회됐고, 종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제201회 임시회가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원해 종헌 개정안 · 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하루만인 오후 3시경 폐회했다. 하지만 종헌 · 종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였지만 정작 대부분의 종법 개정안들이 철회 이월되는 등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3전 4기’ 종헌 개정 이번엔?

이번 종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원로의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총림 제도 개선,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 논의였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66표 중 52표가 찬성해 아슬아슬하게 가결시켰다. 반대는 13명, 무효는 1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종헌 개정안에는 원로회의 권고의 핵심이라 할 △제3조에 ‘소의율은 사분율과 범망경으로 한다’를 추가 △제105조 3항의 방장 중임 금지 사항 재검토 △제128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삭제 권고는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원로회의는 중앙종회가 통과시킨 종헌 개정안을 절차상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인준을 보류한 바 있다. 핵심 권고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종헌 개정안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월 · 철회… 법안 상정 왜 하나

이날 회의에서 종법 개정안으로는 총림법 · 원로회의법 · 해외교구특별법 · 직영사찰법 ·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올라왔지만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1개만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들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건 이월, 2건은 철회됐다. 특히 철회된 직영사찰법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인

종헌 개정안 통과, 인준 여부 주목
5개 종법 개정안 중 1개만 가결
줄줄이 이월 · 철회, 상정 절차 무색
‘무더기’ 종책질의하고 불참까지

사말에서 “총무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찰 주지 임명 권한의 일부를 본사로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자승 스님 측 종책모임 불교광장 대표인 지홍 스님이 직영사찰법 개정안의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에게 “종회 개원 하루 전 관련 법안을 숙의해 3월에 다루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사가 있었다. 보고 못 받았는가”라고 채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도 했다.

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최소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의견 수렴 미비를 이유로 본회의에서 철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비판과 감시 기능은 어디로?

중앙종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비판 ·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도리어 신상 발언을 통해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바빴다.

종회의원 진각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영담 · 명진 스님이 행하는 종단 비판 행보에 대해 승가 위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명진 스님도 지금 비판하지 않으면 과보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맞섰다. 신상발언 논란에 결국 종회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종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신속히 마무리됐다.

이 같은 회의 진행은 ‘원 사이드’ 형국의 중앙종회가 총무원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초다. 또한 삼화도량도 회장 영담 스님이 18개 종책질의 중 8개를 질의하고서도 회의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종책질의를 비판과 감시가 아닌 정쟁(政爭)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종회에 대해 김종규 중앙종회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면 무작정 상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숙의를 시켜야 한다”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종책질의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종책질의를 했으면 회의에 참석해 이를 집행부에 물어야 한다. 다수의 종책질의를 하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임시회는 중앙종회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의현 스님 감형 판결 개혁 정신 훼손인가, 화합의 조치인가

실천승가회 등 비판 목소리… 진제 스님은 환영 교시 · 시중

재심 법적 절차, 하자 있어
특별법 통한 사면 이뤄져야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을 놓고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이례적으로 2번에 거쳐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화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교시와 시중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판의 포문은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열었다. 청화 스님은 6월 19일 오후 2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8일 이뤄진 제96차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재심호계위원으로서 심리 당일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돼 종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청화 스님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현 스님이 재심 청구 사유로 당시 초심 호계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이 아니라 당시 재심 청구를 요청했어야 한다.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규를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는 6월 2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호계원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자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징계자 사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절차와 과정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천승가회는 “의현 스님의 사실상 복권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종도들의 공의를 모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상생하는 종단의 모습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교 관련 재가 ·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 성명 발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는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이 “조계종을 94년 이전으로 원점회귀 시켰다”고 힐난했으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종헌 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21년 전과 달리 논조를 뒤집은 언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6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계종이 발행하는 〈불교신문〉 1994년 6월 15일자로 개제된 기사를 상기시키면서 의현 스님이 당시 탈종 개종을 도모한 죄와, 처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중계를 범한 죄가 추가돼 멸빈됐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의현 스님은 처자가 확인되고 탈종을 기도한 승려였던 만큼 초심호계원의 멸빈 징계를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호계원의 참회문 발표와 재발방지 대책방안 발표, 불교신문 발행인 및 사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종정 스님 등 종단 원로를 중심으로 이번 재심 판결이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종정 진제 스님은 22일 발표한 시중을 통해 “종단 호계위원들이 전원합의로 내린 결정은 여명이 밝아오는 매우 뜻 깊은 일로 사료되어 치하한다”면서 지난 18일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진제 스님은 6월 발표로 명시된 교시를 통해 재심호계원의 화합적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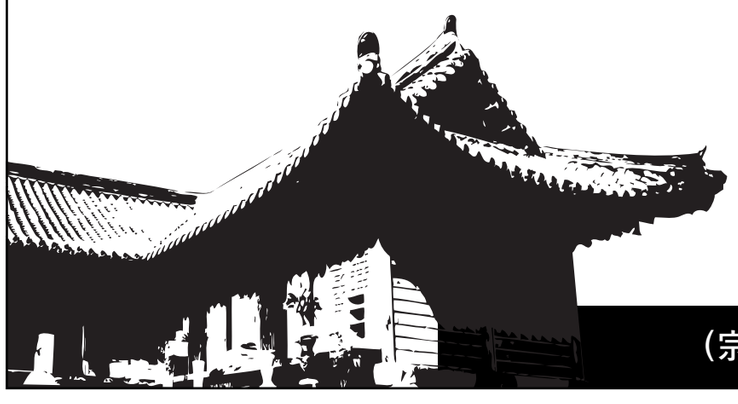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한일협정 50주년

‘위안부·강제징용’ 숙제 해결부터

불교계 단체,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잇달아

한일수교 50년을 맞아 불교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광주 나눔의 집’ 소속 피해 할머니들은 6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과 함께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양한석(故 김순덕 할머니 아들), 왕상문(故 최선순 할머니 아들)씨 등 9명이 참석했다.

소송대리인인 김형진 변호사는 “일본은 정권 교체마다 입장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은 7월 중으로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쓰비시중공업 등 2차대전 당시 전범기업, 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2천만 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피해액 보상보다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위안부 피해는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라며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령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중심이 된 문화재환수연대(공동대표 이상근)와 시민단체들은 6월 23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반대 입장과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을 7월 1일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이상근 문화재환수연대 대표는 “한국정부는 이미 일본과 원만 등재를 전제 하에 협의 중에 있다.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 협의 내용을 전해달라고 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며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는 시설의 유네스코 등재는 어떠한 조건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97세의 김한수 피해자 할아버지와 93세의 공재수 피해자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1944년 8월 당시 26세의 나이에 황해도 연백에서 강제 징용당해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배치돼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다. 1945년 8월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폭을 당하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그 곳에 현재도 일본인 희생자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 한국인들의 무덤은 일본인 애완용인 개와 고양이 무덤가에 초라히 섞여 있다”며 “그나마 일본의 양심있는 교수들이 희생자들의 무덤을 만든 곳도 최근 도로가 나며 외딴 곳으로 이전됐다. 일본은 아직도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번에도 첫 단추를 잘못 꿰다”며 "민족의 침략과 수탈사는 조건부로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 반성과 사과,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단체인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6월 23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유산 심사가 열리는 7월1일부터 7일까지 독일 현지에서 산업시설 등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日 반성 없어”
2000만 달러 국제 소송 진행
강제징용자 “군함도 등재 NO”
조건부 협의한 韓 정부 비판도

Cool한 여름, 전통 문양 부채로

문화사업단, ‘본디나 전통 부채’ 4종 공개

범종·단청 등 전통 문양 패턴화
여름 템플스테이 참가자에 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의 불교문화상품 전문브랜드 ‘본디나(VONDINA)’가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특별한 기념품으로 전통문양 부채 4종을 선보인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절에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던 풍습대로, 사업단은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한지로 제작된 전통부채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디나의 전통부채는 아름다운 불교문화유산에서 추출된 다양한 전통문양이 적용됐다. 범종, 불교 아이콘, 사천왕 화관, 단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4종의 디자인이 개발됐으며, 오는 7월부터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총 8,000개의 전통부채가 배포될 예정이다.

‘범종 부채’는 범종의 몸체에 새겨진 화려하고 상서로운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불교 아이콘 부채’는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탑, 대웅전, 일주문, 사천왕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유산을 아기자기한 아이콘 형태로 재탄생시켰다.

화려한 장식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사천왕 화관 부채’는 사천왕의 장신구인 화관(花冠)을 패턴으로 재구성했다. 불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연꽃과 국화, 모란 등의 꽃 장식과 구름, 불꽃 등을 압축하여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다.

‘법주사 단청 부채’는 법주사 대웅전의 연화머리초 단청을 단순화하여 그 수려함을 극대화시켰다. 단청의 오방색인 청색, 적색, 황색, 흑색, 백색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는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한 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콘텐츠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두루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불교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선보인 전통문양 부채 4종. 여름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제공된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조계종노동위, 24일 성명서 발표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 故김초원, 故이지혜 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조계종노동위가 정부에 순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6월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순직을 인정하므로 두 교사가 수학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법 해석으로 순직 처리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순직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9명의 교사 중 기간제 교사 2명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불인정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사명대사, 임란 포로 귀환 활약상 ‘생생히’

〈분충서난록〉 한글본 발간
회담·왜장과 편지 등 담아
무용·설담 스님 문집도 펴내
“문화사적 중요 기초 자료”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로 일본에서 3000명의 포로를 송환한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회담과 포로송환에 도움을 준 일본 측 인사에 보낸 감사편지 등을 기록한 〈송운대사분충서난록(松雲大師奮忠 難錄)〉이 그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6월 22일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3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사명당 유정 스님의 〈송운대사분충서난록〉을 비롯해 무용당 수연(無用堂 秀演, 1651~1719) 스님의 문집인 〈무용당유고(無用堂遺稿)〉와 설담당 자우(雪潭堂 自優, 1709~1770) 스님의 문집인 〈설담집〉이다.

〈송운대사분충서난록〉은 사명당의 문집인 〈사명당집〉에 수록되지 않고 따로 전해져 오다가 영조 15년(1739) 밀양 표충사에서 간행한 책이다. 회담 보고서, 상소문,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인 포로 송환을 교섭할 때 도움을 준 일본 불교계 장로에게 보낸 서신, 스님의 공로에 대한 조야 명사와 지방지에 전하는 사적기(事跡記) 등도 함께 모았다.

〈무용당유고〉에는 무용(無用)을 통해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추구했던 무용당 스님의 시 65수, 서(書) 10수, 서(序) 4수, 모연문(募緣文) 6수, 상량문 1수, 기 3수, 발 5수, 계 3수, 제문 3수 등이 수록돼 있다. 불교학술원은 “본 번역서는 문화사적 맥락이나 불교사적 맥락에서 그 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담집〉은 설담당이 여러 대덕과 문도, 관찰사와 수령, 선비들과 교류하며 주고받은 시와 간찰 등을 모은 문집이다. 수록한 글 중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 명승지 여행기인 〈몽행록〉은 이동경로와 옛 지명, 풍광에 대한 묘사와 시적 감상은 물론 대면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노덕현 기자



고려 정권과 불교, 상관 관계는

조계종 불교사회硏 ‘고려 정치권력과 불교’ 세미나

고려시대 정치권과 불교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시도했는지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고려시대의 정치권력과 불교’를 주제로 2015년도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국가와 왕실, 무인정권 등이 불교계를 우대하는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 취한 정책을 검토하고, 그런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했던 결사 불교가 다시 정치권력과 연결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검토한다.

박윤진 교수(고려대)가 '고려정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를 주제로 승정을 통한 불교 통제, 보호와 통제의 양면적 관계, 국가와 관료 사이의 불교계에 대해서 발표한다.

강호선 교수(성신여자대)는 '왕실 불교의례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고려시대 왕실이 주관한 주요 불교의례를 개관하고 이런 의례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다.

박영제 교수(서울시립대)는 '결사 불교와 정치권력'을 주제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행공동체를 지향했던 결사 불교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계기 및 그로 인한 결사의 변화 양상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사회연구소가 추진하는 한국 호국불교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12월 개최될 2차 학술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불교의 정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마하연 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백두산 5일

인도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살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미얀마순례 출발 가능한날짜: 8월19,29 / 9월16,19 / 10월7,17,28 / 11월7,14,18

특전
1. 특급호텔(양곤-세도나호텔,바간-뜨레져호텔,만달레이-세도나호텔,헤호-후핀호텔 등 동급진행
2. 추가경비 일체 없음 3. 미얀마 전문 가이드 동행 및 미얀마 현지 불교전문 가이드 진행
4. 일정 및 식사 타사비교 필수 5. 미얀마 현지 불교 행사 진행 가능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정상가 2,09,0000 → 조기예약 할인가 1,89,0000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몽유와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요금문의

≪ 미얀마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투어만의 알찬 일정 ≫

일 주 문



종로정토법당 수행법회 개설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6월 24일 종로 청운동에 위치한 최안과 건물 4층에 종로정토법당 수행법회를 개설했다.



한국전쟁 65주년 현충원 참배

법등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은 6월 25일 한국전쟁 65주년과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제41회 삼보불교아카데미

박호석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은 7월 5일부터 9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태적 가치' 제41회 삼보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세계적 선도전문가'에 등재

강현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는 '세계적 선도 전문가(Leading Professionals of the World)' 2015년판과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에 등재됐다.

최재성 국회의원,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으로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총학생회장도 역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출신인 최재성 국회의원이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임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최 의원은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수료한 후 17대~19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등을 맡아왔다. 최재성 국회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남양주시 정책기획단 상임부단장, 팔당생명살림연대 이사 등 사회활동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인사〉 천태종은 6월 23일 총무원과 지역 말사 주지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 구인사 국제선원 원장 덕수 스님 △ 총무원 규정부장 갈지 스님 △ 총무국 총무국장 진성 스님 △ 총무과장 법기 스님 △ 시설국 과장 도봉 스님 △ 시설국 서기 우준 스님 △ 교무국 교무국장 성공 스님 △의전국 노전 무성 · 동운 스님 △교육국 교육국장 대명 스님 △ 교육과장 구화 · 덕주 스님 △복지국 복지국장 덕중 스님 △감사원 과장 광일 스님 △영덕 명삼사 용구 스님 △태백 등광사 덕중 스님 △임계 도림사 진성 스님 △정선 봉장사 성공 스님 △하양 무학사 문법 스님 △사북 달성사 견문 스님

〈인사〉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박관우 보도국장 겸 정치부장 △박재현 광주불교방송 편성제작부장 △양봉모 광주불교방송 총괄국장 △심창훈 광주불교방송 보도부장

"미래세대 위해 불교 교육 비중 확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만당 스님 임명



2년만에 공석이던 종평위 이끌어 '종교화합의장' 마련 포부 밝혀 증오범죄 방지법 제도화 추진

2년여 공석이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만당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만당 스님은 1년 6개월 동안 비워져 있던 자리에 앉게 된 소회를 전했다. 만당 스님은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 오랜 시간 공석으로 남아있어 아쉬운 면이 많았다"며 "부족한 능력으로 소임을 맡게 됐지만 최선을 다해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재 국가 · 사회적으로나 종단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불교 위상을 회복하고 불신과 오해를 종식시켜 불교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힘쓰겠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 간 화합과 공생의 장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만당 스님은 사회적 약자 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인 '증오 범죄'가 속출하는 세태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만당 스님은 "특정 종교에 대한 반복과 대립으로 인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단 차원의 법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미래세대에게 불교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교를 오해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고 교과서 내 불교 교육 비중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만당 스님은 과거 조계종 기획국장으로 역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종단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만당 스님은 1992년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6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영광 불갑사 무각선원 주지, 불갑사 주지를 역임했다. **박아름 기자**

현대불교, 네팔 지진피해 성금 전달

6월 24일 네팔대사관에… 삼보승려회 등 동참



본지 이동격 부장(사진 오른쪽)이 네팔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네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에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불교 신문은 4월 25일 네팔 대지진 발생 후 본사에 기탁된 성금을 6월 24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네팔주한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본사 이동격 영업부장이 대표로 네팔 꺼만 싱 라마 대사(사진 왼쪽)를 방문했다.

성금은 총 2백 12만원으로 삼보승려회(회장 혜각) 1백만 원, 부산 연꽃모임 50만원, 부산 소림연화선원 50만원, 본사 외국인 구독자 Jensener Stadolf씨가 12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꺼만 싱 라마 대사는 "끊임없는 관심과 위안을 표하는 한국인들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현재도 네팔에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불자들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이 네팔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부산 연꽃모임 회장 대원성 보살

이어 대사는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훗날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네팔도 똑같이 도울 것"이라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불교대학, 곽병해 총동문회장 취임

6월 16일, 수진 스님 "복지 교육 · 문화 활동" 당부



곽병해 신임 총동문신도회장이 수진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 대관음사 곽병해 제17대 총동문신도회장 취임법회가 6월16일 봉행됐다. 취임법회에는 남단아 수석부회장, 정복자 · 손병국 부회장 등 30여명의 임원진이 임명됐다.

신임 곽 회장은 총동문신도회 교육국장, 호법국장, 한라산악회 회장 등을 두루 지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수진 스님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30만 전 신도들의 결집과 화합은 물론 수행,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활동에 앞장서고, 불교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은 6월 25일 경북 청도 이서중고등학교에서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서중 제1회 재학생 32명의 뜻을 기리는 학도병 천도재와 위령재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승가대 학장 흥륜 스님 49재



운문사승가대 학장 원해당 흥륜 스님의 49재 막재가 운문사 큰법당에서 6월 25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인간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비하지 못해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에 벗어나는 법은 자성삼보 일심삼보로 번뇌 망상을 떨쳐 끊어버려야 한다. 흥륜 스님께서는 신심 있고 넉넉한 수행승으로 다시 태어나 자성성불 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100재는 8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포교원(주지 흥선)에서 개최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일붕 스님 탄생 101주년 다례재



대한불교 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6월 24일 울산시 청량면 화엄정사(선교종 이사장 화엄)에서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 101주년 다례재 및 원적 1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호국금강사 호국영령 위령재



호국영령 천도기도도량 포천 호국금강사가 6월 25일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재를 개최했다. 호국금강사 위령재는 6.26 참전 16개국의 호국영령을 비롯해 전쟁으로 전사한 모든 영혼들의 명복을 비는 행사로 지난 1884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호국영령 위령재를 통해 한국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극락왕생과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세계평화 등을 발원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이 자리에서 "원한과 미련을 모두 버리고 고향에서 부모와 형제를 만나 극락왕생하길 바란다"며 한국전쟁 전몰장병들의 영혼을 달랬다. **노덕현 기자**

대승보살계 및 (비구·비구니) 품계 산림 법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범 종단차원에서 일체 중생과 함께 계, 정, 혜의 정신을 이어 정등각(정등각)에 오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불교계 각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께서 증명하시기에 (종)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 (사)대한불교 ⦿원조계종에서 대승보살계 및 수계산림 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015년 7월 12일(음 5월 27일) 일요일 정오 12시

■장 소 : 부산시 금정구 부곡 1동 717번지(동현로 64)
(사) 대한불교 ⦿원조계종 총무원 회문사

■연락처 : 총무원장 010-2364-8611 혜우 도암 호법원장 010-3839-7714 수봉 법일

■대상자 : 본 종단스님, 신도 (타 종단스님 불자님도 가능)

■동창금 : 보살계 10만원 수계 : 70만원 품계 : 100만원

(종)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 (사)대한불교 ◉ 원조계종
총재 겸 총무원장 혜 우 도 암 합장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7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5년 7월 26일 ~ 8월 22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해외교포 자녀 및 유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 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사찰주지스님 추천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소백산 자락 구인사 '환희心' 70년 역사 되새겨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는 6월 20일 개산 7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전서 '광복 70주년 세계평화 국민화합 기원 및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사진 오른쪽)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에게 네팔 지진피해 성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가 산문을 연지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쳤다.

주 행사는 6월 20일(음력 5월 5일) 구인사 광명전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복 70주년 세계평화 국민화합 기원 및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대법회'이다.

특히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종단 발전의 비전 4개항을 선포했다. 김학송 천태종 참의원장(한 국도로공사 사장)이 발표한 비전을 살펴보면 △자비와 지혜 발현하는 삶 성취 노력 △3대 지표(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통한 불국정토 구현 △주경야선의 수행종풍 생활화해 대승보살도 실천 △인류 평화와 국민 화합, 복지와 문화 융성 국가 건설, 남북 평화통일 헌신 등 4개 항이다.

법회는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의 법어로 시작됐다. 도용 스님은 "여래의 청정 법신 걸림이 없어 중생들의 인연 따라 응해주시니 불자들이여, 감로의 법문 늘 설하시는 눈앞에 부처님을 바르게 보라. 일구월심 중생제도 간곡한 부촉 소백산 연화지에 아로새겨져 일흔 송이 하얀 연꽃 피어났구나. 악한 세상 맑히고 어두운 마음 밝히려는 거룩한 그 뜻을 받들어 따르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 지으신 초암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일체중생의 귀의처이자 만생명이 해탈 성불하는 도량이다. 구인사는 소백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에 중중무진의 도량으로 시현되고 있다"며 "천태종은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계기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행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며 인류의 평화와 법계의 안녕을 위한 천태불자들의 노력이 만인의 행복으로 회향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중국불교협회 부 비서장 창짱(常藏) 스님(북경 영광사 방장),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기노시타 쟈쿠슈운 스님, 정계 인사 등 각계의 축사도 이어졌다.

1만 사부대중 '자비의 삶' 등 4개항 비전 선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네팔 돕기 1억 원 전달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천태종이 우리 민족 전통의 계승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중생 구제 실천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해 가는 길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구인사가 찬란한 불교문화를꽃피우는 문화 융성의중심이 되어주시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개산 70주년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지난 연등회 때 봉행한 무차선 대법회에 보내주신 천태종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구인사는 한국의 대표적 사찰 중 한 곳으로 자리잡았으며,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원력으로 오늘에 이르렀기에, 앞으로 천태종 사부대중의 역량이 사회에 긍정의 힘이 되도록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창짱(常藏) 스님은 "중·한 불교의 법의가 오래도록 길이 유존하고, 중·한 양국이 세세대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축원한다. 나아가 황금유대적 우호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기노시타 쟈쿠슈운 스님도 일중한불교우호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武覺超)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리들은 국가는 달라도 천태대사를 조사로 받드는 불교교단"이라며 "혼미한 오늘날의 세계정세에 그 보살도의 가르침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법회가 천태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축사에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부처님이 탄생한 국가인 네팔의 지진 피해의 조속 복구를 위해 전국 천태종 각 사찰에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지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윤석 새누리당 불자회장 등 국회의원, 단양군 관계자, 한광수 금강대 총장,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축하했다.

국제학술대회



"구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진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는 6월 19일 천태종 총무원과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개최한 '한·중·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과 수행종풍'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구인사는 개산조인 상월대조사의 생존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한국의 다른 사찰과는 달리 수천여 명이 상주하면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어떤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인사만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천태종이 중창된 후 본격적인 대조사의 사상과 이념에 의한 불교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삼대지표에 의한 새 불교 운동의 전개였다"며 "대조사는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라는 3대지표로서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다"고 주장했다.

기념음악회



국내 최대 관음성지로 성장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찬탄하는 불음의 하모니가 소백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6월 19일 오후 7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된 개산 70주년 음악회에서다.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의 기원을 담은 구인사 개산 70주년 음악회에는 천태종 말사 10곳(관문사·구강사·광수사·광법사·삼태사·영춘지회·황덕사·정광사·황룡사·삼천사) 합창단원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장엄함을 연출했다. 이날 총지휘는 영춘지회 권준대 지휘자가 맡았다. 또한 테너(정우진·한정일·정무시·박윤규), 바리톤(김재일·조승완), 소프라노(황혜진·장지영) 등 성악가와 현대오케스트라의 합연이 더해져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음악회의 문을 연 것은 안동 해동사선여회. 붉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손에 부채를 든 채 무대에 오른 선여회는 전통 국악가락에 맞춰 부채물결을 만들어냈다.

특별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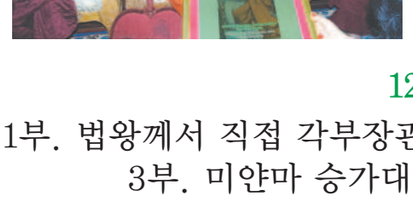
행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기념사진전이다. 6월 12일부터 천태종중앙박물관 3층 1전시실에서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전이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구인사의 지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300여점이 전시됐다.

이 사진들은 상월원각 대조사가 창건한 구인사의 초가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시점까지 과정을 △구봉팔문 연화도량 △초가삼간 수행도량 △천태종 근본도량 △3대 지표 실천도량 △미래불교 견인도량 등 5개 주제로 나뉘어 선보였다.

박물관장 장호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 채의 초암에서 대도량이 되기까지의 장엄한 역사를 전시한 사진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종단의 중창 의의와 대조사님의 구세중생의 원력을 배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2월 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9월 30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미래 세대 위한 포교프로그램 공모

포교원, 8월 14일까지 접수

포교원이 미래세대 포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포교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사찰 청소년 법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탈피하고자 어린이 ·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공모전을 8월 14일까지 연다.

포교단체 및 신도등록을 필한 자, 어린이청소년 포교분야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 모집 분야는 △포교원 종책 과제로 설정 △지역 사찰 청소년 포교 활성화 △청소년 기구에서 활용 가능한 포교 방안 및 프로그램 △지역 전법에 맞는 청소년 포교 사업 등이다.

포교원은 "미래세대는 향후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힘이다. 이들을 위한 포교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선정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은 현장에 직접 보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수작은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2명 200만원, 우수상 3명 100만원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기간은 6월 15일~8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우편 및 내방 접수 가능하며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세계7대명상대전 연기

메르스 여파… 내년 2월 개최

메르스 사태로 불교계 행사가 잇따라 연기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8일~25일 강원도 정선 하이리조트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등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7대성자명상대전도 내년 2월로 지연을 결정했다.

세계7대성자명상대전조직위원회(위원장 각산, 이하 명상대전조직위)는 6월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메르스) 여파로 인한 행사일정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명상대전조직위는 "메르스가 국가적 사태가 되며 대규모 합숙 행사에 대한 해외로부터 우려가 지속되었다. 국제적 대규모 행사 개최는 곧 국가적 안전문제와 직결되기에 논의 끝에 행사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어렵게 준비했던 행사가 지연된 만큼 더욱 내실 있고 알찬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행사는 내년 2월 중 열릴 예정이며, 등록자들은 2016년 2월 행사로 자동 등록 연장된다. 환불도 가능하다.

문의 (02)451-0203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교계 단체 법인 전환 잇달아… 활동 범위 넓어져

교사불자연합 · 병불련 등 교계 단체 법인 출범 활성화

불교계 활발한 신행 · 포교를 이끌던 단체들의 대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법인 출범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인 설립 후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활동 스펙트럼을 넓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오는 7월 경 사단법인 등록 완료 후 창립총회 법회를 앞두고 있다.

우선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 이하 교사불자연합)는 5월 13일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사단법인단체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며 느꼈던 제약을 떨치고 법인체로 청소년 포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강영철 명예회장은 "그동안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명의로 직무연수 ·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는데 비로소 자체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단법인체로서 교사불자연합이 개발한 프로그램 본연의 성격을 잘 살리고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명예회장에 따르면 단체가 법인화됨으로서 교직원 연수 사업과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관련 정부 부처에 직접 공모 신청이 가능해진다. 강 명예회장은 "프로그램 직접 공모는 단체의 공신력을 향상시켜 준다"며 "이에 따라 교사불자연합은 내년 문화관광부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인성교육 · 문화재 보호사업 · 민족전통문화사업 등 프로그램을 직접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불자연합은 오는 7월 24~26일 김제 금산사에서 전국수련회를 갖고 사단법인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7월 경 행정자치부에 사단법인 등록 후 의료포교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이에 앞서 6월 25일에는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단법인출범총회를 열었다. 이날 병불련은 "사회 양극화 구도 속에 의료 상업화도 가속화되며 의료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더욱 늘고 있다"며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자비 나눔 및 불교계 사회적 역할 확대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기존 병불련의 불교적 사상을 이어받아 의료봉사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주적 의료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동숙 사무총장은 "4월 19일 안산 단원고 이주민센터서 불교계 최초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당시 이주민에 대한 열악한 의료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는 6월 25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단법인출범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출범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법인되면 정부에 직접 공모 신청 가능
단체의 공신력과 브랜드 파워 향상
조직 운영 체계화 · 투명성에 큰 도움

지원 상황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안산시에 운집 거주 중인 이주민 2~3만 명 중 6~70%는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의료 지원 시스템서 배제되어 있다. 법인 설립 후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선진적이고 질적인 의료 봉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찍이 사단법인 출범 후 견고한 기반을 다져 불교계 안팎으로 활발한 신행 · 포교를 이끌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1998년 6월 문화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1962년 당시 공보부에 일반 단체로 등록한 후 98년 공식 법인체로 출범돼 현재 서울시지자체 관리를 받고 있다. 대불청 전준호 회장은 "법인화 후 총회 개최, 등기이사 선임, 정관 채택 등 의무적인 공식 절차로 인해 단체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화 됐다"면서 "주무부처가 있음으로 해서 단체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활동력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현재 문화관광부지원으로 매년 전국만해백일장, 전국불교청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사)지혜로운 여성은 2007년 1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사단법인단체인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립됐다. 한주영 사무국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문화관광부 소속 종교 단체로 등록돼 있다. 지혜로운 여성은 종교 단체로써 한계를 벗어나 좀 더 대중적 활동 역량을 넓히기 위해 창설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한 사무국장은 사단법인 출범 후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일반적 정보 공유가 수월해진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여성 단체로 발돋움 하며 종교 단체로 한정돼 있던 활동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 폭넓게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사단법인 출범 후 성남시고등동복지회관 위탁 운영을 맡게 되며 종교계를 벗어난 활동 범위를 구축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혜로운 여성은 사단법인 출범 바로 다음 해인 2008년 9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지원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시작했으며, 2010년 7월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및 강사양성 사업 '내 생의 봄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어린이 배움터 '미황사 한문학당'

7월 26일·8월 5일 2차례 진행… 어른 위한 템플스테이도

16년 전통을 자랑하는 어린이 한문 학당이 여름 방학을 맞아 올해도 다시 개설된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7월 26일~8월 2일, 8월 5일~8월 12일 2차례에 걸쳐 어린이 템플스테이 '미황사 한문학당'을 연다. 2000년 7월 처음 시작한 미황사 한문 학당은 올해 16년 차로 한문교육 · 문화체험 · 산사체험 등 교육한다.

한문 교육은 주지 〈수심보경〉을 교재로 한다. 〈수심보경〉은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 등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을 발췌해 주지 금강 스님이 직접 편집한 책이다. 미황사는 "한문 경험이 없는 학생도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문장 해석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혼자서 한문 학습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화 체험은 숲 체험, 별자리 탐방, 탁본 체험, 땅끝 마을 바다체험, 달마


미황사 한문 학당이 올해 16년 차를 맞았다.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26일~8월 2일과 8월 5일~12일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한문 학당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산 산행 등으로 구성된다. 또 산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1300년 미황사 역사와 산사 예절, 발우 공양 및 다도 등을 학습한다.

교수사에는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학교대학원 무진 스님, 중앙승가대학 범선 스님 등이 나선다. 초등학교 고학년생(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 학당은 45명 정원으로 7월 15일 접수 마감한다.

한편 2013년과 2014년 템플스테이 최우수사찰로 선정된 미황사는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참선집중수행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도 진행한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는 참사람의 향기는 7월 11일~18일과 8월 15일~22일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간화선 참선 · 다도 · 묵언 · 오후불식 · 수행문답 등으로 구성된다. 문의 (061)533-3521 **박아름 기자**

"한국불교 중흥, 교육이 답이다"

경주 기림사, 교육도량 선포

경주 기림사(주지 덕민)가 6월 19일 불국총림율원 · 불국금강학림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림사 불국총림율원 · 불국금강학림은 강사진과 교육 구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내년 초 문을 연다.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은 "화엄경과 금강경을 녹아내는 선풍의 씨앗을 이 도량에 되살리기 위해 불국총림율원 · 불국금강학림을 새롭게 열게 됐다"며 "불국사 율원과 강원의 힘찬 시작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율원과 금강학림의 개설은 옛 불교의 영광을 되찾는 단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며 수행자의 청정심을 지켜나갈 율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현판식에 이어 기림사는 불국사 · 석굴암 · 분황사 · 청계사 · 불영사 · 보경사 · 오어사 등 각 사찰과 신도들이 기증한 쌀 1만kg을 경주시 및 BTN, 불교TV 등에 전달했다.

한편 현판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비롯한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경주 기림사(주지 덕민)가 6월 19일 불국총림율원 · 불국금강학림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7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복지관에서도 이젠 '참선 수행'이 가능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시민선방 '마음 찾아 떠나는 여행' 호응

요즘 복지관에서는 여느 학원 부럽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외국어 공부, 인문학 강좌, 건강강좌 등은 물론이고 역사탐방, 심리치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돼 회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이 운영하는 자양시민 선방은 단연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마음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전달해 불자 비불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유 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자양시민선방은 참선, 108배 참회, 찬불가 부르기, 컵등 만들기, 차명상, 경전강의 등을 마련 회원들을 마음공부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다.

6월 25일 강의에서는 반야심경을 읽고 그 속에 담긴 경전 구절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마음수행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선유 스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 수행을 지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반야심경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 대부분이 60, 70대 어르신이다 보니 왕생발원문을 읽는 아미타불 수행을 통해 여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다. 여기에 참선, 순환 운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스님은 생활 속에서 수행을 강조해 분노 등의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지도하고 있다. "흥분되고 화가 날 때는 스스로 절제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좀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려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자양시민 선방의 '마음 찾아 떠나는 여행'은 생활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전달해 불자 비불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도법사 선유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장면.

참선 차명상 경전강의 108배 등
마음공부로 지혜의 길 안내
60·70대 어르신 호응 높아
매주 목요일 오전 강좌 진행

서영숙 (62) 회원은 명상 수업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전한다. "시민선방에 오기 전까지는 불자이지만 명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민선방에 오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늘 멀게만 느껴졌던 스님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또 참선을 하다보니 내면을 보게 되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 씨는 마음공부를 통해서 미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미움의 대상인 상대는 그 순간 그랬을 뿐이에요. 이후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은 모두가 내 마음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니 자신과 상대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시민선방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말하는 장복순(71) 씨는 초파일 백중 정도만 절에 가던 불자였는데 시민선방에서 처음으로 마음공부를 배웠다며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마음공부를 배우고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다른 약속을 안 잡을 정도로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호흡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다 실천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이런 길을 알게 되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측은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사고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본다면 인생이 좀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선방을 찾는 회원들이 긍정 명상으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다"며 바람을 전했다. (02)458-166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미술 수업으로 어르신 삶의 질 UP!

울산양로원-환경미술협회 MOU 체결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 울산양로원(원장 활인)은 6월 22일 울산 연화당에서 울산환경미술협회(회장 서경희)와 '찾아가는 미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미술 프로그램'은 그림 창작활동, 미술관 탐방,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문화 활동에 소외 됐던 지역민과 어르신을 초대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과 원각선원 산하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적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또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해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울산환경미술협회 서경희 회장은 "울산양로원과 손잡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울주군 두동 지역에서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 활용에 크게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 울산양로원은 울산 연화당에서 울산환경미술협회와 '찾아가는 미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오사 명정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실시

6월 19일 재개소 감사의 마음 전해

부산 원오사의 명정지역아동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6월 19일 재개소를 했다.

이번 행사는 상담실 설치 및 조리실 개선, 센터 내부 누수방지 및 도배, 바닥 난방 및 강화 마루 설치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단장한 지역 아동 센터를 지역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명정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5월 이사를 해 10월 개소를 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에 KRX 국민행복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보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간 리모델링에 힘써주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명정지역아동센터 2008년 원오사의 꿈나무 공부방으로 개설 이후 (재)꿈나무 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설립하고 지난해 이전 개소식을 가진 바 있다.

현재는 자기주도학습 및 기초학습(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 다도수업, 미술, 내고장 알기 토요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명정지역아동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6월 19일 재개소를 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관 서비스 개시

7월 1일부터 지역주민대상으로

돌, 칠·팔순, 생일 잔치 등의 가족행사를 이제는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다.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이 7월 1일부터 고양시 지역주민과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파티홀 주말 대관 서비스 '패밀리 파티홀(Family Partyhall)'을 개시한다.

패밀리파티홀은 주말 토요일 오후 3시~오후 8시와 일요일 점심 오전 10시~오후 3시에 파티진행이 가능하며, 무대와 음향이 설치된 호수레스토랑 파티홀 및 내부 홀을 대관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관 신청은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복지관에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031)919-8677

정혜숙 기자

교계 위탁운영 복지관 정부서 우수평가 받아

제천·강북장애인 복지관 등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강북장애인복지관 등 등 교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98점을 획득, 전국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82 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북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국 154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실시한 '2014년 전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서울시내에서 유일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한편 수급자 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관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182개 장애인 복지관 대상
3년마다 6개 영역 항목 평가

및 시설 환경,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절차, 서비스 제공결과, 기관의 운영개선 등에 대한 51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속한다. 또한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직업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야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1998년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두 기관은 2011년에 실시한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위치한 시설에서 이루어낸 결과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재단은 179개의 시설 운영을 통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번 평가로 재단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 냈음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인 변화와 체계적인 시설 지원·관리를 통해 불교가 취약한 지역에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불교복지가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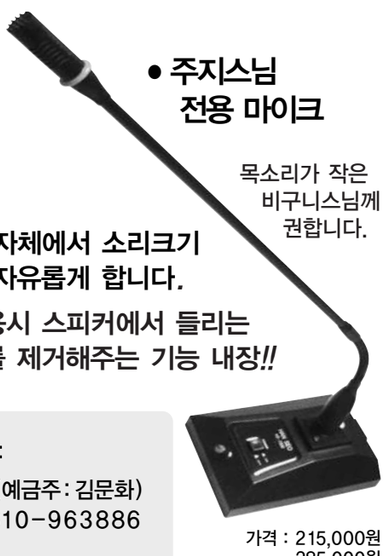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실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 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 이 방사되어 원적외선"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효과 , 소화불량,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등을 자연치유 시키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를 주는 다목적 뜸온열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후 : 일주일 정도는 평상시 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께서는 보상판매를(신제품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대출력 스피커+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걸린 마음보다 걸림없는 마음을 쓰자”

대한불교진흥원 수요법회

동명 스님(전등선림 선원장)

자신의 인생을 가만 들여다 볼 때 누가 주(主)이며 누가 객(客)일까? 보통 사람들은 보여 지는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겉치레가 아닌 매 순간을 대하는 내면의 ‘정성’ 이다. 동명 스님은 6월 24일 대한불교진흥원 수요법회서 마음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법문 했다. 동명 스님은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곳이 화택(火宅)이요, 안정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며 “마음이 편해야 고요와 평안을 찾을 수 있을 뿐 겉모습을 가지고 가치를 얘기할 수 없다”고 설했다. 이어 “마음은 본래 정함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를 뿐 정함 없는 무유정법(無有定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박아름 기자



동명 스님은 … 1964년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75년 합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화두로 참구했다. 8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안 내소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림 선원장을 맡고 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우리나라는 학명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학명 스님은 달마 그림을 참 잘 그리셨습니다. 학명 스님이 그리신 달마 그림 화제에는 “객 노릇도 잘 못하면서 공연히 주인을 괴롭힌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마를 보면 미소도 짓지 않고 우락부락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달마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달마는 그 속에 있겠지요. 얼굴을 무섭게 나타냈을 뿐이지 속마음은 아마 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명 스님은 그 달마의 모습을 ‘객’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일과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일상을 잘 살펴보면 사실 남의 살림살이만 얘기하고 정작 주인 없이 주인을 괴롭히는 경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예불을 모시고 낮에는 법문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 종일 내 주인공은 어디에다 감춰놓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혹은 얌전하지 않으면서 얌전한 체하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서도 안 먹는 척하고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옷도 말끔히 입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신경 쓰지 않을 텐데 밖에 나오면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신경 쓸 게 무척 많아지지요. 그런 것들이 주인을 잃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이란 건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합니다. 객으로 살면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절에서는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인을 잃지 않고 주인 노릇을 철저하게 잘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님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님들 생활이 편치가 않습니다. 걷는 것도 점잖게 걸어야하고 말도 법도에 맞도록 해야 하고 되도록 자비스럽게 생활을 하는 것이 스님 생활입니다. 그런데 절에 오는 불자님을 만날 때 보면 주인의식으로 오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앉아 있는 것, 보는 것도 다르고 어디 서 있건 그 사람은 눈에 들어옵니다. 재미로 혹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신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 법문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잘 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거나 제를 올려도 그 하는 행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가는 모습이 점잖아야 뒤에서 보더라도 멋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니 남자는 앉아서 소변보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너무나 거칠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준다면 마땅히 수정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공들임 없이 알량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누리려 하는데 저는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내 본심을 정성도 들이지 않고 그저 복권 당첨되듯 내 삶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정성이 필요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듣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따라 가다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 감고 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살림살이를 산다면 부자 되는 살림살이는 할 수 없겠지요.

부처님의 행을 하는 사람들은 털끝만치도 흔들림이 없어야합니다. 당당하게 생활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매사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사 다 쓰러져가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열심히 불공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정성을 부처님께서 쳐다보는 것이지 겉치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닫힌 마음 열어 행복 찾을 것

부처님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설사 내 자식이 회사 사장이고 대학 총장이고 대통령이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뻣뻣하게 행동하는 것은 보살정신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멋있어야지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살면 죽을 때 내 삶을 뜨겁게 태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기가 화택이요, 마음이 안정되면 그곳이 극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고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뿐 겉모습을 가지고 가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인연법을 중요시합니다. 내 자식이 차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사실 부처님한테 아무리 불공을 올려도 내 자식이 죽었다면 불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생로병사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불교를 믿으면 왜 내 자식이 그런 변고를 당했는지 원리를 알게 되고, 고통을 조금이나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타인에 맞춰 사는 ‘객’ 되선 안 돼
> 주인 의식으로 인생 끌어가야
> 정성 일념으로 부처 행 따를 것
> 담아둔 것 털어내야 행복 찾아와
> 마음은 정함 없고 걸림 없어
> 파란꽃 보고 빨간 마음 낼 수 있어야

절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교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불자님은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 앉아 있건 그 자리가 환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만큼 간사한 동물이 없습니다. 개는 예뻐해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꼬리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잘해줘도 꼬리치듯 기뻐하면서도 마음은 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닫힌 채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들 후회를 하고 삽니다. 죽어서 상여 매고 갈 때까지도 결국 마음 안 열고 가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꼭꼭 담아둔 채로 가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 바깥 처사님이 “당신 어머님은 참 못났다”면서 친정에 대해 한 마디 얄궂은 말을 한다거나, 임신해서 먹고 싶은 음식 사다주지 않으면 절대 잊지 못하지요. 물론 속은 상하겠지만 담아둔 것을 펴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스스로 떨치는 것이 어렵다면 부처님 전에 찾아와 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음은 정함 없고 걸림 없다

스님에게만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파란 꽃에서는 파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실체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파란 꽃에는 파란 마음, 노란 꽃에는 노란 마음, 붉은 꽃에는 붉은 마음, 하얀 꽃에는 하얀 마음이 있습니다. 대게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을 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난 꽃에는 모난 마음, 둥근 꽃에는 둥근 마음, 큰 꽃에는 큰 마음, 작은 꽃에는 작은 마음이 핍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마음이며 걸림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린 일평생 쓰고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인데 왜 그 ‘걸림 없는’ 마음을 쓰지 않고 평생 동안 ‘걸려있는’ 마음만 쓰는 것일까요. 따라서 파란 꽃을 보고도 빨간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병 갔을 때 국화꽃을 가져가면 꽃만 보고 ‘왜 국화꽃을 저 사람이 갖고 왔을까? 내가 죽길 바라고 있나? 장미 갖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난 오래도록 살고 싶은데’ 등 오만가지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보다 깊은 뜻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 절에는 영가등으로 빨간등도 킵니다. 왜 영가등은 하얀 것만 써야합니까? 빨갛고 예쁜 장미 연등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연등이란 것은 닫혀있는 마음을 열라는 의미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영가에게는 하얀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없는데 삶이 있겠습니까? 삶도 없는데 죽음이 있을까요?

뼈대 있게 살아야합니다. 부처님 법은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 가장 수수합니다. 생로병사가 없다면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들이 있지만 불교는 시시하게 지옥이니 극락이니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지요. 쓸 데 없고 사소한 것에 눈 돌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절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기도드리는 자세가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묻어나기도 하고,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자님들에 절에 찾아와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환희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게가 없으면 막 대하게 되고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던 귀신도 한 번씩 때려봅니다. 그런데 무게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설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한 동자스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노스님이 바라보고 있으니 부처님이 내려와서 동자스님 머리를 만지더랍니다. 그래서 동자스님한테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고 혹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어제 공양을 하다가 뱀 머리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며 그것을 드러내 몰래 감춰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쓰일까봐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칭찬해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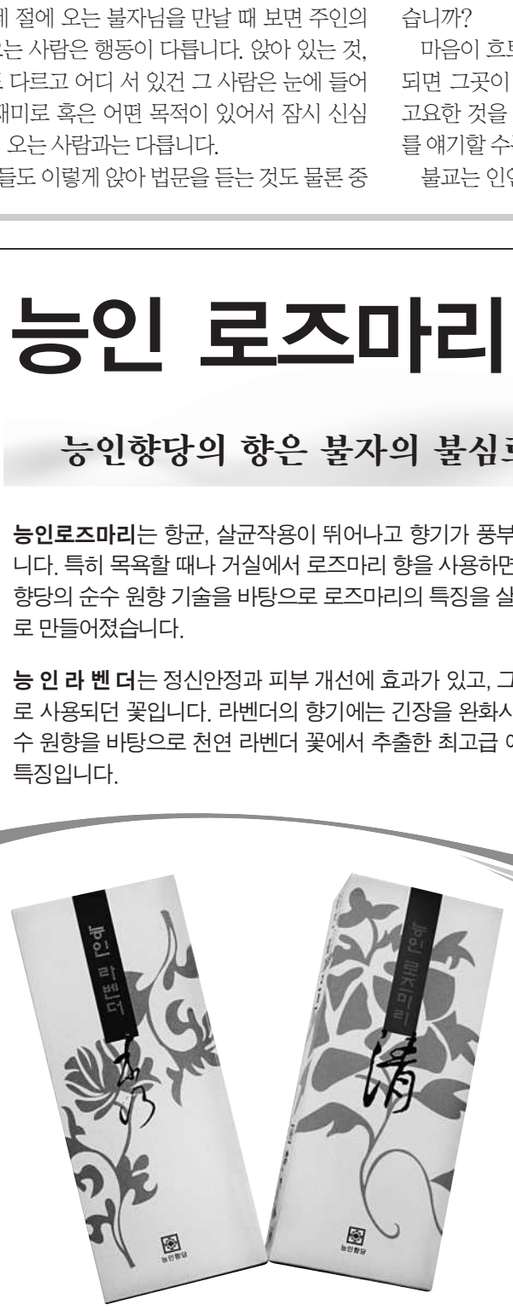
내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든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허튼 행동을 하곤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그리고 전부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괘념치 말고 항상 점잖고 우아하게, 그리고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정함이 없는 마음을 쓰라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정해진 바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스님일수록 계율을 잘 지키고 반 만생을 정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함이 없는 무유정법을 지키며 사십시오. 정함이 없는 법을 아는 동시에 생명 있는 것을 다독거리고 살 줄 알아야 하며, 부자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함께 생각하고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도 역시 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능인 로즈마리 / 능인 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 인 라 벤 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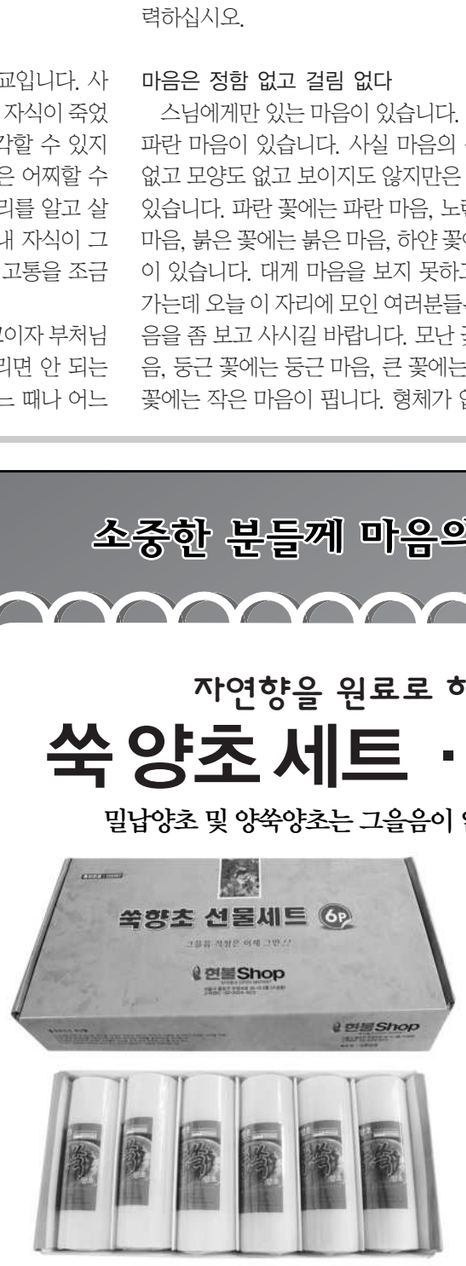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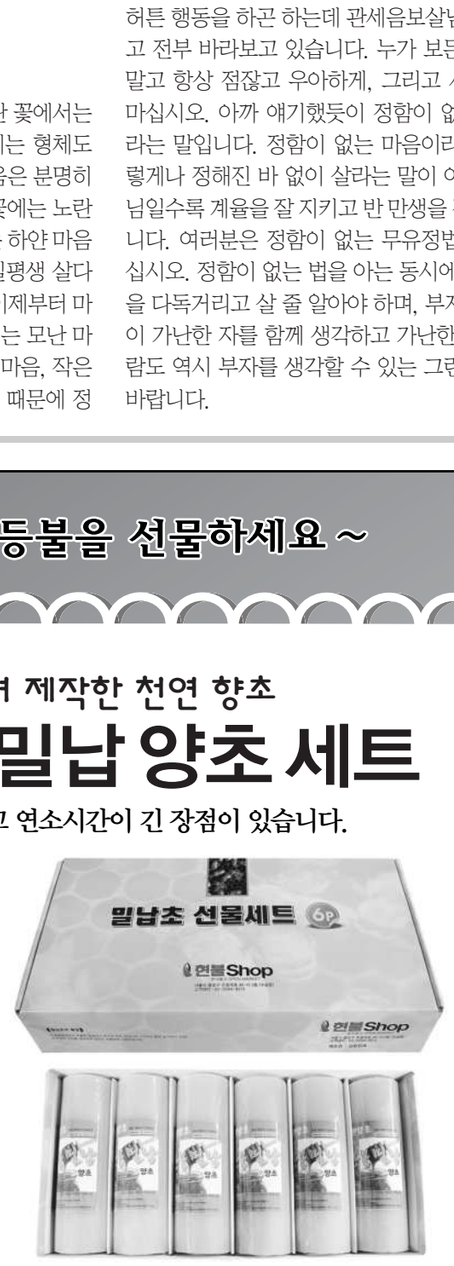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동아시아 학자 눈에 비친 대승기신론은?

금강대 불교문화硏, 제4회 국제불교학술대회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평가 받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한중일 학자들의 견해를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는 6월 19~20일 양일간 부여 백제역사문화관에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신론관' 이라는 주제로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사업단, 일본 도요(東洋)대, 중국의 런민(人民)대가 공동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태원, 석길암 교수 등 국내 학자들을 이시이 고세이(石井公成), 오다 아키 히로(織田顯祐) 등 해외학자 20여명이 참여해 발표와 논평으로 학술적 지평을 넓혔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승기신론이 처음 동아시아에 나타난 시기의 문제부터 동아시아 불교의 중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대승기신론에 대한 관점, 나아가 오늘날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승기신론관까지 다양한 방면의 논의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대승기신론의 발생과 근원에 대한 문제는 이날 학술대회의 주된 논쟁거리였다.

석길암 금강대 HK교수는 일본에서 주류 학설로 정착된 지론종의 대승기신론 찬술설에 대해 "적어도 사상사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기신론이 지론종의 영향 하에서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시이 고세이 고마자와대 교수는 문헌비교 프로그램 'NGSM'을 통해 진제스님(499~569)이 세친보살의 저작을 역경한 〈불성론〉 속 어법과 〈대승기신론〉의 어법이 유사함을 들며 이를 반박했다. 이시이 교수는 진제 스님이 〈불성론〉을 지을 당시 진제 스님 주변에 보리유지 스님에 의해 번역된 지론종의 경론이 이미 전수되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첩(李子捷) 고마자와 대학 박사는 〈능가경〉과 〈보성론〉의 사상검토를 통해 이들 경론이 기신론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음을 논증하며 이시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6월 19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석길암 금강대 교수(왼쪽서 네번째)가 대승기신론 근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신론 발생~현대 해석 변화 다뤄
다양한 각도에서 '대승기신론' 조명
석길암 "사상사적 지론종 영향 없어"

중국 학자들은 종밀(宗密 780-841), 담광(曇曠 8세기 중반) 스님과 같은 근대의 스님들과 장병린(章炳麟 1868-1936), 인순(印順 1906-2005) 등 근대 불교학자들이 가진 대승기신론관을 논의하고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대승기신론이 끊임없이 변주되며 불교교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기신론의 사상적 특징을 '연기' 키워드를 통해 고찰했다. 그는 "기신론은 여래장 연기가 아니라 유식연기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신론의 주류 해석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또 오다 아키히로 교수는 기신론을 진여연기로 보는 견해를 극히 실체론적인 이해라고 비판하며, "기신론은 중생이라는 현실의 측면에서 불성 혹은 여래장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중일 제5회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런민대에서 '불교와 전통사 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소장 문화재, 대거 보물로

문화재청, '봉수당진찬도' 등 4건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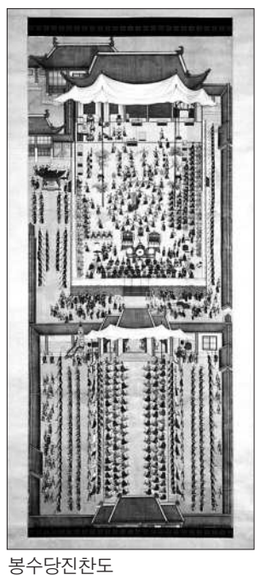
동국대가 소장 중인 문화재가 대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봉수당진찬도는 1795년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顯隆園)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했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 '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屛)' 중 1폭이다. 양식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도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 재일교포가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으로, 비록 낱폭이지만 작품성은 그 어떤 8폭 병풍이나 다른 낱폭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역시 동국대가 소장 중인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는 1546년(명종 1)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실시된 과거시험) 문 · 무과 합격 동기생 5명이 1567년(선조 즉위) 전라도 광주의 희경루에서 만나 방회(榜會, 과거 합격자 동기모임)를 가진 기념으로 제작한 기년작(紀年作) 계회도(契會圖)이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가 매우 생기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고 평가된다.

광개토대왕명 호우는 1946년 경주 은령총(銀鈴塚)과 함께 그 인근에서 발굴한 호우총(140호 고분 · 노서동 213번지) 출토 그릇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봉수당진찬도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삼국유사에 조성 내력이 보인다. 이에 의하면 644년(선덕여왕 13)에 도중사(道中寺)의 생의(生義) 스님이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자신을 꺼내어 안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남산 북봉을 찾아 삼존상을 발굴해 삼화령(三花嶺)에 봉안했다고 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 서양철학의 만남 자리 열린다

미붓아카데미, '21세기, 불교를 철학하기' 눈길

불교와 서양철학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미붓아카데미(대표 이학종)는 7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마지'에서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연속 강좌를 개최한다.

연속강좌에서는 철학자 21명이 참여한다. 서양철학의 대가들로 알려진 학자들이 나서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학자를 소개하면 이석재 서울대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10년여 간 교수로 재직하다 서울대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서양근대철학과 형이상학의 전문가이자 세계 철학계에서 버클리-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박찬국 서울대 교수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았다. 니체와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철학 전문가로서 베스트셀러인 〈초인수업〉으로 유명하다. 청송학술상, 원효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불교와 서양철학을 비교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는 '아비달마 구사론' 부터 '순정리론' 까지 부파불교의 핵심을 10년여에 걸쳐 완역한 국내 유일한 학자이다. 아비달마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불교 중관학의 대가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교리를 쉽게 풀어서 일반에 전달하기로도 유명하다. 올해의 논문상, 불이상, 청송학술상, 올해의불서10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창환 금강대 교수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최첨단의 학문을 익히고 들어온 대표적인 신진 불교학자로 아비달마 및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했으며 현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미붓아카데미의 이번 강좌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불교라는 자리에서 출발해 동서양의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철학적 지평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강좌의 참가비는 2만 원이며, 모든 강좌를 수강할 시에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학종 미붓아카데미 대표는 "서양철학과 불교를 낱낱이 비교,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0)5575-7010

노덕현 기자

"호흡 그 자체만으로 중요 수행"

박성식 동국대 교수, 한의학연구소 세미나서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와 불교문화연구원은 6월 13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심신치유를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융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식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교수〈사진〉가 '수식관호흡이 사상체질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박 교수는 "호흡은 마음과 신체의 중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부처님도 '호흡'에 대한 집중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호흡 그 자체가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식관 호흡은 평소 호흡에 비해 호흡수나 평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며 "호흡수는 들숨집중호흡에서, 평균심박수는 날숨집중호흡에서 안정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평소호흡보다 수식관 호흡은 호흡과 심장의 활동을 안정시키는 반면, 심박변이도와 연관된 자율신경계를 활성화 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에서 이뤄진 '유식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논문 경향을 분석한 발표가 있었다. 박재용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이를 주제로 한 최초 연구는 1981년 시작돼 2014년 말까지 27편의 연구논문과 19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됐다. 박 교수는 "유식불교 전체를 나열하고 심리치료와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식의 특정 내용에 집중해 구체적인 적용을 논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내용을 실용화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기운 동국대 교수가 천태지관 수행을 심리치료 기법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적 연구에 대해, 정준영 ·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부처님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초기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을 모색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젠더와 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회장 양병현 상지대 교수)는 7월 8~9일 서울 신촌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제2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영국과 캐나다. 인도 등 6개국 학자들이 참석해 '젠더 스토리와 종교'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캐나다 오타와 대의 나오미 골든버그 교수를 비롯해 영국 캔터베리 크리이스트처치대의 버커드 쉬어러 교수, 한국에서 문학과 종교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니엘 키스터와 안토니 명예교수 등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미얀마 불교연구에 함께 협력"

동국대 선연구소, 미얀마 시따구국제불법학교와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와 미얀마 시따구 국제불법학교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소장 진월)는 6월 12일 연구소에서 미얀마 시따구 국제불법학교(총장 아신 냐니사라 스님)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구소와 국제불법학교는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 학생과 교수 및 연구 자료의 교환, 국제적 프로그램의 공동 참여, 학술회의 및 워크숍 공동 조직 등에 협력한다.

진월 스님은 "앞으로 시따구 국제불법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불법학교 총장 아신 냐니사라 스님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종파인 쉐찐(Shwegjin)종 부종정으로 미얀마 자카잉, 양곤, 만달레이에 시따구 국제불법학교를 설립하여 승가교육에 힘쓰고 있다.

노덕현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교디자인 40년, 화엄사상으로 이을 터"

불교미술 1세대 고현 교수 고별전… 조선대서 개최

현대 불교미술 디자인의 개척자인 조선대학교 고현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고별전을 열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서 개최된 고별전은 대표 작품 40여점과 함께 학교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고별전에는 '불교미술 현대화 40년' 과 '불교디자인 개척화 40년'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렸다.

고현 교수는 고별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화엄경의 한 말씀인 일체유심조 심외무별법(一切唯心造 心外無別法)이라는 가르침을 평생의 의지처로 삼고 살아온 듯 싶다"며, "흔히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고들 하듯이 제 그림은 제 마음의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제 마음이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 라는 화두를 안고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든 교정을 떠나 있어서 늘 '영원한 조대인' 으로 살아갈 듯 싶다"라고 마지막 회향의 말을 전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서재홍 총장도 고별사를 통해 "고현 교수님의 헌신적인 후학양성과 작품에 대한 열정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작품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현 교수는 1981년 법정스님과 불일암에서 맺은 인연으로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를 도안했으며, 현재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길상사에서 법정스님 5주기를 추모하는 '불일암 추억' 전을 열었으며,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현대인과 불교미술이 소통하는 길을 연 작가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인 불화의 색상을 벗어나 화려한 현대적 감각의 색채를 통해 불교의 현대적 디자인을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 받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현 교수 고별전(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에는 동료교수들과 제자들이 모여 불교미술발전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조정래 작가 "월정사 적송 숲서 집필"



2016년 5월 이주…오대산 문화특구 조성 일환

소설 '태백산맥' 저자이자 불자인 조정래 작가(사진)가 2016년 5월부터 평창 월정사 앞 적송 숲에 터를 잡고 집필활동에 들어간다.

6월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조정래 작가는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적송 숲에 거주지와 집필공간을 마련해 이르면 2017년 봄부터 이주할 예정이다. 조정래 작가의 강원도 이주는 월정사 일대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중 하나인 오대산 문화특구 조성과 함께 이뤄졌다.

집필공간이 마련되면 개인 작품 활동과 함께 오대산 문화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문학도들을 상대로 정기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 측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등과 연계해 문학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조정래 작가는 수년 전부터 매년 여름 강원도에서 집필활동을 펼쳤다. 소식을 접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주를 권유했고 작가도 이에 화답해 결실이 맺어졌다. 작가는 오는 7월에도 알펜시아리조트에 머물며 신작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작가는 17일 강원도청에서 마련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강에서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학벌과 물질만을 쫓아왔기 때문으로 이제 잘못된 질서에 대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정신적 풍요에서 행복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날 불자인 조정래 작가는 맨손체조와 산책으로 하는 건강관리 비법, 컴퓨터를 쓰지 않고 펜으로만 글을 쓰는 이유,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는 삶의 행복 등도 함께 전했다.

한편, 월정사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전남 불교문화재 7점, 지방문화재 지정예고

전남지역 불교문화재인 보성 불광사 목조 관음상 등 8건이 6월 8일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

보성 불광사 목조 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佛光寺 木造 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은 조선 후기(1667년께) 조성된 목조 관음상으로 조각 양식이 우수하다.

완도 수향사 목조 관음보살좌상(修香寺 木造 觀音菩薩坐像)은 조선 후기(18세기) 조성된 목조 보살상으로 세부 형식이 수준 높고 정제된 조각상으로 18세기 보살상을 설펴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곡성 서산사 동종(西山寺 銅鐘)은 1730년 조성된 동종으로 조선 후기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종 조성과 관련된 연대, 장소, 장인이 기록돼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곡성 연운당 고문서(漣雲堂 古文書)는 과거 문서, 호적문서, 소지류, 일기류, 미암일기 등초록 등 일괄문서로 조선 후기 향촌사회사와 제도사, 생활사 등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해남 약수사 불교전적(藥修寺 佛教典籍)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권1~4(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四)' 등 7책의 불교 전적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 희귀본 불서로 서지학적으로나 불교사상사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다.



곡성 서산사 동종

해남 미황사 목조 석가여래 삼불좌상(美黃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삼존불로 조선 후기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불상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해남 미황사 목조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美黃寺 木造 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조선후기 제작된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시왕, 판관, 녹사 등 25구의 조각상(명부전 봉안)으로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존상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해남 미황사 목조 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美黃寺 木造三尊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은 조선 후기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과 십육나한상을 비롯한 23구의 조각상(응진당 봉안)으로 18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존상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제2분과)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6월 19일 대적광전에서 불기2559년 을미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사진〉

87명의 대중스님들이 동참한 이날 포살법회에는 성우스님이 포살법사로 나서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했다.

성우스님은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 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금산사는 오후 불기2559년 2차 17교구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금산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한 이 날 교구종회에서는 메르스 사태 종식 기원 기도가 진행됐다.

또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9월 18일 '처영대사와 조선 후기의 금산사'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또 10월 15일 금산사에서 전국의 합창단 1천여명이 동참하는 전국불교소리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10월 31일에는 개산 141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18일과 19일에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문화제를 연다. 10월 18일에는 국내 거주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아시아 문화축제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우암당 혜산스님 10주기 추모재

호남의 대표적인 선지식 우암당 혜산스님의 10주기 추모재가 6월 21일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혜산 스님과 수행모임을 함께한 도철 스님 등 석우회 스님들과 철산 스님을 비롯한 문중 원로스님,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 재가불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석우회 도철 스님은 생전 혜산 스님을 회고하며 "스님은 성정이 온화하고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을 두루 갖춘 훌륭한 스님이었다"며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 지성을 갖춘 스님의 가르침을 후학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수행 정진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은 "혜산 스님은 근세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인 해안대종사를 이은 선지식이었다"며 "스님의 큰 뜻을 이어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내소사 주지 진학스님이 대중스님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학 스님은 "은사스님의 추모재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큰 원력과 가르침을 이어 게으름없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암 혜산 스님은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사 주지, 내소사 회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6월 13일 내소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공당 탄성 스님 15주기 추모다례재

조계종 개혁불사의 주역이었던 진공당 탄성 스님의 제15주기 추모 다례재가 6월 21일 충북 괴산 낙영산 조계종 공림사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서는 탄성 스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공림사 중창공덕비 제막식' 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월탄 스님, 금오문도회 운영위원 스님들과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주지 종우 스님, 탄성스님 문도회 대표 도공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 신도회장, 이종호 공림사 신도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진공당 탄성 대종사께서는 선농일체를 몸소 실천했고, 밖으로는 부드러우면서 내적으로는 매우 강인한 분"이라며 "입적하신 스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앞으로 정진하자"고 추모했다.

괴산 공림사 중창주인 탄성 스님은 법주사 주지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고 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98년 조계종 사태 당시 전국승려대회 대회의장 등을 맡아 개혁종단의 출범에 큰 공을 세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분단 70주년, 한반도의 평화 기원합니다”

지역 불교단체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추모 행사 이어져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며 호국 영령을 위로하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원하는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회장 무원)는 6월 2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호국영령 및 UN군 전몰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6 · 25 전쟁에서 생명을 잃은 유엔군 전몰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이사 무원 스님 및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등 각 종교 지도자 공동대표와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합동위령제는 1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분향 및 헌화, 종단별 추모사,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추모곡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2부에서는 각 종교지도자 및 신도들이 유엔기념묘지에서 직접 헌화하고 참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무원 스님은 “호국 선열의 열정으로, 피의 전장에 나섰던 결기로, 남북평화 통일을 빨리 이루어 한민족이 동고동락 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발원한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전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제35회 군 · 경 전몰장병 호국영령 영가 천도 49일 지장기도’를 봉행했다. 지난 5월 8일 입재를 시작으로 49일간 진행된 호국영령 천도 지장기도는 6월 25일을 회향식을 가졌다.

주지 정련 스님은 “메르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49일 동안 호국 영령들을 위한 기도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오늘 이곳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불자들의 마음에도 호국 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보훈가족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호국영령 및 UN군 전몰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유엔기념묘지에서 직접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합동위령제
내원정사, 호국영령 49일 지장 기도
진여원, 호국영령재 · 보훈가족 위안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도 메르스로 인해 연기됐던 ‘제17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진행했다. 6월 2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동암 스님(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위령재로 시작해 2부 추모식에서는 극락왕생기원 등 밝히기, 내빈들의 헌화 및 분양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 53사단 장병들의 조총 발사와 진혼곡 연주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으며 보훈 가족에게 장학금 및 감사패도 전달해 위로했다.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의 추도 법문에 이어 진여 합창단과 53사단의 추모곡 ‘현충의 노래’가 울려 퍼진 가운데 모든 위령재 및 추모재가 엄숙히 마무리 됐다. 또한 3부에서는 보훈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려 참가한 미망인과 유가족을 격려하는 시간도 개최됐다.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북 평화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호국 선열의 희생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립과 집착을 떠나 모두가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쟁정신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현충비를 건립한 후 지금까지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지난 17년 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 후원자 모집

7월 개원 매주 월 · 수 어르신 위한 점심공양

경남 진주 재가 불자들의 불법 포교와 교육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진주불교회관(이사장 이가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이 7월 개원을 앞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보현의 집 안정임 센터장은 “6월 17일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려 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일단 7월 말로 잠정적으로 개원식을 연기했다”며 “하지만 후원 모집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진주불교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보현의 집은 앞으로 매주 월, 수요일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공양을 마련한다.

또한 진주에 혼자 있는 노스님들의 밑반찬 공양과 군법당 간식, 진주불교회관을 찾는 도반들을 위한 공양 등을 준비한다.

아울러 (사)진주불교회관은 보현의 집 개원식을 마지막으로 진주의 재가불자들이 함께 펼쳐온 불교회관 불사를 마무리 한다. 안정임 센터장(진주불교회관 불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됐으며 보현의 집 개원식을 마지막으로 불사 회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불교회관 불사는 앞으로 진주 불교의 융성을 다시 회복하고 맞이하는 준비 단계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불교회관은 21년 전 재가자들이 만든 신행 단체로 불교교양대학, 어린이템플스테이, 불교문화한마당, 청소년 지원센터, 대불련지원사업, 진주불교청년회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재가자들의 신행활동의 중심지로 활용됐다. 2006년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진주불교회관은 불교문화회관 건립 발원을 세우고

노스님 위한 밑반찬 공양
군법당에 간식 제공도 계획

2013년 3월 5일 진주불교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남에 있는 스님들을 비롯해 진주지역의 3,000여명 재가불자들이 동참해 불사를 추진하고 완공을 한 진주불교회관은 2014년 10월 29일 회관 이전 대법회를 봉행했다. 진주불교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다양한 불교 수업 및 불교 문화콘텐츠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후원 농협 351-0806-6097-33 (사)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055)747-0108

하성미 기자

통도사, 가뭄 극복과 메르스 퇴치 기원

6월 20일 단오절 용왕제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메르스와 가뭄에 고통 받고 있는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 건강을 발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통도사는 대방광전 앞 구룡지에서 6월 20일 단오절 행사를 개최하고 메르스 퇴치와 가뭄 해소를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동진 스님 및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했다.

전각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500여년 동안 단오절 용왕제를 개최해온 통도사는 이번 해에는 특별히 가뭄과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는 자리로 진행해 더욱 뜻 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로 통도사는 금강계단에서 용왕제를 열고 경내 주요 전각에 비치되어 있던 소금단지를 교체했다. 이어 참가한 대중에게 주지 영배 스님은 ‘항화마진언’을 붙인 소금주머니를 전달하고 화재와 재난에서 안전하기를 기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메르스와 가뭄에 고통 받고 있는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 건강을 발원하기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했다.

한편, 통도사는 지난 19일 영축환경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을 파괴하며 통도사에서 진행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된다”며 새롭게 출범한 영축환경위원회에게 자연 보호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축환경위원회 2기 위원장에는 통도사 사회국장 마벽 스님과 부위원장에 진각 스님(통도사 기획국장) 이영경 동국대 교수 등을 선임했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과 함께 신나는 여름방학 보내자”

한마음선원 등 부산지역 여름 수련회 풍성

메르스도 막을 수 없다. 신나는 방학을 맞아 경남 부산의 사찰들이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과 오감을 자극하는 시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허)는 7월 18일~21일, 7월 25일~29일, 8월 5일~ 8일,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 대상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이며 어린이는 7월 25일에 열리는 어린이 한문학당에 참가가능하다. 수련회 프로그램은 다례체험, 별보기 명상, 나를 돌아보는 명상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신청은 http://www.ssanggyesa.net/home/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는 ‘멋쟁이 대장부’ 템플 스테이는 7월 11일~12일, 7월 25일~26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청소년 ‘최고야 대장부’는 8월 8일~9일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여름수련회도 준비한다. 청년회 수련회는 ‘함이 없이 하는 행’이란 주제로 8월 14일~16일 한마음선원 진주 지원에서 열리며 학생회 수련회는 ‘친구야! 같이가자’라는 주제로 7월 24일~2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마련된다. 7월 30일~8월 2일 동안은 어린이회를 위해 수련회를 개최하며 장소는 경상북도 안동이다. (070)4650-5535

신라 화랑들의 기상을 체험 할 수 있는 여름 수련회도 개최된다.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주지 적운)는 ‘제47회 청소년 화랑 수련회’를 개최한다. 기본교육프로그램은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 강의, 영어회화 등이다. 특별히 준비하는 생태순례 코스 감포깍지길 순례, 읍천항, 주상절리길 걷기, 경주 남산 등을 답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기간은 1차 7월 26일 ~ 8월 1일, 2차 8월 2일~ 8일, 3차 8월 9일~15일, 4차 8월 16일~22일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www.golgulsa.com을 통해 가능하다.

하성미 기자

메르스 극복 위한 발원 기도 ‘눈길’

대구 대관음사, 19일 메르스 퇴치 21일 기도 입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사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가운데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이하 대관음사)가 메르스 극복을 위한 발원 기도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관음사는 6월 19일 ‘메르스 퇴치를 위한 국민 · 가족 건강 발원 21일 기도’를 입재했다. 기도 동참자들은 매일 △관세음보살 정근 1시간 △108배 △금강경 1독으로 국민과 가족의 건강을 발원하게 된다. 또한 사시불공 기도 동참자에 대한 축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대관음사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토요일 무료급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요양원 면회도 사절하고 있다. 출석 강의도 6월 29일까지 인터넷 강의로 전환시켰다.

또한 수시로 전 도량의 손잡이와 해우소를 전체 소독하고 있으며, 사찰 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위생과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대관음사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도량의 청결을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청정히 함으로서 메르스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6월 19일 ‘메르스 퇴치를 위한 국민 · 가족 건강 발원 21일 기도’를 입재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저자 보현스님의
‘개인상담을 통한 참 수행 명상 禪 수행’ 대중모집
하루 7분 수행으로 내 안의 다이아몬드를 찾자
행복충전소 부처님 마을에서는 행복한 생활 명상선을 주제로
‘생활선 명상법회’ 및 ‘1:1개인 맞춤 생활선’을 집중 지도해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참가하실 대중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수시
■ 명상법회 : 매주 화, 토, 일
■ 참가문의 : 행복 충전소 (평창동) 부처님마을 ☎ 02)379-2010
행복충전소 부처님 마을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15

고려인 불심과 민족문화 우수성 드러나

탑의 진화

㊴ 청석탑과 전탑

〈청석탑〉

불탑을 조성할 때는 매우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벽돌을 이용한 전탑, 나무를 사용한 목탑, 석재를 활용한 석탑 이 외에도 옥탑(玉塔), 수마노탑(水瑪瑙塔), 금탑(金塔), 은탑(銀塔), 칠보탑, 사탑(沙塔), 니탑(泥塔), 토탑(土塔), 분탑(糞塔), 철탑(鐵塔), 동탑(銅塔), 수정탑(水晶塔), 유리탑(琉璃塔), 향탑(香塔)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탑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석탑의 나라' 라는 별칭이 붙기도 한다. 이러한 석탑을 조성할 때에는 크게 세 종류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화강석과 대리석, 그리고 청석이다. 청석이란 흑청색의 빛깔을 띠는 점판암(粘板岩)을 말한다. 이러한 청석은 재질이 물러서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석이나 벼루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통일신라 말부터는 불탑의 재료로 이용되어 청석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불교문화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청석이 채굴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유행처럼 전국 각지에서 청석탑이 조성되었다.

청석은 화강암과 비교하여 표면이 아름답고, 가공이 용이하며,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고, 조탑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불탑재료로 선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청석의 재질 특성상 대규모의 불탑조성은 불가능하지만 9층, 11층, 13층의 다층으로 쉽게 구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더구나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 주관하는 조탑 불사와는 별도로, 왕도인 개성을 벗어나 지방 각지에서 불심 깊은 호족들의 원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불탑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청석탑의 유행을 더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10여기의 크고 작은 청석탑**〈표1〉**이 현존하고 있다.

이 중 법보사찰인 해인사 경내 원당암에 있는 청석탑**〈사진1〉**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청석탑은 4각3단으로 구성된 화강암의 지대석 위, 연화무늬가 조각 된 대좌형식의 기단 위에 1층 탑신이 청석으로 이루어졌다. 탑신 위로는 10장의 청석

〈사진1〉



원당암 청석탑

청석탑, 지방호족 중심 건립 특징
10여기 크고 작은 청석탑 현존

지붕돌이 일정한 체감율을 보이고 있고, 네 모서리에는 추녀를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또, 풍탁을 매달은 구멍이 있으며 탑상부에는 노반석과 복발을 한 개의 석재로 마감하였다. 이 탑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 약간 후대인 10세기 중반에 조성된 염불암 청석탑**〈사진2〉**은 현재 화강암의 지대석과 청석의 지붕돌만 남아 있다. 충주의 창룡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구전되는 사찰로 현재 대웅전 앞뜰에 7층의 지붕돌만 남아 있는 청석탑**〈사진3〉**이 있다. 주목되는 점은 12엽의 연화문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1층 지붕돌의 모습이다.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는 보물 제27호인 6각 다층의 청석탑**〈사진4〉**이 있다. 현존하는 청석탑 중 유일하게 6각의 형식으로 조성된 희귀한 불탑이다. 본래는 혜덕왕사가 1079년(문종33)봉천원구를 창건하면서 조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유재란 때 봉천원구가 소실되자 수문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원래 12층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11층만 남아 있으며, 총 높이는 2.18m로 각 층의 체감비례가 안정적이다. 청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섬세한 조각수법으로 공예적인 면을 잘 드러내, 화려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불탑이다.

〈전탑〉

전탑(塼塔)이란 벽돌을 재료로 하여 조성된 불탑을 말한다. 벽돌은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인공건축자재로 신석기 시대인 약 8,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메스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로부터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벽돌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석재(石材)와 비슷하고 무게가 돌 보다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양식을 표현할 수 있고, 조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는 많은 전탑이 조성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유사〉 권4. 양지 사석조에 의하면,

'영묘사의 장육삼존 천왕상과 전탑을 덮은 기와, 천왕사탑의 팔부신장,,,(중략),,,또한 일찍이 벽돌을 새겨 조그마한 탑을 만들고 아울러 불상 3천여 개를 만들어 그 탑에 봉안하여 절 안에 두고 예배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적어도 사천왕사가 세워진 679년 이전인 삼국시대에 전탑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탑조성 역사는 유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전탑은 소량으로 국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있다. 문헌상의 기록이나, 전탑이 있었던 탑지의 발굴에 의하면 전탑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희소한 불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주의 덕동사지전탑, 인왕동전탑, 석장사지전탑, 삼랑사지전탑과 울산 농소읍전탑, 청도 불영사전탑, 운문사전탑, 대구 송림사전탑, 등 많은 전탑이 조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안동지역에 3기의 전탑이 위용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국보 제16호인 법흥사 7층전탑**〈사진5〉**은 높이 17m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전탑 중 최고와 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법흥사는 폐사되고 현재는 탑만 남아있다. 더구나 탑의 양쪽으로는 안동댐 하류의 강변을 따라 지나는 중앙선 철로와 '고성이씨 탑동종택' 이 탑의 기단부와 거의 맞대고 있기 때문에 겨우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공간만 있다.

이곳의 중앙선 철로는 일제강점기에 놓인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철로 위로 기차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기차가 지날 때마다 생기는 진동과 소음 때문에 탑은 조금씩 붕괴되고 있어, 우리 손으로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 슬픔을 감수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문헌에 의하면 원래 탑상부에는 화려한 금동장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사진5〉



법흥사 7층 전탑

전탑, 화감암 · 벽돌 혼용 사용 특징
현존 탑은 소량, 안동지역에 많아

법림사 5층전탑**〈사진6〉**은 현재 안동역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물 제 56호인 이 탑은 '동부동 5층전탑' 으로 불리고 있다. 〈동국여지승람〉과 〈영가지(永嘉誌)〉등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탑 부근에 법림사(法林寺)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5층전탑과 당간지주만 남아 있으며, 원래 정상에는 금동상륜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에 의해 철거되었다. 또, 층수도 7층까지 있었으나 역시 임진왜란 때인 1598년(선조 31)에 붕괴된 것을 5층으로 개축하였다. 탑의 기단부는 3단으로 화강암을 사용하였고, 1층 탑신 남면에 감실(龕室)을 설치하였으며 2층 탑신 남쪽면에는 두 구(軀)의 인왕상(仁王像)을 조각한 화강암 판석이 끼워져 있다.

보물 제57호인 안동 조탑동 5층전탑**〈사진7〉**은 수년전만 해도 사과 과수원 경작지로 심하게 황폐화된 상태에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이 탑은 높이 8.65m로, 토축기단(土築基壇) 위에 5단의 화강석 지대가 있고, 1층 옥신은 크기가 똑같지 않은 화강암 석재를 5~6단으로 쌓았으며, 그 남쪽에는 직사각형의 감실을 만들고 그 좌우에는 인왕상이 조각하였다.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은 화강암과 벽돌을 혼용하여 조성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석탑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중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탑이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청석, 벽돌 등 다양한 재료를 그 특징과 재질에 맞게 활용해 조성한 불탑이 무수히 많다. 지금은 본래의 형태가 모두 보전되지 못한 탑이 많아 아쉬움이 남지만, 청석탑과 전탑 등 다채로운 모습의 불탑들이 이어온 유구한 역사만큼은 그대로이다. 당대 선조들의 깊은 불심과 예술정신 뿐 아니라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불탑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지닌 우수함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표1〉 현존하는 청석탑의 현황

구분	탑 명칭	현재 위치	시기	현재 구조
1	원당암 청석탑	경북 합천 해인사	10세기 초	4각 10층
2	대곡사 청석탑	경북 의성 대곡사	10세기 초	4각 12층(13층 추정)
3	반룡사 청석탑	경북 고령 대가야 박물관	10세기 초	4각 12층(13층 추정)
4	염불암 청석탑	대구 동화사 염불암	10세기 중	4각 9층(탑신부 소실)
5	보문사 청석탑	강원 원주 보문사	10세기 말	4각 5층
6	무릉리 청석탑	강원도 영월군 무릉리	10세기 말	4각 4층(부재 소실)
7	창룡사 청석탑	충북 충주 창룡사	11세기 초	4각 6층(부재 소실)
8	여적암 청석탑	충북 법주사 여적암	11세기 초	4각 6층(부재 소실)
9	입석사 청석탑	강원도 원주 치악산	11세기 말	4각, 2기의 석탑부재혼재
10	금산사 청석탑	전북 김제 금산사	11세기 말	6각 11층
11	법화암 청석탑	경남 창령 법화암	11세기 말	4각 7층(탑신1개)
12	세심사 청석탑	충남 아산 세심사	11세기 말	4각 9층(최근 복원)
13	두방암 청석탑	경남 진주 두방암	12세기 중	4각 12층(13층 추정)

〈사진2〉



염불암 청석탑

〈사진3〉



창룡사 청석탑

〈사진4〉



금산사 청석탑

〈사진6〉



범림사 5층전탑

〈사진7〉



조탑동 5층전탑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남종선의 돈오 남종화의 직관 '마음수행' 결실



閑山閑水 한산한수 必自有意 필자유의

한가로운 산빛 물빛이여
그 속에 깊은 뜻이 있겠지

◀원학 스님이 직접 꼽은 대표작

대담 원학 스님에게 듣는 禪으로 본 남종화

국내 남종화(南宗畵)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삼이당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이 6월 17~23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7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원학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산수화와 사군자, 서예 등 작품 72점을 선보였다. 수년 전부터 작업 중에 모아둔 소품들로, 봉은사 다래헌에서 지난 겨우내 정성을 쏟아 완성했다. 6월 22일 전시장 아라아트센터에서 스님을 만나 남종선과 남종화 등 禪으로 본 남종화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서예를 하는 스님들은 많지만 산수화에 조예가 깊은 스님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남종화의 세계에 입문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붓을 들었지만 그림은 20세 때 입문했습니다. 출가해서는 줄곧 사경을 통해 혼자 글씨를 익혔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정할 무렵 노스님께서 손상좌가 서예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남 오제봉 선생의 문하에 들어갈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청남 오제봉 선생은 영남서예의 대가로 부산에 계셨습니다. 범어사 강사를 하며 대신동 청남 선생의 집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기도 하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밤이 늦어 팔송에서 범어사까지 십리길을 걷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문하에서 공부했습니다. 청남 선생 문하에서는 그림보다 선비정신과 아름다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인품을 더 배웠죠.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인 먹을, 가장 깨끗한 화선지에 올리는 것.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서예' 라구요. 수행자가 극락과 사바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청남 오제봉 선생은 의재 허백련 선생, 효당 최범술 선생과 서로 의형제를 맺고 자주 왕래하며 풍류를 즐기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청남 선생의 서가에 의재 선생의 그림이 한 폭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매료돼 그날 이후 남종화에 천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종화를 어떻게 익히셨습니까.

남종화는 처음부터 산수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글씨와 십군자, 화조를 그려내야 산수화를 가르칩니다. 대구에서 의재 선생에게 십군자를 사사받은 목산 라지강 선생에게 십군자를 배웠습니다. 서울 낙원동에서는 우계 선생을 만나 산수화를 모두 배웠죠. 의재 선생의 타계로 직접 사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남종화는 당나라 선종이 남북으로 나뉜 것에 착안해 명 말기에 중국 산수화를 남북 2종으로 구분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나라 문인화가 왕유를 시조로 삼는데 추사 김정희가 중국에서 배워와 소치 허련, 남농 허건, 의재 허백련으로 이어지며 호남지방에서 맥을 이어왔습니다.

남종화와 남종선의 수행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요. 스님은 남종화를 통해 어떤 수행을 해오셨는지요.

중국 불교 선(禪)의 황금시대인 6~8세기 돈오돈수의 남종선과 돈오점수의 북종선이 나타납니다. 6조 혜능 스님의 남종선이 한국에 전래된 이후 간화선으로 정착됐습니다.

담박에 깨치는 돈오의 남종선과 가슴에 담아둔 것을 어느 한 순간에 그림으로 펼쳐내는 남화선은 그래서 닮았습니다. 남종화는 이 때문에 많은 수행이 함께 필요합니다.

북종화가 정형화되고 사실적이며, 논리적인 기법을 동원하는데 비해, 남종화는 마음에 담아놓은 심상을 문득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관력이 중요하죠. 자신과 자연이 합일된 순간 희열감을 느낄 때 붓을 들고 표현하는 것으로 간화선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남종화는 그래서 자기수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닌 마음을 닦는 수행의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이번 그림 전시를 통해 스스로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 그림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새벽에 일어나 6시부터 10시까지 해가 뜸과 동시에 기운의 상동함을 느끼며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집중하니 금강경 사경 병풍도 원래는 2개월이 걸리는 데 20여일 만에 두 작품을 완성할 정도였습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일로 어려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림수행이 힘이 되셨는지요?

1998년 종단사태때는 제주도에 내려가 6년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추사의 유배지이기도 하죠. 초의 스님과의 교분이 있는 관계로 그 인연으로 〈동다송〉에 대한 집필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을 위한 '청묵예원' 을 설립하고 묵향에 파묻혔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필묵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했죠.

간혹 주변에서는 왜 남종화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리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작가도 아니며, 제 그림의 목적은 수행이기 때문이지요.

봉은사 다래헌에서 겨우내 붓을 들고 정성을 쏟아부어 작품을 완성했지만 시간에 쫓기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온 정성을 쏟아 부어 완성한 작품임에 분명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내 심성의 깊이에서 필묵을 통해 표현해 내고자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듯 몰입이 됩니다. 또한 작업 내내 남종화의 사의적(寫意的) 직관력을 잃지 않으려고 초지일관 기본정신에 충실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스님의 수행과 예능을 어떤 방식으로 회향하시는지요.

현재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틈틈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예와 그림을 가르치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남종화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외형의 화려함에 치중해 있습니다. 검소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종화의 문인정신을 지켜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렵고 험난한 일이며 고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 하든 언제나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답고 순수한 정경들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행과 문인화의 기본정신에 충실해 살아 숨쉬는 남종화 전통을 지켜 가겠습니다.

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스님의 작품 중 '하나' 가 눈길을 끌었다. 고음부의 산봉우리와 저음부에 위치한 사람의 마을, 환(幻)과 진(眞) 사이를 떠도는 여백, 그 가운데 조용히 노를 젓는 사공의 모습이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스님의 그림 속 사공이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들 삶도 진속을 떠돈다. 스님의 남종화는 묘경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을 맛보게 하는 일대 향연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 속에 극락 · 사바세계가

더러움과 깨끗함의 조화 추구
일엽편주의 사공은 우리네 닮아
아침 일출과 함께 그림에 집중
자연과 함께 물아일체됨을 느껴

남종화의 문인정신 지키기

의재 · 우계 선생의 남종화맥 이어
심상을 직관으로 단박에 표현
간화선 수행과도 맞 닿아 있어
서예교실 등에서 재능 기부



봉은사 다래헌에서의 원학 스님

원학 스님은

경북 경산의 경주 김씨 집안에서 출생해 열여섯 살 때 도성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한 원학 스님은 해인승가대학 12기로, '해인승가대학 승가상' 을 수상했고,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문화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0 · 11 · 12 · 15대 중앙종회 의원, 서울 조계사, 봉국사, 진주 연화사, 대구 용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일할 때 스스로 지은 '삼이' 란 호는 '총무원 소임은 봉사하는 자리이며 대중들을 위해 항상 귀를 밝게 하겠다' 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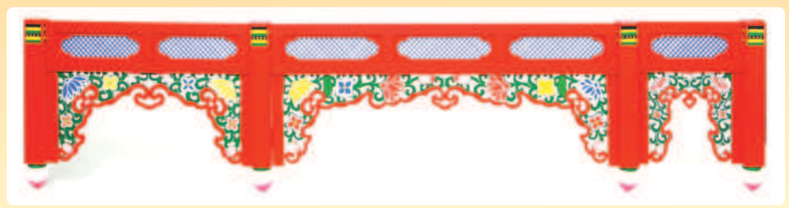


6월 22일 개인전 전시장에서 만난 원학 스님이 남종화와 선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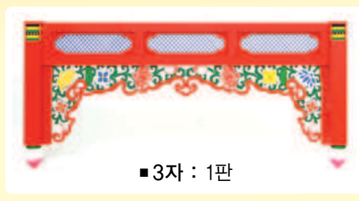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04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나를 낮춰야 道를 구할 수 있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⑥ 원숭이 왕, 어디를 헤매이나(2)



그림 · 최주현

우리의 세계인 남섬부주에 도착한 원숭이 왕은 괴물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기절한 사람 옷을 빼앗아 입고, 사람 사는 곳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장했으면 기절한 사람까지 있을까요.

좀 지난 유머지만 마누라를 무서워하는 공처가의 등급에 마누라만 보면 경기가 드는 '경처가' , 기절하는 '기처가' 가 있다고 하였는데 혹시 기절한 사람은 원숭이만 보면 기절하는 '기원가' 가 아니었을지 모르겠네요. 기처가의 유래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여러 공처가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마누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가 화장실 다녀오면서 농담으로 "큰일 났어! 우리가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누라들이 알고 이곳으로 쳐들어 오고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자 우지끈 뚝딱! 모두 다 창문을 부수고, 어떤 심한 사람은 벽을 그대로 뚫고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의연하게 벽에 기대어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사이에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었던가?"하고 가까이 가 보니, 그 남자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나는 남자다' , '너는 여자다' 하면서 이리 차별, 저리 구별하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누에가 제 입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듯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온갖 것을 그 속에 끌어 넣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세상, 자기와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 속으로 억지로 끌어넣으려 온갖 짓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리 원숭이 왕이 본 인간 세상의 모습도 역시 그랬습니다. 원숭이 왕이 막 남섬부주에 도착해서 인간 사회를 익혀갈 무렵 매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하더군요.

'싸담 후시엔' 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폭력배가 온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설치는 것을 보던 '조져 부셔' 라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조폭 두목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를 제거하고 그 마을까지 자신의 조직망에 흡수하는 일이 마침 그 때 벌어졌다는 가요?

'폭력 제거를 위한 특별 폭력주간' 이라는 플랜 카드까지 걸고 거창하게 일을 벌렸다는데, 그 동안은 거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애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때렸답니다. 우리 원숭이 왕, 웃지못할 피가 튀는 싸움을 목격하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읊조렸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통해 폭력을 해결한다 하는구나! 한 생명이라도 죄 없이 죽는 모습을 차마 못 보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할 텐데, 생명을 가차 없이 여기는 풍조만이 세상을 휩쓸겠구나. 조그만 것 훔친 이는 도둑으로 몰려 죄를 받고, 무수한 생명을 죽인 자는 영웅으로 세상에 군림하네.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가리리요. 아아! 끝없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의 세계여! 차라리 우리 원숭이 세상이 이보단 낫구나"

이런 남섬부주 세상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원숭이 왕은 "이런 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도(道)가 있을 리 없다!"고 결론을 내리곤 또 다시 다른 땅을 찾아 배를 띄웁니다. 최상의 것을 구하는 이의 구도심은 끝이 없어라! 또 다시 큰 바다를 건너는 원숭이 왕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죠? 여기서 고상한 말씀 한 마디로 초를 치지 않을 수 없군요.

남섬부주 도착, 체험나선 손오공
무자비한 세상 풍토에 큰 실망
"이곳엔 道가 없다"며 다시 떠나

다시 헤메다 이른 곳이 서우하주
나무꾼의 노랫소리 仙氣가 넘쳐
엎드려 제자가 될 것을 청하니
진짜 도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라

아아! 어찌 한 번의 떠남으로
원하는 땅에 이를 수 있으리.
이곳이구나 하는 순간 이곳이 아닐세.
떠나고 또 떠나고
마침내 떠남조차도 떠나는 그 곳.
송곳 세울 땅도 없는 그곳에
머뭄 없이 머무는 그 날은 또 언제일까?
그곳을 찾아, 그날을 향해
오늘도 떠나고 또 떠나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암튼 헤매이는 것은 여기서 중지하고, 원숭이 왕은 계속 갑니다.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다시 도착한 곳, 그곳은 서우하주였다네요. 이곳은 우리들 세계 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땅이었나 봅니다. 며칠 헤맨 끝에 정말 산천경개 좋아 선기(仙氣)가 넘치는 산을 발견하네요. 오랜 만에 맑은 기분으로 산세를 살피는 원숭이 왕의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둑 구경에 도끼 자루 썩었구나
오늘은 다시 쾅쾅 나무를 찍는데
구름은 골짜기 어귀에서 천천히 흘러가네.
나무 팔아 산 술 한 되에
거리낌 없는 웃음으로 마음을 기른다네.
풀 우거진 길 위로 가을 하늘 높아
달을 벗삼아 솔 뿌리 베고 누었는데
깨어나니 어느새 새벽 하늘이 밝아 오누나.
〈중략〉

교묘한 잔재주도 없고 셈에도 어두우며
영예도 욕됨도 뛰어넘어
욕심없는 맑은 마음으로 삶을 이어간다.
어느 곳에서나 선인의 세계와 도의 경지를 마주하며
고요히 앉아 황정경(黃庭經: 도교의 경전)을 읽는다.

오랜 만에 이렇게 속기를 벗어난 노래를 들은 원숭이 왕.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 달려 가서 노래의 근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리 봐도 나무꾼, 저리 봐도 나무꾼. 그러나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겉모습에 매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아니 도를 구하는 사람 아니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은 하면 그 말의 좋은 점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들어도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이력 등에 얽매어 배우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말로도 논리에서 밀리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등을 구실로 입을 막아 버리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나이 어린 사람과의 대화에서 논리에서 밀리면 "이런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라든가 "호적 등본에 잉크도 안 마른 것이!"라면서 반쯤 욕설로 몰아치는 고명한 수법을 쓰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어떻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논법을 '사람에의 추리' 라고 합니다. '우물에 독 타기' 식의 논법이라고도 합니다. 근원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어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큰 선거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물에 독 타기' 식의 논법이 얼마나 애용되는지. 그 사람 전력이 어떻다, 장인이 부역을 했다더라,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더라,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더라, 소위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논법이 오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의 보조 자료로 조심스럽게 사용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정견이나 공약 등을 비판하는 주된 근거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어떤 사람을 매도하고 공격하려는 비열한 수법에 속아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쉽게 그러한 비열한 수단에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각설하고 일반 사람도 그런데 도를 구한다는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불치하문(不恥下問) 정도가 아니죠. 문둥이, 거지에게도 절하고 듣는 겸손은 구도자의 근본자세 아닐까요? 우리 원숭이 왕은 몇 개의 바다를 건널 정도로 구도심에 불타는 원숭이인데 말할 필요가 없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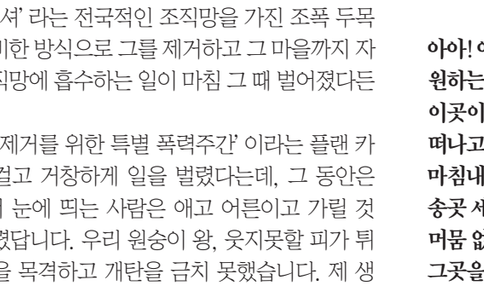
"노 신선님! 제자 인사 드립니다"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 경과는 전 회에서 이야기했고 , 그 겸손한 구도심의 결과로 원숭이 왕은 나무꾼에게 선기 넘치는 노래를 가르쳐 준 진짜 신선이 계신 곳을 듣게 됩니다. 이름도 요상한 동네입니다.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 산(靈臺方寸山)' 속에 있는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斜月三星洞)'

이 동네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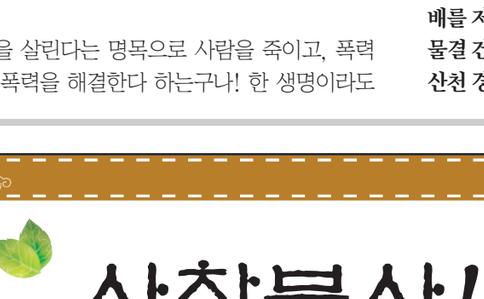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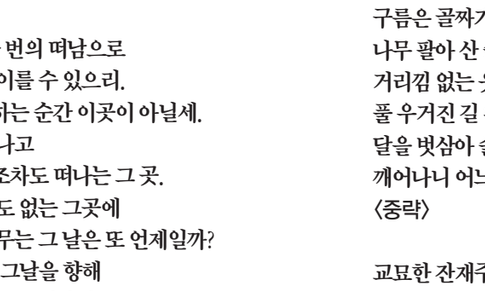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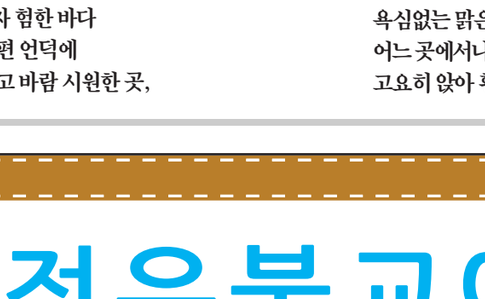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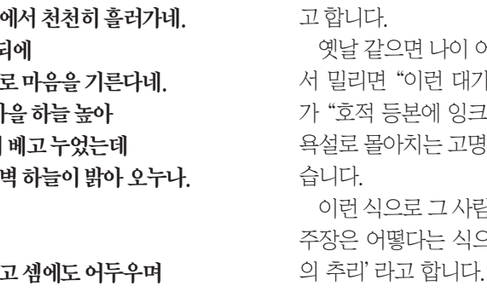


장흥 보림사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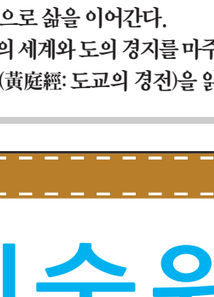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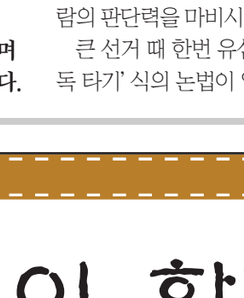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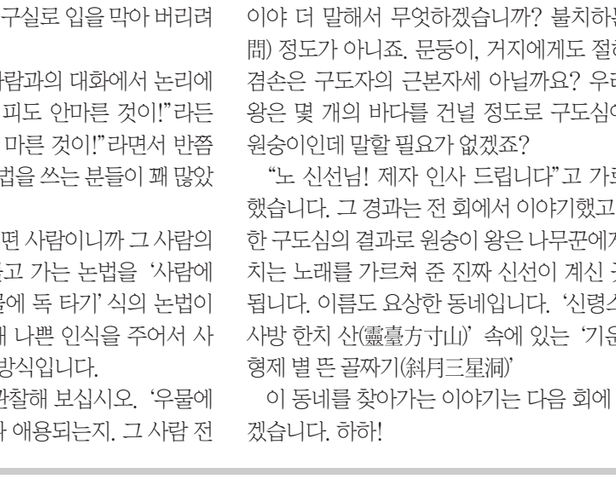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不動의 설법이 말하고자 한 뜻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9. 근본불교의 기본적 성격 ㊤



국보 제297호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安心寺靈山會掛佛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을 그린 괘불이다. 45년간 이어진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다. 확고부동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이다.

45년간의 설법(說法)

붓다는 성도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5년의 세월을 설법에 매진했다. 거의 반 세기에 이르는 그 긴 세월을 이 스승은 쉬지 않고 광막한 인도의 곳곳을 누비면서 설법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희귀(稀貴)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긴 세월에 이르는 설법은 시종부동(始終不動)의 원리에 의해서 일관되었으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성도(成道)에서 최초의 설법에 이르는 동안에 닦은 기저(基底)는 그 이후 변하며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지혜와 실천의 길을 가는 교조(敎祖)로서는 매우 지당하며 어울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설법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 비극적인 최후에 이르는 동안은 1년 혹은 길어도 3년을 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는 돌연히 나타나서 홀연히 떠나간 것이다. 그 설법의 기간은 붓다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짧다. 더욱이 그 짧은 기간의 설법은 그 전반과 후반에 있어서 눈에 뜨이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태도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혼동(混同)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差異)가 있다.

그런데 여기 붓다의 설법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긴 동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거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 점이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스승은 때에 따라서 그곳에 적합하도록 또 사람의 근기(根機)에 상응(相應)해서 여러 가지로 그 법을 전개하였다. 소위 '대기설법(對機說法)' 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설법은 아무리 가지각색이라 하여도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언제나 정연하였으며 혼란스럽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떠한 경전을 듣고서 그것은 언제쯤 설교된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전에서는 아직도 젊은 이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미 늙어서 쇠약한 스승의 애처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샤알리푸트라(사리불)가 아직도 건재(健在)하며 별로 만년(晩年)의 것은 아니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스승의 설법에는 그 사상의 변화나 혹은 태도의 뉘앙스에 따라서 대략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이 분의 사상은 처음에서 끝까지 부동(不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태도는 언제나 침착하였으며 그리고 간곡한 것이었다.

설법의 길을 담은 경전

그러나 아무런 변화 없는 것 속에서 우리들은 이 스승의 만년(晩年)의 설법에 관해서 좀 주의해야 할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수개월에 있었던 유행(遊行)과 그 죽음을 기록한 〈유행경(遊行經)〉에 있어서의 이 스승의 설법에는, 역시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 듯 하다.

물론 붓다 설법의 부동(不動)의 바탕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뜻에서는 역시 새로운 변화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이제 이 스승은 이 지상(地上)에서의 삶을 끝내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히 작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예상되었을 때 당연히 이 스승의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멸후(滅後)의 교단(敎團)의 실태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시야(視野)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스승의 설법에는 역시 다른 경전에서는 보기 어려운 긴장과 빛이 있었다.

많은 대기설법(對機說法)에 있어서는, 이 스승은 분명히 그 근기(根機)에 알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양보적(讓步的)으로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은 후의 생천(生天)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소원을 그대로 두며, 그에게 적합하게 설교하며 지도하였다. 또 예를 들면 육방(六方)을 예배(禮拜)하는 것을 그 습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습관을 그대로 지키게 하면서 그들을 교도하였다. 그 정연하며 움직이지 않는 바탕에는, 그러한 양보(讓步)를 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정은 이제 좀 변하여졌다. 내가 죽은 후의 이 길의 실태, 이런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될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길의 기본적인 모습을 후대(後代)의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유행경(遊行經)〉에 있어서의 모든 설법의 첫 번째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승의 최후의 여행은 라쟈그리하(왕사성)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향하여 (밧다리촌)지금의 파트나)에서 강가—(간지스강)를 북쪽에서 건너며 벳살리(비사리)를 지나서 쿠쉬나가라의 맛라(말나) 족(族)의 소속 영토인 사라(紗羅)의 숲에 다다랐으며 거기에서 큰 임종(臨終)을 맞이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그 도중에 벳살리에 이르렀을 때 우기(雨期)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무서운 습도와 숨 막히는 고온(高溫)의 기간이다. 일행은 정한대로 우안거에 들어갔지만 늙고 쇠약한 붓다는 그때 무서운 병에 걸렸다. 격통(激痛)에 몹시 시달린 늙은 몸은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다. 그러나 붓다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병을 참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였다. 그때 붓다는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염원하였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다.

"지금 내가 제자들에게 고(告)하지도 않으며 최후의 교계(敎誡)를 남기지도 않으며 사라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 상응(相應)한 일은 아니리라. 나는 지금 노력하여 이 병을 참으며 수명(壽命)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붓다는 이러한 때를 당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그 길을 가려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며 그 구극(究極)의 의지처(依支處)에 관한 것이며 또 그 교단(敎團)의 존재 형태에 관한 타협 없는 발언(發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경전에서 이 길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을 의심할 바 없는 명확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가 갈 길은 '부처님 中心' 으로 회귀
섭수와 절복의 자비가 '생활 지혜' 돼야

의식에서 설법중심으로

형이하학(形而下學)과 형이상학(形而上學)이 있다. 형이하학은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땀 냄새와 눈물과 웃음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형이하학을 살리는 근본 바탕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비해 형이상학은 정신적 작용과 상상의 세계로 줄달음치고 있다.

마음이니, 영혼이니, 사후세계니 하며 하느님도 만들고 극락세계와 지옥과 연옥도 천사도 악마도 만들어낸다.

대개의 종교가 하학(下學)쪽보다는 상학(上學)쪽으로 기울고 있다. 쥐어주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일수록 신비스럽고, 베일에 가려진 것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꿈은 증거와 물증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섭리와 사후 세계도 영원한 물음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다르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학(上學)보다는 하학(下學)쪽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불교는 지나간 어제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오늘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에 머물지 않는다. 이원론과 양변을 뛰어넘어 어떤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메시아(Messish)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부처는 신(神)이 아닌 사람인 것이다. 부처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이 대개는 형이상학 쪽으로 흐르고 있다. 죽은 후 7일마다 치르는 49재가 그러하고, 삼재풀이와 액난소멸기도 등이 그러하다.

49재 보험이 인기 있는 상품이 되어 팔리고 있고, 천불전(千佛殿)이 이제는 만불전(萬佛殿)으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바위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사람 꼴이면 누워계신 부처(臥佛)라며 호들갑이다.

사찰을 알리는 광고 또한 재태크의 속셈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앞서 간다. 한국불교가 사는 길은, 그리고 밝은 미래는 부처님 가르침 중심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 중심(儀式中心)에서 설법 중심(說法中心)으로, 그 중심(中心)이 바뀌어 가야 한다.

받아들이는 자비, 때리는 자비

〈열반경〉에 보면 받아들이는 자비(攝受)와 때리는 자비(折伏)가 등장한다.

섭수자비(攝受慈悲)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마음으로 일체를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절복자비(折伏慈悲)는 엄격한 아버지가 자식의 바른 성장을 위해 호되게 꾸짖고, 나쁜 버릇을 고쳐가며 상(賞)과 벌(罰)을 분명히 가르는 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야기의 전개를 현실 쪽으로 끌어와 설명을 조금 이어가겠다.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걸음걸이가 불편한 아이가 있다고 하자. 바른 걸음마를 시키며 힘겨워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엄마는 몇 번이고 아이를 품안으로 싸안으며 아이가 애처로워 속울음을 참아낸다. 아빠는 괴로워하고 힘겨워 하는 아이의 손을 이끌며 야단도 치고 몸의 균형도 잡아주며 고된 훈련을 거듭시킨다. 속울음을 참으며 아이를 감싸는 엄마도 사랑이요, 야단을 치며 고된 훈련을 거듭시키는 아빠의 행위도 사랑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자비는 가정에서 뿐이 아니라, 사회 생활과 나라의 경영에도 기본 틀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친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자매와 이웃 사이에도 섭수와 절복은 필요한 처세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수행(修行)에는 열고(開) 닫음(遮)의 절차를 중요시한다. 풀고 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 또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개(開)와 차(遮)의 높낮이를 조절했으며 선어록(禪語錄)에서 만나는 선문답(禪門答) 또한 개(開)와 차(遮)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는 섭수와 절복의 자비에서 개(開)와 차(遮)의 생활 습관에서 사랑도 행복도 가꾸어 가길 바랄 뿐이다. 결국 둘은 둘이 아닌 하나이지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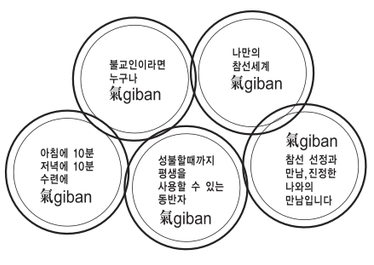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美 기업들, 명상·웰빙 프로그램 도입 '인기'

미국의 광고 · 미디어 ·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사내에 명상 · 웰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ADWEEK' 지는 6월 21일 "기업들이 이제는 수익 증대에 앞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이 명상 · 웰빙 문화를 선도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태도는 AMC의 인기드라마 '매드 맨(Mad Man)'에서도 그대로 찾아 볼 수 있다.

'ADWEEK' 지는 "드라마 비평가들이 '사회의 단상을 잘 옮겨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매드 맨'에서 광고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주인공 '돈 드레이퍼(Don Draper)'는 극중에서 자주 '옴'을 길게 통성하며 명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며 "이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기업 내에서 명상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목한 'ADWEEK' 지는 "실제로 사내 프로그램으로 명상 · 웰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휴가를 신청하고 특정한 명상 캠프를 찾지 않아도, 사내에서 명상 · 웰빙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상 · 웰빙 전문 사이트의 '휠닷컴'의 조 버튼(Joe Burton) 대표는 "미국 내 기업에서 명상 · 웰빙 관련 프로그램은 이제 표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실리콘 벨리의 신생 기업은 우수한 인재 영입의 방편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광고 · 미디어 ·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사내에 명상 · 웰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광고 · 미디어 관련 기업서 관심
"사내 프로그램 표준화 단계"

이에 대해 'ADWEEK' 지는 "비단 실리콘 벨리뿐만 아니다. 명상 · 웰빙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보험회사 에트나(Aetna)에서부터 엠지엠 그랜드(MGM Grand)까지 미국 기업 사이에 폭넓게 퍼져있다"고 주목했다.

'ADWEEK' 지에 따르면 광고계 선두주자인 트렌데라(Trendera)사 역시 사내 명상 · 웰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제인 버킹엄(Jane Buckingham) CEO은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수익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며 "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낳는 가장 긍정적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상 · 웰빙은 '사내 예방 의학'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전제한 버킹엄 CEO는 "폐쇄된 공간에서 촌분을 다투어 진행해야 하는 광고업의 특성상 관련 종사자들의 피로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함께 상생하자는 새로운 기업 문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ADWEEK' 지에 따르면 트렌데라 사는 알렉스 보거스키(Alex Bogusky) 스님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트렌데라사 외에도 6개 광고 · 미디어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보거스키 스님은 "미국의 CEO들이 직원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긍정적인 사내 풍토를 만들길 희망하는 듯하다"고 주목하고, "기업에는 소외되고 갈등하는 직원들이 있기 마련인데 CEO들의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통의 장소로 안내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내 프로그램이 전제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호라이즌 미디어(Horizon Media)와 존 맥닐 스튜디오(John McNeil Studio) 역시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관심이 많다. 명상 · 웰빙 프로그램 개발자 조 버튼(Joe Burton)의 휠닷컴 사와 제휴해 사내 명상 ·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직장을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다"는 호라이즌 미디어 리치 어벤드(Rich Abend) 상무는 "기업은 이제 '명상 · 웰빙 문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명상 · 웰빙 문화를 다지는 데 뒤늦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마음 챙김, 수면 치료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고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ADWEEK' 지에 따르면 휠닷컴은 명상 · 웰빙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음 챙김, 요가, 건강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현재 호라이즌 미디어, 존 맥닐 스튜디오 등 50여개 기업이 상용하고 있다.

조 버튼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이제는 모든 기업의 모토가 되고 있다"며 "현재 기업이 주요 소비자이지만 공립학교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우 교육계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DWEEK' 지는 "기업 나아가 사회는 구성원이 은둔자로서 명상 캠프를 찾는 게 아닌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학내 여학생 히잡·차도르 착용 금지하라

버마 급진주의 불교그룹 6월 21일, 버마 정부에 요청

버마 북부 카친 주의 한 불교그룹이 무슬림 여학생들이 히잡 차도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해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디언' 지는 인종 · 종교 보존기구(Organisation for the Protection of Race and Religion)을 인용, "버마 카친 주의 마바타(Ma Ba Tha) 불교그룹이 최근 열린 불교회의에서 히잡이나 차도르를 착용한 무슬림 여학생의 등교를 막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버마 각 지역의 1,300여 명의 스님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1일 열린 불교회의는 대선을 앞둔 버마 정부가 보다 강력한 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바타 불교그룹은 불교회의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은 무슬림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우선 학교 내에서 여학생의 히잡이나 차도르 착용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테인 세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고 있지만 버마에서는 민주화와 함께 민족 · 종교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목한 '가디언' 지는 "기독교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무슬림 마을에 불교의 파고다(탑)를 지으며 '버마화'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 결과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집권하더라도 버마족 정권의 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일거에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버마 카친주의 마바타(Ma Ba Tha) 불교그룹은 6월 21일 열린 불교회의에서 히잡이나 차도르를 착용한 무슬림 여학생의 등교를 막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서 살인미수로 스님 체포돼

흉기로 수차례 공격… 혐의 인정 후 구속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위치한 도시 오클랜드서 스님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언론 'KRON4'는 6월 24일 "펜 속파나(Phen Sokphanna, 30) 스님이 살인 미수 혐의로 카스트로밸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3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펜 속파나 스님은 오클랜드 사원서 동료 승려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수사 중이다.

펜 속파나 스님은 칼 2자루를 소지한 채 마하모니라쓰 핀(Mahamonirath Pinn, 66) 스님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마하모니라쓰 핀 스님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현재 회복 중이다.

'KRON4'는 "경찰이 사건 발생 후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펜 속파나 스님은 도주한 상태였으며, 마하모니라쓰 핀 스님은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현지 경찰은 "더글라스 애비뉴에 위치한 크메르불교승려국제커뮤니티 센터(the Branch of International Community of Khmer Buddhist Monks Center)서 한 남자가 지난 주 펜 속파나 스님과 마하모니라쓰 핀 스님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목격자 증언에 따라 펜 속파나 스님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의식을 회복한 마하모니라쓰 핀 스님 역시 펜 속파나 스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위치한 오클랜드 사원〈사진〉서 한 스님이 동료 스님을 살인 미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출처=KRON4

경찰에 의해 체포된 펜 속파나 스님은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중처벌로 산타리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아베 정부 신보안법 반대"

日 불교계 '반전과 평화' 상징 세토우치 스님
휠체어 앉아 '신보안법' 반대 시위 독려

아베 정부의 새로운 안보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시위까지 참여했던 93세의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아사히신문은 "소설가로도 잘 알려진 카쿠쵸 세토우치(Jakucho Setouchi) 스님이 휠체어를 탄 채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정부의 안보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된 5분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헌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세토우치 스님은 "일본이 군국주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광대한 일본인이 기만당했고 최후에는 전쟁의 희생자, 피해자가 됐다. 우리는 국가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평화헌법을 수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1922년에 태어난 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이 세상에는 결코 좋은 전쟁, 옳은 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신념"이라며 "연민과 자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를 운영하는 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세토우치 스님의 말이 시위대의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켄 카미(Kan Kamei · 32) 씨의 말을 인용, "전쟁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전쟁 경험과 자비와 연민에 대한 가르침은 호소력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카쿠쵸 세토우치(Jakucho Setouchi) 스님은 휠체어를 탄 채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정부의 안보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이끌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걸프전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해 세간의 이목을 잡았던 세토우치 스님은 '반전 평화'를 상징하는 비구니 스님으로 일본 내에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지난해 9월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담낭암이 발견되어 최근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이번 시위에서 '휠체어 투혼'을 발휘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 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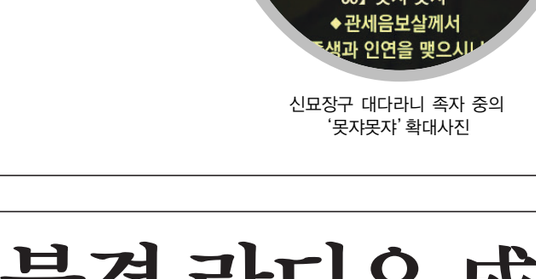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비움의 강박 버리고 예술로 자유 모색

시각소통작가 손노리 씨 첫 개인전
7월 1일~5일 대구 봉산문화회관서



시각소통작가 손노리 씨의 개인전 포스터

"마음공부를 접하면서 불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자기 성찰도 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 항상 놓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을 안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웠죠. 그런데 어느날 이 모두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바꾸자고 생각하니 나를 있는 그대로 증명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반드시 놓아야 한다는 그 마음마저 버리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각소통작가 손노리 씨는 자신이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불자인 손노리 작가가 7월 1일~5일 대구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노리를 우짤꼬' 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버려진 것이나 그 기능을 다한 물건들을 분해한 부품, 조각 등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물건들을 조합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시각소통작가라고 말하는 그는 다양한 방식의 결합물들의 형상을 재현해낸다.

이런 작가가 불혹의 나이를 넘기며 작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나다움을 발견하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그 나름의 규칙이 있지만 '아름다움' 에는 규칙도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만 저마다의 관점이 있을 뿐이죠. 아름다움을 찾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동시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작업이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가는 버려진 부품들은 재사용해 생명을 불어 넣은 설치, 평면 페인팅, 오브제를 활용한 입체, 반입체 작품 등 40여 점을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특히, 가구를 활용해 완성한 '두낫노크' 는 안쪽으로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을 배치해 세상을 표현한다. "문이라는 것은 환경과 인간을 분리하는 존재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문 때문에 안과 밖이 생기기 때문에 순수 그 자체를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문 안쪽은 오목거울과 볼록 거울을 붙여 대상과 자신을 보기 힘든 현실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색채심리치료사, 특수 미술치료교육 등을 지도해온 작가는 자신의 안과 밖을 관찰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053)661-3500

정혜숙 기자

사찰음식 면역력 UP… '메르스' 이겨요

사찰음식 전문가 3인이 권하는 여름 보양식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세상을 휩쓸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통해 면역력도 기르고 여름철 더위를 길러 보는 건 어떨까.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사찰음식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여름철 건강도 챙겨보자.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은 방아잎 마지짐과 도토리 수삼 냉국을 권한다.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한 방아는 예로부터, 절간이나 마을 빈터 곳곳에서 잘 자라는 자생력이 매우강한 식물이다. 스님들은 장독대 된장, 고추장 항아리에서 장을 퍼와 밀가루 반죽에 풀어 넣고 애호박, 표고버섯 송송 썰어 넣고 방아장떡을 즐겨 부쳐 먹었다.

스님은 "식용유가 아닌 들기름으로 반드시 부치기에 온 절간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더위 속에서 하안거 용맹전진을 하느라 기력이 떨어진 스님들에게 여름철 입맛을 다시는 여름철 건강보양식" 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방아는 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환자들에게도 매우 좋으며 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여름철에 안성마춤인 식재료이다.

도토리 수삼 냉국은 도토리묵과 함께 자양강장 식품인 수삼을 갈아 넣어 만든 음식으로 소화흡수를 높인다는 점에서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충분하다.

적문 스님은 "요즘처럼 질병이 도는 시기에는 면역력 강화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도토리 역시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로써의 효능이 뛰어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칼로리는 낮은 반면 포만감은 크기 때문에 비만방지에 도움이 된다. 수삼의 다양한 효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수삼은 기를 보해주는 대표적인 식품" 이라고 강조한다.


쓈바귀 김치. 쓈바귀는 폐의 열을 내려준다.


방아잎 마지짐은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보양식이다.


감자상추불뚝전. 상추는 열을 식히고 면역력을 길러준다.

적문 스님-방아잎, 기력 보강에 도움

계호 스님-쓈바귀, 폐의 해열 작용

선재 스님-상추밑둥, 인체저항력 높여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쓈바귀 김치와 오이소박이 물김치를 추천한다. 특히, 섬유소가 풍부한 쓈바귀는 해열과 체내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계호 스님은 "메르스의 경우 일반 독감에 비해 폐렴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른데 쓈바귀는 폐의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폐렴치료에도 많이 쓰인다. 또 쓈바귀 특유의 씁쓸한 맛은 여름철에 잃어버린 식욕을 되살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담백하고 시원한 향을 지닌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 탈수를 막아주고 체온을 내려주는 여름철 필수 식재료다.

계호 스님은 "오이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가시킨다해서 근래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메르스는 건조하고 더운 중동지방에서 발생한 질병이기에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비타민C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오이소박이 물김치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고 설명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상추의 밑둥을 그대로 요리한 감자상추불뚝전과 보리감자죽으로 버무린 가지열무김치를 권한다. 특히, 감자상추불뚝전은 상추대궁을 손질해 감자를 갈아 메밀가루에 반죽해 구워낸 여름 별식이다.

선재 스님은 "메르스는 열로 인해 발병하는데 여기에는 상추 음식이 제격이다. 상추 불뚝전은 이름 그대로 상추를 먹으면 힘이 불뚝 솟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추의 넓은 잎은 열을 식혀주고 밑둥의 미끈하고 하얀 진액은 면역력을 높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여름에는 미끈미끈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셨다. 그러니 여름철에는 오이, 가지, 보리, 근대 등 미끈미끈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여름철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사찰음식 전문가 3인이 추천하는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보자. 또한 장기적으로 메르스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지혜도 발휘해보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꽃들 만나 형상 이루면 인연이

이수예 작가 일본서 개인전…7월 1일~12일까지 에히메현 미술관서

'인연과의 원리' 꽃으로 표현
연화장세계 등 10개 파트… 730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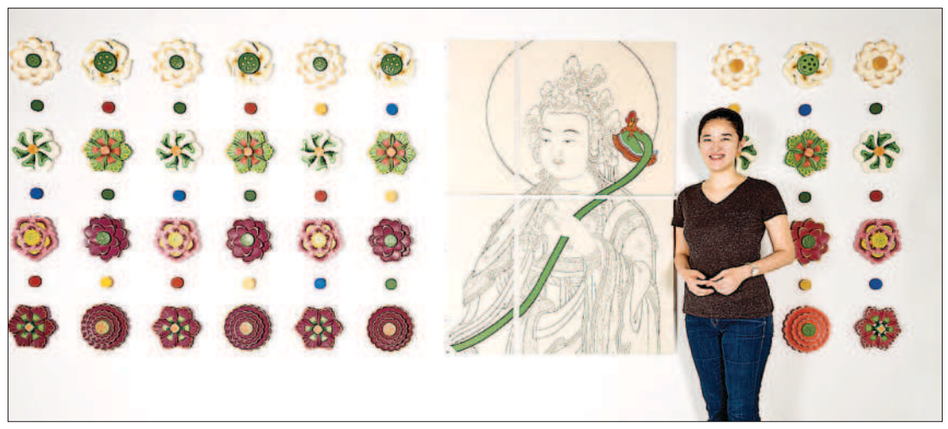
불화작가 이수예 씨가 일본에서 첫 해외전시를 갖는다. '인연' 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7월 1일~12일 일본 에히메현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한국전통 단청문양과 연꽃, 보상화문양 등을 모티브로, 연화장세계를 10개의 파트로 나누어 표현한 7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은 낱낱의 개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형상을 통해 인연을 표현하고자 했다. 사용된 꽃조각과 문양이 그려진 둥글거나 네모진 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상징하며 이것들이 한데 모여 이루고 있는 다양한 형상들은 수없이 많은 인연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냈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이 세상의 모든 개체와 현상들은 제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因)으로서, 때로는 연(緣)으로서, 때로는 과(果)로서 서로 얽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연에 의해 잠시 만들어진 모습으로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죠. 고정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영원한 것도 없죠. 다만 인연에 의해 그렇게 보일뿐이며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꽃(因)들이 만나(緣) 만들어 내는 큰 형상(果)은 모두 인연의 모습이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에서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108번뇌, 무정(無情), 자비의 마음, 삼라만상과 일체제법 등을 파트별로 나뉘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꽃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가 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꽃이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체 모든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부처일 수 있기에 이번 작품에서는 꽃으로 표현했다" 고 전했다.


불화작가 이수예 씨가 일본에서 첫 해외전시를 갖는다. 작가는 한국전통 단청문양과 연꽃, 보상화문양 등을 모티브로, 부처님이 상주하는 연화장세계를 10개의 파트로 나누어 표현했다.

한편, 이수예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곱 번의 개인전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대중성을 동시에 겸비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제32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02)462-9994

정혜숙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BTN 드라마 '붓다' 〈1〉 1화~4화 줄거리

"왕이시여,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드라마로 다시 본다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BTN 불교TV가 지난 5월 25일부터 방영한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영상과 함께 부처님의 삶을 이야기 한다. 이에 본지는 격주로 드라마 붓다의 주요 영상과 함께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드라마 붓다'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는 여행을 떠나보자.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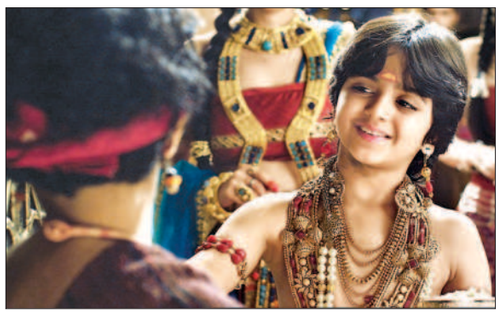
어느날 아시타 성인이 숫도다나 왕 앞에 나타나 "아기는 성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왕은 이 예언을 부정하고 아들 싯다르타를 전사로 키울 것을 다짐한다.



마야 왕비는 아들을 출산한다. 그 이름은 싯다르타.



왕은 왕자의 교육을 위해 빈민들을 격리시킨다.



왕자 싯다르타는 연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마하바라타 전투가 끝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대전투로 인해 인도 땅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2500년이 지났을 무렵 북인도 지방에는 카필라바스투 왕국이 존재했다. 인근에는 마가다 왕국과 바이샬리 왕국이 있었다. 카필라바스투는 태양 왕조인 샤카족의 후예인 왕, 위대하고도 용감한 숫도다나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드라마 붓다의 이야기는 숫다도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시점에서 시작을 한다. 승리한 왕을 환영하기 위해 왕궁은 온통 들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속에도 근심을 드리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기를 갖지 못한 왕비 마하마야다. 동서인 망갈라의 아들 데바닷다를 돌보며 위로를 삼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친동생이자 왕의 둘째 부인인 파자파티한테 왕을 모시라고 권한다. 형님은 뭐할 거냐는 질문에 파자파티는 이렇게 답한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하고는 행복을 나누지 않는 법이란다. 폐하께서 나를 보는 순간 아들이 없는 슬픔이 되살아나실 거야. 폐하께 그런 비탄을 안겨드릴 수야 없지."

하지만 파자파티는 왕과 언니인 마하마야를 같이 잠자리에 들게 한다. 그리고 그날밤 마야는 왕자를 잉태하게 된다.

한편 호시탐탐 아들 데바닷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기회를 노리던 망갈라는 분노한다. 그리고 망갈라의 남편이자 숫도다나왕의 동생인 드로나단은 마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내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되자 망갈라는 마야에게 왕궁에서 아이를 낳으면 왕이 위험하다고 궁궐 밖으로 출산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마야가 친정인 데바다하로 갈 것을 알고 그곳으로 자객을 보낸다. 하지만 마야는 길을 떠나는 중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 왕자의 이름은 싯다르타. 나라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에 젖지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마야는 출산중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끊임없이 왕자리를 탐내는 드로나단 부부
싯다르타 왕자의 탄생…마야 왕비의 죽음
아시타 성인 출연 붓다 탄생을 예언해
왕은 아들을 전사로 키우기 위해 최선
신도시 조성해 빈민 격리시키는 모험도

그리고 어느날 왕 앞에 아시타 성인이 나타난다. "아기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마음의 전투입니다. 아기는 온 우주를 지배할 것이고 그 우주는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났지만 아기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위대한 영혼에게만 있는 32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연꽃이 있고, 손가락에는 바퀴가 있으며 이마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이보시오. 성인! 무슨 표식이 있든 상관없어요. 아이는 전사가 될 겁니다. 그 손에는 검을 잡을 겁니다."

"검으로는 단지 왕국을 얻지만 아드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전투는 국경과 국토를 늘리지만 아드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타 성인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는 군중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모든 사람의 역사를 쓰게 될 사람의 미래를 바꾸려 하다니…"

아시타 성인의 말은 계속해서 왕의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왕자 싯다르타를 완벽한 전륜성왕으로 키우고자 하는 왕은 사제를 동원, 강력한 교육에 들어간다. 그리고 왕자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신도시를 설립해 빈민층들을 격리시킨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계속〉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싯다르타의 일생이 다가오다

그랬다. 철마다 정성스레 가꾼 보리며, 쌀을 머리에 이고 재 너머 부처님 집에 다녀오신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의 소재는 부처님의 생애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내용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띄엄띄엄 스토리였다. 그런데, 어쩌다 절에 다녀오신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책에는 그림도 있고 시인지, 노래인지, 이야기인지 모르는 굵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읽어주는 그 책에는 부처님이 살아있었다. 전생으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장편 서사시 같은 이야기였다. 이른바 〈팔상록〉이라고, 여덟 가지 특별한 사건에 따라 엮은 부처님의 생애스토리이다. 이교담과 백용성 스님이 쓴 같은 이름의 두 책을 조금 더 늘리고 맛을 가미해 안진호 스님이 펴낸 것이다. 아! 신영균, 박노식, 황정순 씨들이 출연한 영화 '석가모니'도 있었다. 그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통로였다. 사찰에서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해도 부처님의 생애는 맛보기로 조금 들려주는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지 않았고 관심도 적었으므로.

그러다가 초기불교를 전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어자료와 영어자료 그리고 빠알리어를 중심으로 한 자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이도 일본자료와 빠알리어 자료를 중심으로 연대기별로 구성한 부처님의 생애를 십년 째 가르치고 있지만 부족한 느낌이다. 근래에는 영국 BBC방송의 다큐멘터리 '붓다'가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불교텔레비전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TV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는 소식이었다. 인도 드라마라고 했다.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무려 55부작 드라마라고 했다.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 우리나라 인기드라마도 55부작을 하려면 큰 모험이 필요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기로 했다. 초파일 행사를 마친 피곤한 눈을 비비며 본 2559년 부처님오신날 저녁에 티비를 통해 흘러나오는 드라마는 그야말로 감동의 드라마였다.

화려한 영상 감동의 물결
불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한꺼번에 두 편의 드라마를 방영하고 원찰에서 진행하는 연등축제에 참여하느라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재방송까지 방영해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톺아보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저녁을 먹고 등불을 밝히고 나서 사찰에서 보거나 집에서 본 불자들의 반응은 환호성 그 자체였다. 입이 떡 벌어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싯다르타 태자와 석가모니부처님 한 분 또는 부인이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등 실로 단순한 등장인물만 기억하다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등장하자 복잡해하면서 이렇게 묻는 이도 있었다. "헷갈려요, 스님! 부처님 주변 인물들이 저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렇게도 치밀한 준비를 해서 부처님을 힘들게 한 것이어요?"

그렇다. 단선적인 너무나 단순한 스토리만을 학습해온 한국시청자들에게 불교텔레비전이 선사한 드라마 붓다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시작했다. B.K.Modhi가 제작하고 우리말 번역은 진우기가 한 55부작 드라마 붓다가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 왜냐면 그 부처님 붓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일생이 다가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제대로 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부처님처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이다. 이 충격과 신선함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살펴볼 작정이다. 현대불교 애독자와 불교텔레비전 시청자와 함께.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화엄수행자 진귀(眞歸)와
차 한잔의 친견만 해도
말기암의 암성통증과 빙의 등등
일체고통 들이,...
어떤이는 줄어들고
어떤이는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불신(不信)의 마음벽에 갇힌 말법시대에
과연 이런일들을 믿을수 있는지?
백천만겁난조우의 진귀한 인연이로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강좌및법회를 개설할 전국의 불교대학및 사찰은 전화 접수 하세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주 1회 강좌 / 법회는 월 1회)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대구) 1899-9532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8~6/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지안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눈부신오늘	법상스님	마음의숲
2	영원한자유의길(재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7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8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꿈을깨면 내가부처	서암스님	정토	9	좋은사람으로사는법	틱낫한	김영사
5	산사에홀로앉아	일운스님	모과나무	10	심심한생각채우기(엽서컬러링북)	아름다운인연	누똥바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인도불교의 철학정신 필요한 한국불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인식론 연구
도사키 히로마사 지음
박인성 옮김
길 펴냄
4만 5천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의 나라이다. 그러나 이 말이 올바르게 이해되려면 '중국의'이라는 한정어가 붙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중국의 대승불교의 나라이다. 선(禪), 화엄(華嚴), 천태(天台) 등 중국불교의 나라이다. 중국인들이 〈반야경〉(般若經),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등 인도의 대승경전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새롭게 창안한 불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불교가 비록 대승불교이기는 하지만 인도불교사에 등장하는 대승불교와 문제의식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인도불교사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이전에 있었던 아비달마불교(阿毗達磨佛敎) 여러 학파들 사이의 논쟁과 대승불교 여러 학파들 사이의 논쟁 등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7세기에 인명(因明)불교의 다르마끼르띠가 등장하고 이를 잇는 흐름이 12세기까지 계속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불교는 인도불교의 논쟁에 보이는 철학정신이 인도불교만큼 치열하거나 세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불교는 애초부터 철학적 사유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철학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중국불교가 태어나는 데 그 소의경전(所依經典)이 되었던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금강반야경〉 등 대승불교의 경전이 우리의 경전이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경전들에 등장하는 붓다는 역사상 실존했던 붓다가 아니다. 붓다의 권위를 빌기 위해 이 경전들 속에 붓다가 나오고 있을 뿐이다.

역사상 실존했던 붓다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니까야'가 완역되어 우리의 경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오늘날, 우리 불교도 이제 이에 걸맞게 인도불교의 철학정신에 입각해서 사유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인명불교의 논서들은 불교를 불교답게 철학하기 가장 좋은 텍스트이다.

도사키 히로마사의 〈불교인식론 연구〉는 다르마끼르띠(법칭:法稱=600~660년경)의 〈쁘라마나바룻띠까〉 〈현량장〉을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양(量)은 인식의 척도를 의미하는데, 현량(現量)과 비량(比量)으로 나뉜다. 현량은 지각, 비량은 추리 또는 논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다르마끼르띠의 지각이론을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논리학과 불교인식론으로 알려져 있는 인명불교는 선대의 디그나가의 영향

인도불교, 학파 논쟁 통해 성장
인명불교 논서 철학에 좋은 텍스트
유식불교의 '유식무경' 사상 반영

을 받으며 다르마끼르띠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7세기 이후의 인도 철학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다르마끼르띠의 이 논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다르마끼르띠의 이 논서와 이후 12세기까지 다르마끼르띠를 계승하는 불교논사(佛敎論師)들의 논서는 모두 산스끄리뜨본 또는 티베트어본으로 내려온다. 오늘날의 인식론과 논리학에 익숙한 우리들이 접근하기 좋은, 기존의 문헌에 보이는 용어들과 한역어(漢譯語)와는 다른 용어들로 인명의 사상이 전개된다.

인명불교는 유식불교 이후의 유식불교라 할 수 있다. 유식불교의 유식무경(唯識無境) 사상을 인식론과 논리학에 입각해서 자세히 펴고 있는 불교이다.

유식무경은 모든 것은 마음에 나타난 것일 뿐 마음 바깥에 대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구성한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뜻의 말이다.

이러한 유식무경의 사상을 다르마끼르띠는 부파불교(部派佛敎)의 한 학파인 경량부(經量部)를 따라 마음 바깥에 대상이 존재한다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유식논사답게 이 역시 대상이 마음에 나타난 대상이라는 유식학의 사상을 따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다르마끼르띠의 게송을 번역해가며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유식 이후의 유식이라 할 수 있는 다르마끼르띠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르마끼르띠의 논서를 직접 번역하며 해설한 책은 이것이 처음이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느라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히 인명불교 연구의 금자탑을 이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마끼르띠의 〈쁘라마나바룻띠까〉는 위자비량, 양성취, 현량, 위타비량으로 구성됐다. 〈쁘라마나바룻띠까〉에서 다르마끼르띠는 디그나가의 〈쁘라마나사뭇짜야(집량론集量論)〉을 주석하면서 다른 학파와의 대론을 설정하는 등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 가운데 현량장을 데벤드라붓디, 샤끼야마띠, 쁘라즈냐까라굽따, 까르나까고민, 라비굽따, 마노라타난딘 등 모든 〈쁘라마나바룻띠까〉 주석가들의 주석을 검토하고 참조하며 해설한다.

또한 〈쁘라마나바룻띠까〉가 디그나가의 〈쁘라마나사뭇짜야〉를 주석하면서 해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 논제 앞에 이에 해당하는 〈쁘라마나사뭇짜야〉의 글을 끌어들여 번역하고, 이와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런 방식의 설명은 제 2부의 〈쁘라마나바룻띠까 현량장의 번역 연구〉서 볼 수 있는데, 첫째 양(量)의 수에서부터 시작해, 둘째 현량의 정의, 셋째 현량의 명칭, 넷째 아비달마의 학설과 현량의 정의 현량제분별의 회통, 다섯째 현량의 대상, 여섯째 현량의 종류, 일곱째 사현량(似現量), 여덟째 양과(量果)=양(量), 아홉째 양과(量果)=자증(自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견지된다.

저자 **도사키 히로마사**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에서 태어났으며, 규수(九州)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규수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역서로 〈大乘佛典 Ⅰ〉에 실린 〈善勇猛般若經〉이 있고, 논문으로는 〈講座: 大乘思想〉 제2권에 실린 〈後期大乘佛教の認識論〉 등이 있다.

선(禪), 내면 중심 잡는 최고의 공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
크리스 프렌티스 지음
김지영 옮김
판미동 펴냄
1만 2천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다양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면의 중심을 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가 출간됐다. 미국 내에서 평판 높은 약물중독치료센터의 소장이자 역경(易經), 선(禪) 사상 등의 어려운 주제를 일상에 활용하기 쉽게 해석하는 학자 크리스 프렌티스는, 불우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약중독자인 아들을 치유하는 과정서 얻은 깨달음과 행복의 기술을 쉽고 명쾌하게 전한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이다. 그는 이 책에서 특정한 종교나 전통이 아닌,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탐구와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선'을 이해하고 접근한다. 여기서 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중심이 되는 상태'이다.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어떤 일을 걱정만 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휩쓸려가기 쉽다. 항상 중심에 머무르며 '맞이할 자세'를 취해야만 어느 방향에서,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거나 현실의 쾌락

"중심에 머물면 모든 위기에 대처 가능"
저자, 깨달음과 행복기술 쉽게 전달
'우리가 바로 우주' 법칙… 불행방지 비결

에 매몰되지 않고, 부박한 현실에서 존재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 나갈 때 느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잡는 무게추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앨런 왓츠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서 무(無)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비유했고, 무의 경지란 '항상 중심에 머물게 하고 항상 여기에 머물도록'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정한 방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라. 만약 그 일이 다른 방향에서 일어난다면 힘을 모아 다시 자세를 취하려 할 때는 이미 늦었다. 중심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을 관통하는 기본 명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일 중 최상의 것'이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기만'이나 '정신승리'의 말이 아니다. 이는 저자가 삶의 고비에서 깨달은 우주의 '인과법칙'과 맞닿아 있다.

저자는 마약중독자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10년 동안 다양한 의사들과 치료사들을 찾아다녔다. 40여 차례나 중독에서 벗어났다 재발하기를 반복하던 끝에 아들은 중독성 약물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냈고 마침내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약물중독치료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주의 '인과 법칙'에 따라 살펴본다면, 마약에 중독된 시간이 없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치료센터를 설립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최악의 시간은 최상의 시간을 열어 주는 길이었고, 우주는 그들을 위해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전언이다.

저자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개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섣불리 좌절하여 불행을 자초한다고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우주이자 그 일부이며, 우주는 언제나 자기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오직 좋은 결과만 바란다."는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즉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자신의 현재 삶을 이끌어 주는 길이 되며, 바로 그 길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통과 불행에 휩쓸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이야기 한다. "한번은 직장을 잃고 자신의 신세를 탓하며 술과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술과 코카인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날 무렵, 하루는 자신이 정말 일하고 싶어 했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가 언제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장 함께 일하길 원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는 먼저 그에게 약물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회사는 규범이 까다로워서 마약 복용자는 절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우주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 대신, 직장을 잃었다고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며, 우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탓입니다. 사실 그가 직장을 잃은 것은 실패나 불운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직은 그를 좀 더 나은 일로 나아가게 해 줄 일종의 졸업장이었습니다. 단지 그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다보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진리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이다. **김주일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⑫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서문

'천수경'과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보살행' 성불의 세 단계를 차례로 담은 글입니다.

먼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공부하며 수양하면서도 세상을 구제하심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초지보살 시절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다가, 그분들의 영험하신 보살행에 감동하시고, 나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밝게 살펴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자, 순식간에 8지보살의 단계로 초월하셨고 몸에서는 천 개의 손이 나왔는데, 각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달려서 '천수 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눈과 두 손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천수경' 또는 '천수천안 대다라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 '42수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이 담겨있습니다. 42개의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서원한 진언이 '42수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줄탁동시가 효과적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서 어미닭을 보고 "엄마! 나 나갈께요."하고 알의 안쪽을 톡톡치면, 어미닭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의 껍질을 콕콕하고 쪼아주어야 예쁜 병아리가 쉽게 세상에 나옵니다. 어미가 성급하게 쪼으면 부화될 준비가 덜된 병아리가 다치기 쉽고, 너무 느리면 알 안에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톡톡 · 콕콕하고 쪼아야 새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깨우치고자 하면, 부처님보살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눈으로 살피시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성불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중생을 관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살행을 할 때, 언제 어디든 찾아가 구제한다고 해서 자유자재한 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읽고 성불해서 피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 경전의 글은 모두 관세음보살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 세 개의 경문이 어미닭이 되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세 경문 앞에 예불경문을 실은 이유는, 이 세 경문의 영험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있다가 이 세 경전을 음송(소리내서 읽음)하는 영역에 잘못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신 또는 생명체가 세 경문의 힘에 눌려서 당황하고, 또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을 만들어 새로운 악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경문을 독송하기 전에 예불경문을 먼저 독송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그림을 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오색금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남긴 이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구해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송이 연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천수경'과 '42수 진언'을 보면, 과연 부처님의 참 진리는 만고에 빛나는 생명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신 '천수경'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께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책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 열 번을 독송했다면 둘이 하면 스무 번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을 살다가, 모두가 염원하는 극락정토로 가서 사시기를 바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수 덕 사 덕숭총림 방장 송원 설정

대유학당 | 설정스님 | 값 10,000원 |
192쪽 | 가로 9.5㎝ × 세로 15.5㎝

주문처 02)2249-5630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허공은 텅 비어 모든 것 담을 수 있어”

허공처럼 살아라

글 원산 도명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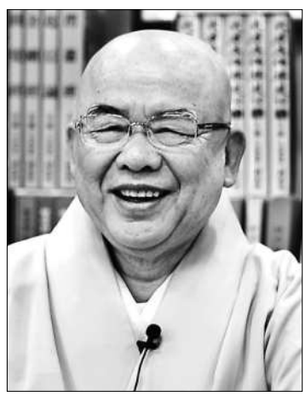
‘허공’ 이란 말은 텅비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텅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허공 속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다른 것을 막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에 의해 막히지 않아도 된다. 헤아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 불법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허공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불자들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화두’ 이다.

이 책의 저자 前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스님〈사진〉도 평생 ‘허공’ 처럼 살고자 했다. 통도사 주지 재직시 매월 음력 초하루마다 설법전서 사리탑 봉찬기도와 신중기도를 모시고 설법하면서 신도들이 허공을 닮아 행복해지길 발원했다. 이 책은 스님의 이런 주옥같은 법문을 엮어 출간한 것으로 믿고, 실천하고 기도해, 너와 내가, 나아가 여래와 다르지 않음을, 허공과 하나임을 알려준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초발심자를 위한 ‘제 1장 행복하려거든 믿고 실천하라’ , 수행 정진을 당부한 ‘제 2장 행복하려거든 기도하라’ , 허공 같은 걸림 없는 삶을 당부한 ‘제3장 행복하려거든 허공처럼 살아라’ , 너와 나 분별을 내려놓고 하나돼 세간 곳곳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라는 ‘제 4장 행복하려거든 하나가 되라’ 이다. 즉, 발심해 생사를 넘은 공을 깨닫고, 부처님의 진리로 다 같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스님의 설법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불제자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반야의 지혜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마음의 창고인 아뢰야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 동안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런 앎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아뢰야식창고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귀로 들은 것이 다 그렇게 창고 속에 저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같습니다. 입으로 맛본 것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 덥고 춥고 서늘하고 느끼는 촉감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뢰야식 창고에는 오랫동안의 오온 집적물이 쌓여 있지요.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보니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요소가 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한 이치를 알고 보니 일체 괴로움이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이 성취되고 나면 공한 이치를 다 알게 됩니다.”라고.

이어 스님은 〈반야심경〉의 공사상에 대한 얘기도 덧붙인다. “누구라도 지나온 삶은 모두 한 나절의 꿈과 같습니다. 이 몸뚱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몸이란 가짜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정신이 끊어지면 육신이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근본사상입니다.”며 생과 사를



원산 스님 설법 엮은 법문집

총 4개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

욕심없이 받아들이는 허공지혜 강조

뛰어넘은 공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마지막 ‘제4장 행복하려거든 하나가 되라’ 중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분별이 있다면 이 법문을 설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좋고 나쁨도, 옳고 그름도, 높고 낮음도 둘이 아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품자리, 법성의 자리에서는 남녀가 하나입니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태어날 수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딸이 태어나지 못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불이(不二)의 둘이 아니다’ 라는 도리 역시 하나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며 법성으로 하나 된 마음을 당부했다.

즉,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삿된 생각과 마음, 아집, 어리석음을 끊어버려 걸림 없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타인과 나도, 저 멀리 있는 산과 끝없이 펼쳐진 하늘도 ‘하나’ 임을 원산 스님은 불제자들에게 일러준다.

원산 스님의 법문집 〈허공처럼 살아라〉는 이 처럼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감으로써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히고 망상과 모든 뜻을 여의어 다함없고 걸림 없는 깨우침의 참된 소식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불제자들에게 전한다.

원산 도명 스님은 “열아홉 나이에 수행자가 되기 위해 통도사를 찾은 소년이 반백년이 훌쩍 지나 숯보다 검던 눈썹은 백미가 됐지만 초심만은 잃지 않았다.”며 “허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무소유이면서 전체는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허공처럼 비울 때 모든 어려움과 고뇌가 다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원산 도명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으로 19세에 입산해 경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금강계단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 전문 강원서 경전을 수학했으며, 극락암, 송광사, 봉암사, 칠불사 등 선원서 수선안거를 마쳤다.

통도사 재무 및 총무국장, 조계종 제 6,8대 종회의원, 직지사와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와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다.

인문학자가 바라본 붓다, 그리고 불교

세계의 깊이

김우인 지음 | 궁리 펴냄 | 1만 3천원



‘세계(世界)’ 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이다. 산스크리트어 ‘로카다투’ 를 한문으로 번역한 ‘세계’ 는 해와 달이 비추는 범위로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네 개의 대륙을 가리킨다. 여기에 천상과 지옥도 포함하여 대체로 우주의 의미로 쓰였다. 후에 世는 ‘시간’ 을, 界는 ‘공간’ 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됐다. 종교학, 철학, 신학 등을 공부한 인문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물질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더욱 목말라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가 인간과 세계의 깊디깊은 내면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전하고자 했다.

열반한 고타마 싯다르타는 과연 불교라는 ‘종교’ 를 창시하려 했을까? 붓다에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관념이 있었을까? 붓다가 진정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종교 조직이 생겨나고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려 애쓴다. 재가신도라 불리는 많은 이들은 붓다에게 절하며 복을 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세계의 깊이’ 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작은 울타리를 깨고 환골탈태하여 인류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원천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길로 가려면 우선 붓다의 사상과 함께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경전에 압도되어 그 작업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불교 문헌 중 붓다의 생애와 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에 관련된 글들을 선별해 모았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로서의 고집멸도(苦集滅道)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합

“불교 알려면 철저히 경전 읽어라”

초기 경전부터 현대 문헌까지 망라

리적이며 실천적인 길로서 불교의 총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알기 위해 시간적으로는 초기불교 경전부터 현대까지, 공간적으로는 인도,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헌과 불시(佛詩) 등을 망라했다.

이 문헌의 문장들을 읽으려면 먼저 불교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짧지만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 전반을 1장 ‘지금 불교를 다시 생각하며’ 에서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붓다의 생애와 사성제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불교사 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현재적 맥락에서 불교를 어떻게 읽어내고, 어떤 씨앗을 발아시켜 길러낼 수 있을지 모색해보았다.

이렇게 불교 전반의 이해와 함께 주요 불교 문헌들의 문장을 직접 맛보는 일을 하나의 책 안에서 실현해보고자 한 것이 이 책을 엮어 펴낸 의도이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불교에 관한 개괄적 이해에서는 어려운 불교의 교의와 역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대화체를 사용했다. 단, 쉽게 서술하되 불교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다.

김주일 기자

중국서 불교사상은 어떻게 변화 됐을까?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5천원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 전래 초기부터 이른바 ‘중국화’ 의 여정을 밟았다. 그것은 불교의 전래에는 필연적으로 그 교의(敎義)를 담고 있는 경전에 대한 역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화적, 사상적, 언어적, 상징적 체제가 다른 중국에 적합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번역어의 부재는 유사한 용어와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용어와 개념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함의가 불교의 그것들과 ‘착종(錯綜)’ 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불교’ 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문화가 창출되는 기본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당시 중국 사회에 이미 체계를 갖추던 유가 및 도가와의 거대한 ‘문화 교류와 융합’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통섭(通攝)’ 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통섭은 에드워드 윌슨(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인 〈Consilience〉가 번역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지만, 본래 ‘통섭’ 은 불교용어로서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다양성을 총괄하여 포용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자는 중국에서 불교사상이 변화, 전개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유가 및 도가 등 양가와의 만남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용하였기 때문에 ‘통섭’ 이라는 개념이 매우 적합한 분석틀이라고 본다.

이 책은 중국불교 ‘사상사’ 이다. 그리고 중국불교의 사상사는 결코 불교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즉 중국불교 사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유불도 삼교관계의 과정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내재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사상적 핵심을 지니고 있는 유불도 삼교의 ‘통섭’ 을 통하여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사상사를 통관(通觀)하고 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유학의 사상적 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인성론, 심성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중국불교의 독특한 ‘불성론’ 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성론을 바탕으로 ‘돈오(頓悟)’ 라는 동아시아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 발전된 ‘불성론’ 은 이후 역으로 유학에 영향을 주어서 송명 대에 ‘이학(理學)’ 과 ‘심학(心學)’ 을 출현하도록 하였다.

도가와 불교의 관계 역시 매우 깊은데, 초기에 중국인들에게 불교가 도가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용어들이 도가의 용어로 차용되었고, 또한 사유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노장으로 ‘반야’ 를 해석하는 ‘격의불교’ 가 출현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당대의 성현영은 삼론종의 반야학을 흡수하여 ‘중현학(重玄學)’ 을 창시하여 본격적인 도교를 개창했으며, 그의 중현학은 다시 선종(禪宗)이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처럼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광대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유불도의 통섭은 전체적인 중국사상을 이해하는 데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측면이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사상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도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 어느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이 삼교 사이의 교류를 통찰하지 못하면 이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통섭’ 개념 사용하여 고찰

중국 불교의 사상적 변용 조명

이 책을 통해 유불도 삼교 사이의 충돌과 갈등, 교류와 융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중국에서 불교가 어떻게 사상적 변용을 거쳐 새로운 사상문화를 만들어 가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불교는 이른바 궁극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불조 석존이 제시한 교의에서 진리성을 찾는 연구는 가장 본질적이고, 긴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런 석존의 가르침이 또다른 지역과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 지역적 문화와 습합해 어떤 변용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도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는 “유가와 도가 양가의 통섭 과정을 통한 전체적인 ‘중국불교사상사’ 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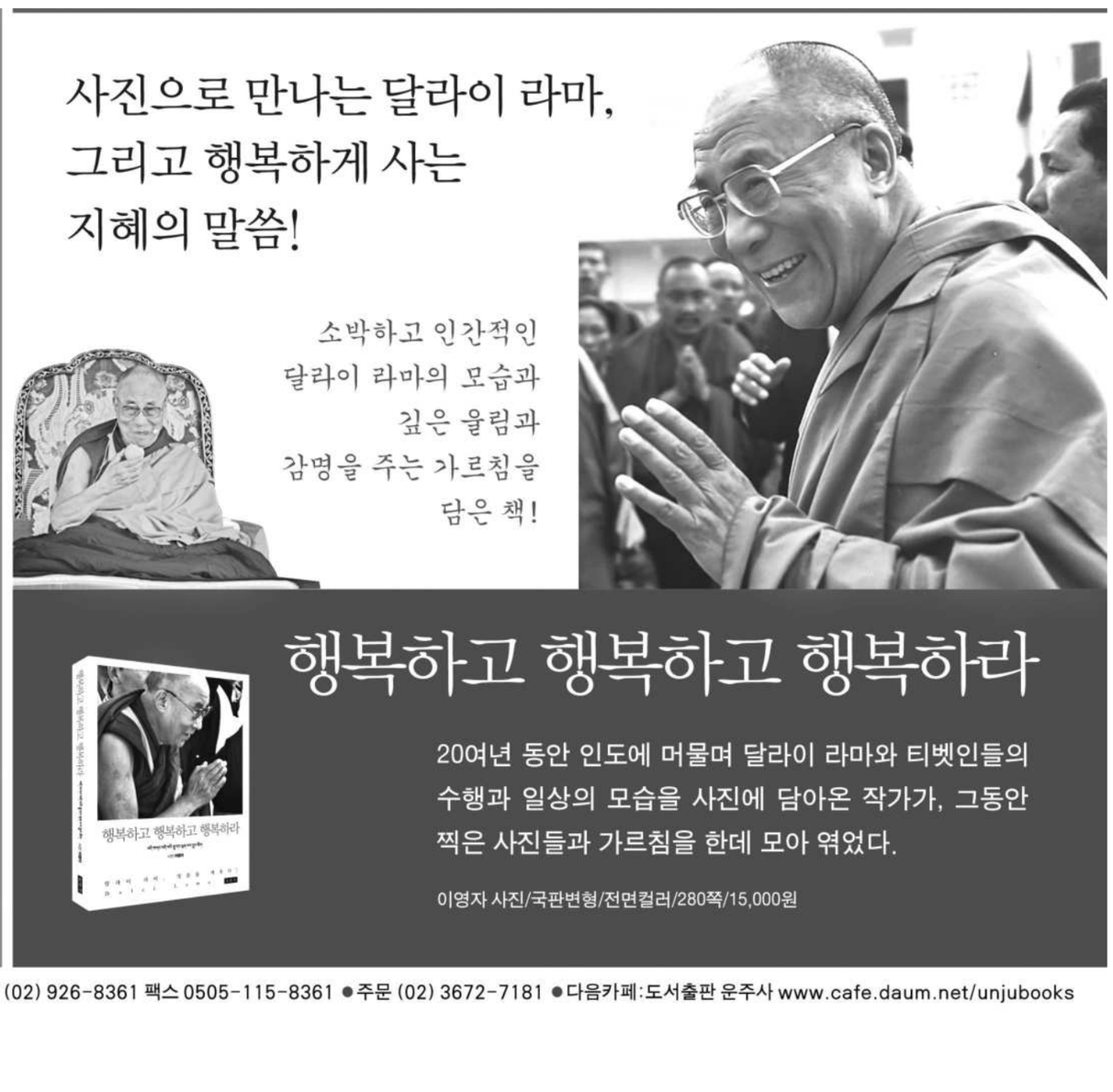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저자 김진무는?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산법문의 선사상연구〉로 석사학위를, 중국 남경대학 철학과에서 〈佛學與玄學關係研究〉(中文)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절강성 항주의 절강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중한 불교교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불교의 거사들〉이, 공저로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 등이 있고,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역), 〈불교와 유학〉 〈선학과 현학〉 〈선과 노장〉 〈단경도해〉 등이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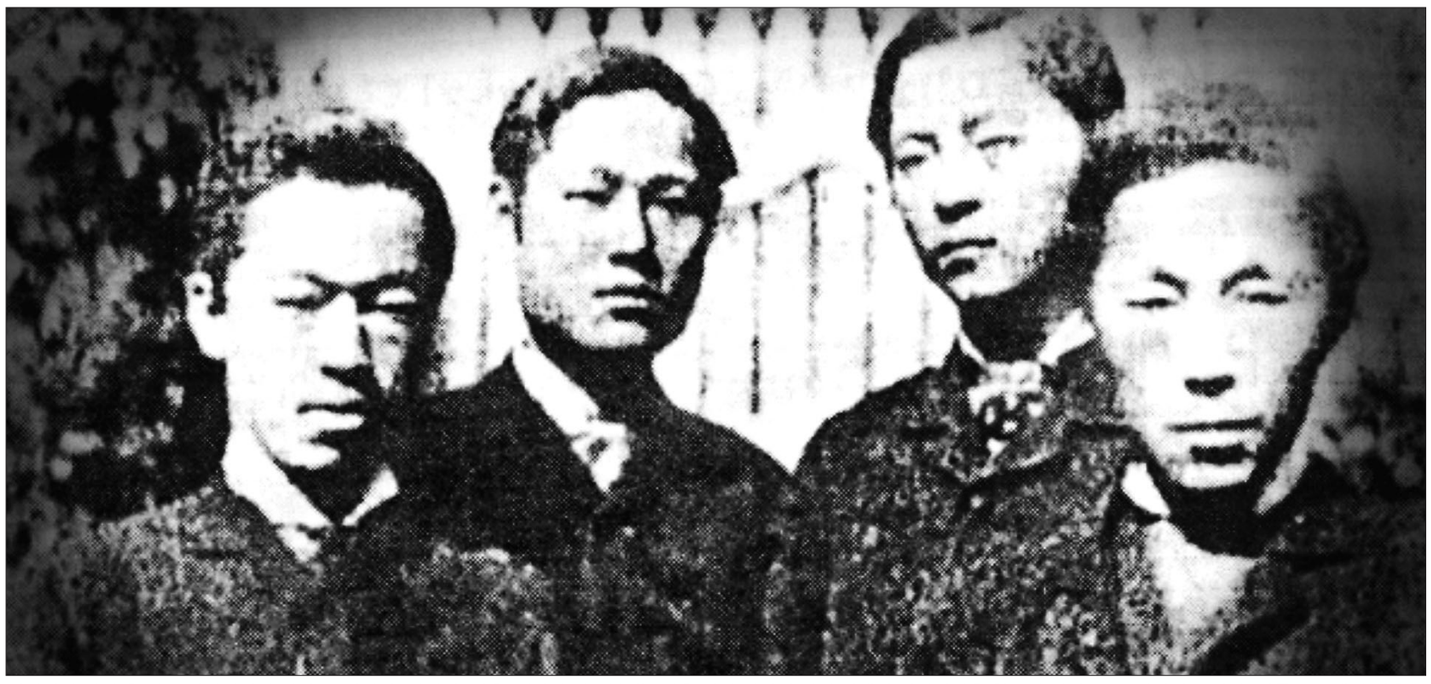
불교적 개혁사상으로 변혁 꿈꾼 선각자의 일기

불교로 읽는 古典

김옥균의 〈갑신일록〉



김경집
진각대 교수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 망명시절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사진 왼쪽부터〉. 젊은 신진 세력에 의해 진행된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만에 끝난다. 이를 주도했던 김옥균은 일본 망명 후 당시 상황을 술회한 〈갑신일록〉을 저술한다. 불교에 심취했던 김옥균의 면모를 살피면 유교적 신분제를 넘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근대 지식인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특히 그 기저에는 불교가 있음이 유추된다.

어린 시절 일기를 썼다. 방학숙제인 탓에 강제로 썼던 적도 있었고, 철들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쓴 적도 있다. 세상일이 바빠지고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쓰기가 어려워지면서 일기는 손에서 멀어졌다.

개인의 하루 일상을 정리한 일기,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가 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킬만한 인물이 쓴 글이면 개인의 정리를 넘어 역사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일기가 제법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기록한 〈난중일기〉일 것이다.

근대에 집필된 일기 가운데 역사적 가치가 큰 것을 꼽는다면 김옥균의 〈갑신일록(甲申日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한 기록이다. 김옥균은 朴泳孝(박영효) · 서광범(徐光範) 등과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목적은 근대화에 뒤진 조선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자체적 역량의 부족과 배후 지원을 약속했던 일제의 변심으로 정변은 3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국내에 남은 개화당 요인들과 가족들은 참형을 면치 못했다.

일본 망명한 후 1년이 지난 1885년 후반 무렵 김옥균은 기억을 되살려 그날의 일을 기록하였다. 정변의 주역으로서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지원을 약속한 일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었다. 이런 계기로 세상에 나온 것이 〈갑신일록〉이다.

일기문인 탓에 별다른 내용 없이 간단한 서론에 이어 본격적인 일기로 이루어져 있다. 한문으로 쓰인 내용은 1884년 10월 30일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조선에 오자 그를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하고 정변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성을 탈출한 그 해 12월 6일까지 38일 동안의 혁명의 모의와 진행 그리고 실패의 과정을 적고 있다.

혁명의 실패와 망명, 해외에 머물면서 실의 빠진 개혁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일을 적어 갔을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거사한 탓에 실패로 인한 실망과 울분은 컸으리라.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이 홀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 심히 부끄럽다. 조선이 어느 때에 독립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와 같은 대열에 서겠는가."

3일 천하로 막 내린 '갑신정변'
조선 근대화를 위한 개혁 시도
불교에 심취했던 주도자 김옥균
유교 아닌 불교서 개혁사상 찾아
'개화당' 에는 스님들 참여 이어져

士農工商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불교에 내재된 평등사상서 기인

김옥균과 갑신정변에 대한 역사분야의 연구는 많다. 대부분 조선의 개화를 염원한 젊은 정치가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 민중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염원한 김옥균의 삶과 갑신정변의 이면에는 불교사상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를 저술한 이능화(李能和)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당 사람들에 대해 흰 옷을 입던 공자(公子)로 육식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이 선도(禪道)를 듣고 지혜로운 생각을 내었다. 그리고 일본을 유람(遊覽)하여 당시 형세를 파악하고 혁신을 결의하였다. 갑신정변은 그 결과이다. 그들은 배운 불교의 이치대로 직접 세상의 이치에 응용하고자 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혁명 동지였던 박영효도 김옥균이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가 나서 친하게 되었다고 술회한 점으로 보아 불교신앙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옥균이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 정변을 일으킨 것은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함을 담고 있는 불교사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 그런 개혁의 씨앗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오래전 박규수(朴珪壽)와 유대치(劉大致)를 만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1872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한 그는 조선사회의 변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진 자들을 모아 '개화당(開化黨)' 을 만들었다. 그들은 조선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각자인 박규수의 집에 모여 세계정세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실학과 개화사상을 배우던 그들은 1877년 2월 박규수가 사망하자 그 집을 출입하던 오경석(吳慶錫)을 통해 유대치에게 소개되었다.

그들을 만난 유대치는 개화당을 지도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그들 가운데 김옥균의 비범함이 돋보였다.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의 사상과 인격 그리고 학문적 재능 등이 드러났다. 출중한 안목으로 장래 대사(大事)를 계획함에 합당한 인물로 눈여겨 두었다. 유대치는 역관(譯官)이었던 오경석을 통해 북경에서 가져온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및 기타 신간서적을 그에게 주면서 천하의 대세를 설명하면서 조선의 개조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학사들이 의례에는 뛰어나나 도(道)에는 부족함을 탄식하며 불교 연구를 권하였다. 그런 영향으로 불서(佛書)를 애독하게 된 그는 선(禪)을 수양의 근본으로 삼았다.

불교사상이 깊어질수록 김옥균의 눈에 유교의 부족함은 점점 많아졌다. 일찍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각 번(藩)의 상태를 살펴보고 유교가 영향을 준 번(藩)일수록 형식에 차 있고 만사가 궁색함에 빠져있음을 보았다. 이런 현상은 유교의 형식적인 가르침에서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유교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록 이를 치국의 이념으로 신봉하고 있던 양반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들이 없어져야만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 사회의 모순을 타개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는 불교의 평등사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꿈꾸며 정강에 자신의 이념을 담았다. 〈갑신일록〉에는 개화당의 이념을 알 수 있는 정강 14개 조항이 전해진다. 그것은 개화당의 정치개혁 지표였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정치적 개혁을 논의하였다. 국왕에게 상언(上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김옥균은 유대치의 지도를 받아 외국의 예를 따라 예산제도를 세우는 일, 행정기관의 책임분담을 마련하는 일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 조직을 고치는 것이라고 상언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은 1884년 12월 5일 새벽 정권을 수립하여 인사행정을 단행하는 한편 6일 새벽까지 앞으로 실시해야 할 정강을 협의하였다. 이어 국왕의 전교로 발표하려던 순간 청군의 공격으로 정변이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었던 정강은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해 〈갑신일록〉에 남김으로써 그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정강의 내용 가운데 개화당이 불교사상을 믿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배경으로 당시 봉건사회가 지니고 있던 신분제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만민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런 사상과 연관된 정강의 내용을 들자면 둘째,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과 셋째,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보호하여 국가 재정을 늘린다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개화당 사람들은 신분차별을 두지 않았다. 개화당의 인적 구성에서도 그런 특색이 나타난다. 조직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코 신분적인 차이를 두지 않았다. 핵심인물에 중인(中人)출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중인만이 아니라 당시 낮은 신분으로 여기던 스님들도 함께 활동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신분 계급에 묶여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평등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그들의 생각이 정강의 문벌 철폐와 백성의 보호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조선사회를 어렵게 만든 양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조선의 기계문명이 앞서 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 · 농 · 공 · 상(士農工商)의 가치관은 동양에서 앞서 가던 우리 기계문명의 자취를 감추게 하였다. 또한 양반은 백성이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를 횡탈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쌓아놓으면 이를 약탈하는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길쌈을 하여 입고 먹으려고 하면 양반 · 관리가 그 이익을 빼앗아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농 · 공 · 상(農 · 商 · 工)의 모든 직업을 버리는 것보다도 못할 경우도 발생하였다.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랑민이 되어 전국을 방랑하는 일이었고, 그로 인하여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양반을 없애 폐단의 근원을 치유해야만 국가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옥균은 그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문벌을 폐하고, 학교를 세워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고, 외국의 종교를 유입하여 국민을 교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외국의 종교란 그의 신앙으로 비추어 볼 때 불교이다.

그는 유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으로 불교 이외의 것은 없다고 간파하였다. 그리고 양반 중심의 정치체제를 타도하고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불교적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치국이 실패한 조선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볼 때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문제가 관심사였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정변의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해서 고종에게 보내는 상소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국민을 하루속히 개명의 길로 이끌어 미묘한 작금의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양반정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언하였다.

이와 같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김옥균의 개혁사상은 갑신정변의 실패라는 한계에 부딪쳐 실현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본가치를 중요시 한 민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사상은 이후 지속된 조선사회의 신분차별을 타파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도 당면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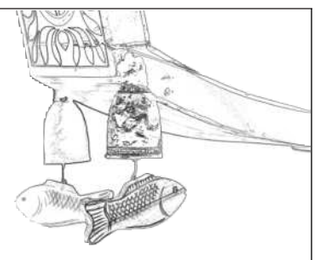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높다는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며, 태어난 자 언젠가는
죽어가고, 모이는 자 마침내는 흩어지네.

- 찬집백연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범패의식 교육도량
의식을 쉽게 개인지도
일반의식 바라, 작법무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점안식,불교행사
(보현사)
011-482-2091
051-557-11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포교당 관리와 불자님 포
교에만 최선의 전력으로
전념 할 수 있는 스님. 인연
이 바른 스님을 모심. 행자
생활 수행과정을 잘 하실
분 모십니다
010-9418-1632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9340-3921

사찰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647-0018

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산내암자,
기도하며 공양주할 불심
있는 **불자 공양주** 구함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1724

주지 원합니다
미륵신앙을 받은 60대
비구스님 안계신 절
합의 운영 포교. 정기법회
불교대학 가능한 절
031-373-1125

적은 보시금 받고 남은 여
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세수 55 ~ 63세
비구 스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산중 조용한 암자)
010-4484-575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염불,기도소리 들리는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구성학+현공풍수양택 7월 지역별 강의일정
■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5일 수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2일 수요일 오후1시-5시(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6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3일 목요일 오후1시-5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 현공풍수양택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문사
• 주 지 : 명희 (김순이)
• 주 소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112-2

• 사찰명 : 성불사
• 주 지 : 보경 (박옥주)
• 주 소 : 경북 상주시 개운동 28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량호사
• 주 지 : 량호
• 주 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안로 591-12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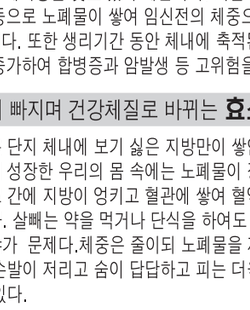
• 사찰명 : 부용사
• 주 지 : 정신 (박수종)
• 주 소 :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732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설법은 여래의 거룩한 말씀이니 가르침대로 공덕을
닦아서 대접이 좋고 나쁨에 집착 하지 말지니,
집착을 끊어야 법을 얻으리라.

- 발피보살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하동
- 청정 계곡접, 토지 약 5,500㎡
- 목조법당 98㎡, 요사 73㎡, 공양간
- 양도금액 : 15억원(융자가능)
- 지리산 위치 접근성 좋은 최고 사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시내 ◎ 위치:경북
◎ 부지:60평 ◎ 대지:1500평
◎ 법당:35평, 교통편리 ◎ 법당:30평
◎ 요사:60평 ◎ 요사:100평
◎ 양도:9억7천 ◎ 양도:4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김천시 사찰 급 양도
* 목조 법당 80㎡, 요사채95㎡. 토지3,600㎡
* 시내아파트 부근접, 근성좋은 산쪽 사찰
* 양도가 : 5억 8천만원. 사찰주변 바위가 좋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 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주거지역 위치
- 내용 : 대지 139평, 건평 140평, 3층건물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 버스 전철역 200m
- 가액 : 14억 (학업관계로 급 안내)

051)754-3375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980번지 (칠서 IC에서 5분거리)
- 대지 330평, 삼신각 5.2평, 대웅전 15평 요사채(가건물) 30평
- 가액 : 4억 5천

010-4819-8690

포교원안내

- 위치: 포교원 최고의 위치 부산 서면역 3분거리
- 5층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2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 공양간(17평), 종무실, 주지실 (10평)
- 가액: 보증금 2,000만월 월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명리학 공부하신 스님 최고의 조건

문의 : 010-3711-507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 슬래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
- 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 단청 602호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3억

010-4548-766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암자 및 종교부지 안내

- 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 지목 : 토지임야(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수 : 약 2200평(진입도로 포장완료)
- 특징 : 서울에서 약1시간대 거리, 평당 10만원
- 위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 생산관리지역(토임)
- 평수 : 약 333평 • 향 : 동향 ~ 동남향
- 평당 : 30만원 • 진입도로폭 6M 포장완료

주인직접 010-2215-3657 합장

토 굴 안 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철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주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121, 1121-1, 1125번지
- 종교부지 : 302평, 과수원 390평
- 전기, 토목공사 완료
- 지관이 추천한 명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156-9687

현장 답사후 연락주세요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6평
- 연못 차고 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 용흥동 구포항역 도보5분
- 평수 25평, 법당, 방한칸, 주방
- 집기류 일체 두고감
- 가액 : 보증금 5백 월 20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0-7788-3320

010-3290-6699

전원주택-사찰 양도,차판판매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 대지 약 600평 주거건물 및 창고 포함
- 입주 후 바로 생활 가능
- 별장으로 최상. 가야산 정상 조망 수도자분께도 최적의 장소 텃세없고 조용한 마을
- 개인소장 차판 판매(번개맞은 나무. 기목. 괴목. 대추나무 등) 기암괴석
- 고가구 판매 • 가액 : 3억5천

010-8880-891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 5분거리 소사역 6분거리
- 5층 건물에 5층 100평 (엘리베이터)
- 법당, 공양실, 종무실, 접견실, 방4개,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스님 건강 관계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4413-4268

법당,포교원 안내

- 위치: 안산IC,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역세권
- 교통편리,유동인구, 유동차량 많은 대로변에 위치
- 법당, 포교원, 수련원으로 아주 적합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좋고, 일체 종교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10분거리
- 4층독채(엘리베이터있음), 실평수 60평, 법당, 주거 겸용 풀완벽 리모델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가격절충가능

핸드폰 010-5913-7239

010-3145-8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우포늪 주위
- 평수 248평
- 대웅전, 삼존불(단청)
- 삼선각 요사채, 창고 1동, 컨테이너 2동
- 2차선 도로 옆
- 가액 : 3억 절충가

011-571-4002

큰사찰및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33,330㎡), 평당 10만원
- 답사후 결정, 주인 직접 현재 사찰 운영중 (개인 분할 등기 진행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 건물,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 거리

010-3879-254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 대지 58평
- 1층(요사) 30평 2층(법당) 22평
- 교통 편리 시장 입구
- 가액 : 2억 9천

010-7136-883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 걸어서 7분거리
- 약 90평, 5층 건물에 5층 옥상도 사용
- 법당20평, 삼존불, 신중, 삼성각5평, 연등1,500개 영가단 20평, 위패, 영가등 2,400분
- 스님방10평, 종무소방15평, 공양간20평
- 욕실겸 화장실2개, 바닥은 전체 도시가스시설 밖에 별도로 정지에 가마솥 도시가스시설
- 모든 시설과 집기완비 오셔서 즉시법회
- 스님 건강상 인수하는 것이니 부담없이 같이 운영하실 스님도 전화주세요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155만원(모든 관리비 포함)

010-5904-475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방 2개, 화장실겸 욕실 2
- 가액 : 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497-7667

작은암자(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서면
- 대지 100평, 건평25평, 실평수 35평정도
- 신축 목조주택 임법당, 몸만오시면 됨 불사 완벽하게 했습니다
- 동네끝집 절옆으로 조용한 차도로 있음
- 가격은 1억 9천 정도이나 직접와 보시고 형편대로 절충하셔서 상의하십시다 대출 6천정도 됩니다
- 꼭필요하신 분께서만 전화주십시요

017-808-2543

좋은사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 대지 405평
- 대웅전 : 섣가래 목조기와 지붕 30평, 단청필
- 삼성각 : 섣가래 목조기와 지붕 5평, 단청필
- 요사채 : 55평 콘트리트 기와 지붕, 단청필
- 화장실 및 창고 약 20평, 교통 편리함
- 주지스님 건강 악화로 부득이 급안내

010-6664-1662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산세좋고 물 맑은 곳 기도하기 좋은 사찰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3억 2천

011-9571-6559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 남부시장옆
- 2층 80평, 법당내 삼존불, 본존탱화, 신중탱화
- 방3개, 공양실 1,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용
- 가액 : 보증금 5백만, 월45만 시설비 절반가 6백 5십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7283-0089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광주인근, 옥과면
- 사자봉 적송림 7부능선
- 산 :1만2천평, 종교부지 650평 노천 약사석불12자,
- 건물 : 조립주택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인근, 초중고,대학교있음
- 가액 : 3억 7천만원, 조건부협의가능

010-8224-16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 전답 3000여평
- 가옥 60여평 한채 토지조성 완비 대형차 진입가능
- 사계절 물 흐르고,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곳 주변 경관 좋음
- 가액 : 4억

010-6253-310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해도동 구룡포 바닷가 30m 인접
- 포교원 35평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은사스님 노환으로 인해 급 안내
-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 가액 : 보증금 300백만원 월 50만원 보증금포함 1천 5백 방문후 가격절충

010-9071-6045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4〉 지금 상태 그대로의 인생 바라보기 ㊤

세상 모든 고통 삼키고 평화 자비는 뱉어내라



고통의 바퀴에서 내려오기

많은 스승들이 명상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불교 수행을 시작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교수라는 직업상 나는 먼저 불교 서적과 씨름하며 몇 가지 연구 조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학문을 중요시하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2년, 연구 조사를 통해 스무 쪽에 달하는 논문을 작성했다. 서른여섯 권의 책을 주석으로 달아 완성한 것이었다. 제목은 '불교 소개'로 정했다. 이 하찮은 저작물을 누구에게도 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나 자신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학술 연구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잘 맞는 전략을 택했다.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이 '고통의 바퀴'와 맺은 최초의 관계였다. 나는 그 가르침을 건너뛰었고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가르침으로 옮겨 갔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던 책을 이용해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스리랑카의 승려이자 학자인 월폴라 라훌라가 1959년에 쓴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What the Buddha Taught》가 그것이었다. 월폴라 라훌라가 '파티카 사무파타'라고 부르는 원리—'고통의 바퀴' 혹은 좀 더 널리 알려진 말로는 '연기(緣起)'—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을 그냥 건너뛰지 않았다면 나는 불교라는 이 새로운 영적 추구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조건 지어진 발생' 혹은 '의지에 의한 형성의 중간' 같은 문구를 사용했고 그것은 내 머리를 핑핑 돌게 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 내 명상 수행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 때 아야케마와 사트야나라야 고엔카(인도의 위파사나 수행의 대가)의 책을 통해 그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파티카 사무파타는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번역은 '연기'이지만 나는 '고통의 바퀴'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무척 잘 묘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설명은 종합적인 분석도 학문적인 분석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이면서 나는 이러한 고통의 바퀴 혹은 고통의 사슬 속 열두 계단의 가운데에 올라타려고 한다. 나아가 이 가르침들을 만성병에 수반되는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써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섯 가지 감각을 통해 정신적 · 육체적 접촉에 반복적으로 맞닥뜨린다. 다른 인도 철학 체계처럼 불교에서도 우리의 지각을 조절하는 정신적 능력을 여섯 번째 감각에 포함시킨다. 우리는 그러한 접촉을 유쾌한 감각, 불쾌한 감각,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감각으로 경험한다. 접촉의 경험이 유쾌하면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원한다. 이것이 욕망이다. 접촉의 경험이 불쾌하면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형태의 욕망, 즉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불교에서는 보통 이것을 혐오라고 일컫는다. 이 욕망 혹은 혐오에 해당하는 팔리 어는 앞에서 말했듯이 '탄하'이다. 나는 탄하를 '원함 혹은 원하지 않음'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처하는 마음 상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상당히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은 이 욕망 혹은 혐오에 마치 풀처럼 달라붙는다. 그 과정은 매달림, 붙잡음, 집착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처럼 우리가 욕망 혹은 혐오에 일단 달라붙고 나면

욕망 · 혐오는 집착 등 자아 생성
이로부터 고통 함께 수반돼
수천 가지 감정 중 하나로 넘겨야
무상 진리로 고통 소멸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이 달라붙음은 고정된 자아의 감각을 만든다. 마치 그 풀이 말라 버린 것처럼. 간추려 말하면 우리는 욕망과 혐오에 매달리거나 집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자아 정체성을 띠고 매 순간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탄생—혹은 이 표현이 더 좋다면 '재탄생'—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결과들이 '카르마'의 의미이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카르마의 무르익음 혹은 결실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세상과의 접촉이 있다. 그것은 도로 위에서 우리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 앞에 끼어드는 사람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접촉이 한 가지 이상의 감각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눈은 끼어드는 차를 보고, 귀는 그 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여섯 번째 감각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한테 먼저 갈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차 앞에 끼어들고 있네.'

마음과 관련된 그 접촉의 일부는 불쾌한 기분으로 경험된다.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 불쾌함에 대해 우리는 혐오로 반응한다. 사실 우리는 혐오를 흔들어 떼 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풀처럼 달라붙어 우리를 조종하며,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괴팍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은 첫 번째 고귀한 진리인 고통도 함께 가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은 그 고통의 장소에 이르기 전에 바퀴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깨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불쾌한 기분이 지금 이대로가 아닌 다른 상황을 바라는 욕망을 만들어 내기 전에. 유쾌한 기분이나 불쾌한 기분을 경험한 이후부터 유쾌함에 대한 욕망이나 불쾌함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고통의 바퀴에서 내려올 기회이며 출구이다. 어떤 것과의 접촉 후에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할 때 우리는 그 기분이 불쾌하다는 사실을 다만 관찰하고서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일순간의 수천 가지 접촉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 무상함의 진리가 보일 뿐 아니라 고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푸라기를 황금 실로 바꾸는 수행

통렌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 나온 자비 수행이다. 처음 병에 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나온 치유의 시디들을 수집했다. 그것들에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치유의 힘을 가진 평화로운 생각과 영상을 '들이마시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내쉬라는' 지시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통렌 수행에서는 그 지시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통렌은 이 세상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주어야 할 모든 친절, 평온, 자비를 '내쉰다.' 이것은 직관을 거스르는 수행이다. 비구니이자 불교 교사인 페마최된(서양인 최초의 티베트 불교 승려)이 통렌은 에고의 논리를 역행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렌 수행은 11세기에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해졌다. 통렌은 '마음 수련의 일곱 가지 요점'으로 알려진 일단의 가르침의 일부였는데, 자비의 길을 실천하기 위한 쉰아홉 가지 경구를 모은 것이었다. 그 경구에 통렌 수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번갈아 가며 주고받는 훈련을 하라. 호흡에 그것들을 실으라."

수백 년 동안 이 경구는 다른 쉰여덟 가지와 마찬가지로 티베트 스승들이 풀이하기 무척 좋아하는 내용이 되었다. 최근의 해설은 특히 초감 트룽파(1939~1987, 티베트 불교 명상의 대가)와 딜고 켄체 린포체(1910~1991, 티베트의 영적 스승, 페마최된의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해설서들은 각 경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이마시라. 친절과 평온과 자비를 내쉬라."

사실 우리는 앞에 소개한 거룩한 마음 상태를 내쉬고 있는 셈이다.

나는 아프기 전에 통렌 수행을 배웠지만 그다지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주요한 자비 수행이 되었다. 통렌과의 인연은 파리에서 병을 걸리고 6개월 뒤 일터로 돌아간 첫날 이루어졌다.

모든 주변 사람들처럼 나 역시 일주일에 몇 번만 일을 계속하기에도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토니는 수업 시작 30분 전에 나를 법대 정문 앞에 내려 주었다. 2002년 1월 둘째 주의 일이었다. 내 연구실 의자에 앉자마자 강의실까지 가기에는 몸이 너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리하여 연구실 소파에 드러눕고 말았다. 문득,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일을 하러 가야만 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로 생각이 미쳤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나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그들은 집세를 낼 수 없거나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노동 인력에 속해 있

평화 마시고 고통 뱉는 일반 수행
티벳 수행 '통렌'은 반대로 수행
같은 고통 가진 이들 생각
내 고통 함께 소멸할 수 있어

었지만 아플 때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주어야 할 친절과 평온과 자비를 내쉬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공황 상태가 가라앉았고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느낌으로 뒤바뀌었다.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은 내쉬는 숨에 실어서 다른 이들에게 보낼 친절, 평온, 자비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학교로 돌아간 그 첫날 이후로 나는 통렌을 어느 때든 이용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용했다. 그것은 검사 결과를 들으려고 근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사람 모두와 나를 연결시켜 주었다. 통렌의 효과는 언제나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 타인에게 내보낼 약간의 평온, 약간의 축복, 약간의 자비가 늘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 안의 자비 창고를 발견하는 것이 통렌 수행의 경이로움이었다.

통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자비수행이라는 점이 참 좋았다. 정식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이쉬고 친절과 평온과 자비를 내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 불편함과 연결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들이쉬는 동안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 또한 들이쉬고 있다. 우리가 주어야 할 일정한 양의 친절과 평온과 자비를 내쉬는 동안 우리는 그 거룩한 상태를 자신에게도 보내고 있다. '모든' 존재가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내가 통렌 수행의 한계에 부딪힌 날이 찾아왔다. 병에 걸린 뒤 2년 반이 지나 추수감사절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가족들이 집 앞마당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수행을 시도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한 집에 있지만 그 즐거운 행사에 참석하기에는 너무도 아픈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비애를 들이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였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울고 말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이쉬는 것이 자신을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렌 시도를 주저한다면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염려가 '영혼의 바위' 강연에서 제기되었을 때 생태철학자이자 불교학자인 조애나 메이시가 한 대답이 여기 있다. 우선 조애나 메이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딜 능력이 스스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로 그 질문을 던진 여성을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들이마셔서 그것을 정말로 줄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것은 가정에 근거한 이야기이므로 통렌 수행의 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아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들이쉬는 것에 울면서 반응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로운 울음이다. 전적으로 합당한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가 들이쉬는 숨에 이 세상의 고통을 담아 두고 내쉬는 숨에 우리가 주어야 할 모든 친절과 평온과 자비를 내보낸다면 그 순간은 지푸라기를 황금 실로 탈바꿈시키는 것과도 같다.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일타 스님

변화를 온 몸으로 받아들인 실천적 삶

나는 스님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도 불었다. 만장을 든 스님과 보살들이 무던히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이 만장을 하늘로 치켜 올렸고 올라간 만장은 한량없는 곡선을 반복하며 무한대로 증폭시켰다. 긴 폭의 만장이 만들어내는 곡선은 바람의 섬세한 빗질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이었다. 천의가 움직이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비천의 현현한 모습과 방불했다. 바람결에 옆으로 누운 대나무는 사선을 이루며 우열을 경쟁하듯 하였고 대나무에 붙어있는 일부의 만장은 타원형으로 부풀어 올라 바람을 거스르며 상승 곡선을 만들었다. 그날 다비장 풍경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특별함이었다. 스님은 마지막 가실 때에도 오색찬란한 색깔로 허공에 춤을 추었고 바람 소리로 순간을 가르며 법문을 하셨다. 그 모습은 평소 스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은해사에서 본 마지막 스님의 이미지는 꽤나 오랫동안 뇌리에 박혔고 지금도 일타라는 단어만 보아도 다비장 가는 길에서 보았던 하늘의 춤이 각인되어있다. 일타 스님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나는 솔직히 일타 스님을 잘 모른다. 어깨 너머로 밖에 보질 못했다. 그래서 지족암 향적 스님으로부터 일타 스님의 진영을 의뢰 받았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 **스님의 생각은 창의적이었다**
> **지적 풍모에 생기가 넘쳤으며**
> **불교 연구에 혜안을 가졌다**

동곡 일타 큰스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님의 전체적인 인상은 자비롭고 인자하다. 꼭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이 친근하며 후덕하다.

스님의 얼굴은 곱고 덕이 많은 형상이다. 얼굴 전체에는 선한 기운이 어려 있다. 이러한 자태는 고뇌에 찬 인간들의 영혼을 불러 세우는 흡입력을 가진다. 스님에게 인간으로서 지닌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 꼭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이다. 스님에 대한 흠모는 스님들 사이에서 더 대단했다. 해인사 출신 다른 문중의 스님들을 통해 해인사 생활을 하면서 믿고 따르고 싶은 스님으로 일타 스님을 거론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스님의 음성은 우렁찼다. 때문에 사람을 설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달변가였고 탁월한 포교사였다. 나는 그것이 스님의 장점이고 존재 가치이며 중요한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스님의 법문은 감정 전달이 탁월했다. 법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따랐다는 사실은 단지 스님의 혀가 코끝에 닿을 정도로 길고 유연하다는 신체적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만큼 스님의 법문은 스님만의 해석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힘과 생명력이 넘쳤다.

스님의 눈은 빛이 난다. 총기가 느껴진다. 검고 굵은 뿔테 안경은 이런 지적 풍모를 돋보이게 했다. 스님의 생각은 창의적이었다. 항상 생기가 넘쳤으며 재주가 비상하고 발랄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과 지적 호기심은 스님의 삶을 하나로 관류하고 있는 정서일 것이다.

스님은 남성다운 호기와 기백이 있다. 원기가 왕성하여 에너지가 넘쳐흐른다. 스님의 넓은 가슴에는 털이 무성하다. 사진에 보이는 스님의 모습에서 웃옷을 벗고 상체를 드러내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이는 격식을 초월한 인간적 풍모로 보였다. 그러면서 자유인으로서 낭만과 자신감의 충만으로 이해되었다. 스님은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다. 글씨를 보면 고구마 뿌리가 연상 될 정도로 굵고 가는 것의 대비가 심했고 공간과 포치가 현란했다. 멋과 아취를 누리며 즐길 줄 아는 분이었다.

스님은 변화된 현실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실천적 삶을 살았다. 그것은 모험심의 한 형태일 것이다. 한 예로 운전을 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시절, 손수 운전을 하고 다니며 해인사를 오르내렸다.

스님은 불교 정신과 불교문화 원형에 선구적인 혜안을 가졌다. 불교의 원천을 탐구하기 위해 남방불교 연구는 물론 중국 불교문화까지 관심을 가졌고 급기야 미국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해외 포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님은 오른손 손가락 4개 12마디를 연비하였다. 나는 스님의 손을 볼 때마다 혜가의 구도 행위가 생각이 났다. 아니 혜가보다 더한 자기 향상과 성찰을 생각했다.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온몸을 꼼짝 못하게 들어 올리는데 스님은 자신의 살과 뼈가 타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며 자신의 불교적 삶을 확인했다. 연비는 자기 확신과 의지는 물론 구도를 향한 무서운 집념의 상징이다. 그리고 처절한 절박감의 표출이고 자아 의지의 확신이다. 스님께서 큰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자신감의 충일과 당당함에 기초했다고 본다.

스님은 출가 자체가 세계불교사에 기록될 만큼 독특하다. 한 집안에서 친가 외가는 물론 집 안 밖 일을 돕는 사람까지 집안 전체인 41명이 출가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시공을 넘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일타 스님과 관련지어 스님의 어머니께서 경험한 인연의 법은 스님을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만 보기 어렵게 만든다. 스님의 어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도중 닭다리를 부러뜨렸던 일화와 이사 갈 때 소가 끄는 마차 바퀴에 깔려 자신의 다리가 부러진 사연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눈앞에 닭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더라"며 함박 환희심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불교의 인과 법칙에 대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일타 스님을 떠 올릴 때 스님의 어머니를 추상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불심이 오늘의 일타 스님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다.

이상은 스님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느낌이다. 그것은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화가로서 경험한 감성임을 고백한다. 나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여 스님의 진영을 그렸다. 완성된 진영은 지관 스님의 화상찬을 덧붙여 해인사 지족암에 모셔있다. 나는 가끔 소리 없이 지족암에 들러 스님의 초상 앞에 향을 사른다.



달마, 일타 스님의 구도정신을 파초에 비유했다.



스님의 눈은 빛이 난다. 총기가 느껴진다. 검고 굵은 뿔테 안경은 이런 지적 풍모를 돋보이게 했다. 일타 큰스님 진영, 170X124cm, 종이에 수묵 채색, 2003년, 해인사 지족암 소장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원장 천범석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기도치료학
우리는 에르스로 인해 인간 능력의 한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만 잘 드려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치료법은 불. 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한 치료법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치료로써 낫지 않을 병은 없습니다.
책 550페이지 값 24,300원
부처님은 大醫王이십니다.
우납은 부처님의 대의왕 의맥(醫脈)을 세우기로 발원하여 이번에 위 서적을 발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대의왕이신 부처님의 불교 의맥(佛敎醫脈)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방 큰 스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정 보 석 性照 합장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光法寺
책 구입 : 경남 010-2093-3385, 011-557-2773, 010-2736-9910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림)
입금 온라인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거제멸치.미더덕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멸치는 일반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1박스 1.5kg (가격 25.000원 부터)
미더덕 2kg (가격 13,000원) 아이스박스 택배
택배는 멸치 5박스, 미더덕 10kg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 소비자와 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쫀득쫀득 멸치

그윽한 향 미더덕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불자 세상보기

'다름' 을 인정해야 세상이 아름답다



이윤호
범죄학박사,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장

최근 미국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시에 위치한 엠마뉴엘 흑인 교회에 대한 백인 청년의 총기난사 사건이 전 국민과 사회를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였다. 비단 미국사회에서 증오범죄가 이번 사건만은 아니었지만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그로 인한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형태의 소위 '묻지마 범죄' 를 비롯한 증오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에 종교, 정치, 사회 일각에서는 이들 갈등과 증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소위 '증오범죄방지법' 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증오범죄는 타인에게 종교, 인종, 문화, 이념,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희열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KKK와 같이 사명감으로 저지르는 증오범죄 등 다양한 동기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무지와 오해로 인한 편견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에서도 이러한 증오범죄를 해결하고자 증오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증오방지법' 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당연히 사회와 시민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야말로 사회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증오범죄방지법(Hate Crime Act)을 제정했던 미국은 지난 2009년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로 인한 증오 외에 성적 정체성과 정신적, 신체적 장애까지도 차별과 학대의 금지 이유에 포함시켜 증오범죄로부터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편견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유형의 증오로 인한 인권의 침해나 훼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소위 '탈리오의 법칙' 은 어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사법정의의 실현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피의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성숙한 시민사회의 참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사법정의는 용서와 화해로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 흑인교회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보여준 용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족들은 범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응보를 요구하기보다, 용서하며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라' 고 분노보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자 범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재판의 현장이 마치 화합과 치유의 증언 장으로 보이기까지 하였다.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였던 오바마대통령도 급기야 희생자 가족들의 용서와 화해의 손짓을 보고 '비극 속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났다' 고 칭송하였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보편적 인권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재소자에게도 자유의 박탈 외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법이 징벌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예부터 전해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는 바로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지 말고 다만 선행과 악행만 구별하여 공정하게 상벌하자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범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만이 해결책도 아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지 않도록 가치와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부처님께서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분별조차도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심을 본받더라도 우리에게는 차별과 배척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식의 함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오래 전 여의도 광장의 유일 인파 사이로 택시로 돌진하여 어린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범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했던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날개 짓이 있지 않았던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의현 스님 감형 판결 논란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6월 18일 1994년 해종행위자로 지목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의 감형 판결을 내렸다. 21년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출재가 단체들이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중 청화 스님의 인터뷰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성명서를 일부 발췌 정리한다. 〈편집자주〉

합리적 절차 통해 사면돼야



청화 스님
조계종 前 교육원장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으로서 심리 당일 불가피하게 불참했다. 종단 소임을 맡아 면밀하게 챙겼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종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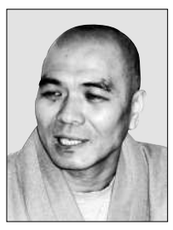
재심호계원의 판결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다. 한 마디로 축약하자면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다.

의현 스님은 재심 청구 사유로 당시 초심호계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이 아니라 당시 재심 청구를 요청했어야 한다. 불교신문에 공고까지 났던 사안이다.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도 문제다. 의현 스님의 주장에 대해 재심호계원은 관계자와 여러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바로 심리를 개시해 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단 호법의 보루인 재심호계원이 성급하고 경솔히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1994년 징계자 사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참회와 당사자들이 고령이며, 비구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온 점을 종도들이 인정한다면 종헌 개정을 통한 특별법 제정 등 합리적인 절차에 기반해 종단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견강부회의 논리로 개인적 판결을 내린다면 종단에 대한 불신만이 가중 될 뿐이다.

의현 스님에 대해서는 개인적 감정은 없다. 되려 초심호계원장으로 소임을 살면서 판결 목탁을 칠 때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사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면은 종법 질서 위에서 이뤄져야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제9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의 징계를 받았던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한 것을 목도하면서 분노를 넘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의현스님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으로 호계원의 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고,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재심호계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종단 혼란 초래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로 인해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후퇴하였으며, 조계종단은 94년 종단개혁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의현 스님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인대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제시하는 등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종단의 미래를 제시하여 신뢰받는 종단의 모습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94년 당시의 징계자들 사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법질서에 맞게 진행하여 종단이 대화합을 이루길 기원한다. 또한 본 회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종도들과 함께 종단개혁의 정신이 올곧게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종단도 종도들의 여론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종단 대화합을 이루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종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뢰받는 종단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요청한다.

社說

청규, 위로부터 '솔선수범' 이 우선

조계종이 새로운 청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청규'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청규의 필요성과 청규 제정 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가 모아졌다. 기존 청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아 새로운 청규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청규는 승가를 바탕으로 한 '간략한 실천원칙' 이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청규를 법제화하는 방안, 승가 교육을 통한 청규의 정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교육원은 청규 관련 교재를 만들고 올해 하반기부터 승가대학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승가의 계율은 율장에 나와있는 것이고, 청규는 시대에 맞게 지켜야 할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지키자는 단체 규약과 같은 것이다. 파편화되는 시대에 개인 문제를 일일이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법제화해서 수행자 개개인을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다.

2010년 선원수좌회가 발간한 '조계종 선원청규' 와 2013년 종단 쇄신위원회가 성안한 '승가청규' 는 내용적인 한계도 있지만, 현재 종단이 청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의문도 든다.

1년에도 수시로 갈등이 빚어지는 주지 선출에 문제와 수행자 개개인의 일탈은 단순히 청규가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 발제자인 금강 스님의 "종단의 부와 권력은 상위 5%의 상층집단에 집중돼 있다. 청규의 정착은 위에서부터의 계몽과 교육, 모범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는 지적은 각골명심(刻骨銘心)해야 한다. 청규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학인뿐만 아니라 승가 전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조계종 종회, 책임과 의무 방기말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세속으로 따지면 입법과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에 해당되는 기구다.

하지만 6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려 오후 3시에 폐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2차 임시회는 종헌과 종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종회' 였다고는 하지만 입법과 비판 · 감시라는 책임과 의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회기(會期)였다.

이날 회의에서 종법 개정안으로 총림법 등 5개 법안이 올라왔지만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1개만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들은 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건 이월, 2건은 철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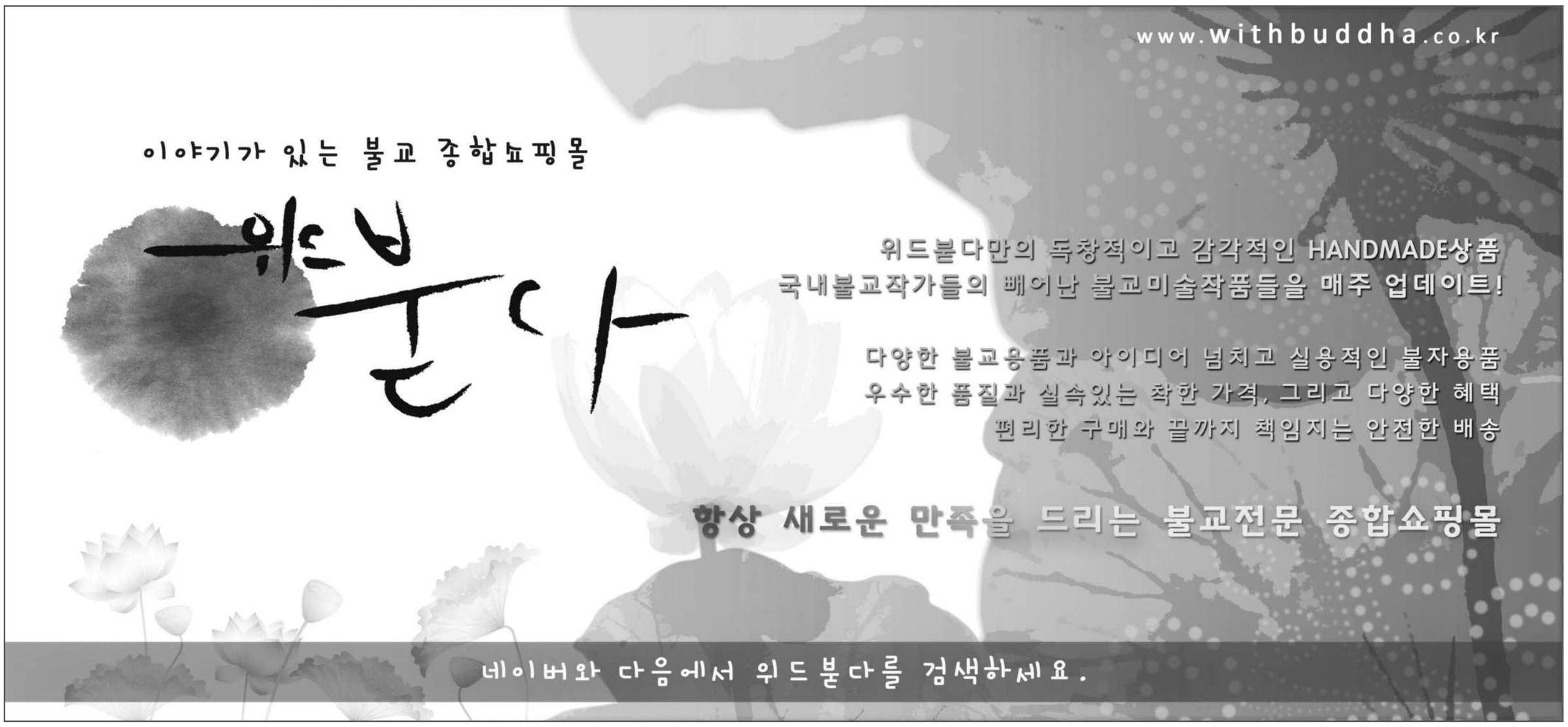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인사말에서 잘 살펴주길 당부한 직영사찰법은 정작 회의에서는 여당격인 불교광장 소속 스님이 "숙의해 3월에 다루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사가 있었다" 고 집행부를 채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중앙종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비판 · 감시 기능도 마찬가지다. 집행부 견제가 아닌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바빴다. 신상발언을 통해 종책모임, 의원 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작 종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해 '번개불에 콩을 볶듯' 처리해 버렸다. '원 사이드' 형국의 16대 중앙종회가 출범 당시 제기된 '비판 기능 상실' 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격인 삼화도량도 문제가 있다. 소속 의원 한명이 총 18개 종책질의 중 절반이 넘는 8개를 질의하고서도 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종책질의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입법과 비판 · 감시는 중앙종회의 중요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를 방기한다면 종도를 대표한다는 대의기구로서 위의와 자긍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음 회기에는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불국토만이 세상의 희망…

룸비니 어린이 포교원 조선자 보살



조선자 보살은 … 1941년 북한 청진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경남 거제도에서 성장했고 1966년 경남 통영 풍화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1967년 남편과 사별후 부산 사상구 엄궁 초등학교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부산교사불자연합회 반야회에서 도반들과 수행 및 포교활동, 부산 문수사, 부산 한마음선원, 진주 해룡사에서 수행하며 공부했다. 이어 1999년 7월 룸비니 어린이 포교원을 개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공로상 및 부산지구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부처님의 법은 어릴 때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세계관이 결정 된 성인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불살생, 불투도 오계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 생활에 배인 아이들이 성장해 이 사회를 이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겠어요? 그런 점에서 어린이 포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당에 단 한명의 어린이가 온다고 해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죠.”

조선자 보살(74)은 현직 교사시절부터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퇴직 즈음인 1999년 7월, 사비를 털어 어린이 법당 룸비니 포교원을 개원했다. 이후 16년 간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을 펼쳐온 조선자 보살을 6월 22일 부산 사하구 신평에 있는 룸비니 포교당에서 만났다. 문을 열고 반기는 조선자 보살의 해맑은 얼굴에는 천진불과 함께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남편의 죽음…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조선자 보살이 부처님을 만난 것은 스물일곱 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혼 2년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술에 취한 군인이 몰았던 군용 트럭이 남편이 타고 있던 버스를 덮쳤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하늘을 원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황망히 잃었던 20대의 조선자 보살의 팔에는 갓 돌이 된 아들이 안겨 있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울기만 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어느날 텔레비전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불자가 아니었던 조 보살은 친척의 권유로 남편의 제사를 불교식으로 진행했다. 낯설었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중에 옆을 지나던 한 스님이 아들을 위해 매년 생일마다 방생을 해주라는 권유를 듣게 된다.

“당시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스님의 말씀을 듣고 봄철 방생 때 마다 집 앞에 있던 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5년 후 본격적으로 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라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절에 가야 할지 몰랐던 조선자 보살은 일단 방생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역을 무작정 찾았다. 무엇인지 모를 힘에 이끌린듯했다. 역 앞에는 방생을 가기 위해 준비된 버스들이 서 있었다.

“새벽 3시였어요. 부산역 앞에는 방생을 가기 위해 대절해 놓은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함께 해도 되는지 물었죠. 담당자가 자리가 없으니 신문지를 깔고 앉아 가려면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버스에 올랐죠. 그렇게 처음으로 문수사를 만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즈음 학교 도반이 반야회 활동을 권유했다. 여성불자교사들의 모임이었던 반야회는 당시 정기 수행 및 법회, 수련회를 열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어린이 포교를 위해 사단법인 동련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연꽃지에 글을 내는 등 문서 포교에도 동참했다. 이후 그는 15년 동안 동련 연꽃지에 글을 기고하며 연꽃 문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상을 지도하기도 했다.

“교사인 제가 학교에서 불교색을 강하게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명상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펴고 앉는 등 수업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좋은 자세를 설명했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불교 포교에 도움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산만한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도 탁월한 방법이기도 했죠.”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사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절감
불교에 입문해 신도로 활동하던 중
교사모임 반야회서 문서포교 활동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 깨닫고
1999년 룸비니 포교당 개원
회비나 지원 없이 사비로 법당 운영
사경 명상 등 불교 포교 중심으로
영어 · 다도 · 여행 및 수련회
지역의 소외 아동 장학금 지원

어린이 포교 위해 명예 퇴직 선택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조 보살은 1999년 7월 어린이만을 위한 룸비니 포교당을 개원했다. 도반들과 신행활동을 하던 조 보살이 이렇게 법당까지 개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당을 개원하던 시기가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미 성장해 자신의 생각이 이미 자리잡은 아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서 불법을 전해도 반응이 없더군요. 법당에 나오도록 권해도 들은 척도 안했어요. 아직도 절에 나가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죠.(웃음) 아들을 보면서 왜 어린 시절부터 불법을 만나야 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33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 역시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어머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거지만 어머님은 아들을 잃었으니 심적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평생 모시고자 다짐했죠. 하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님은 마음의 병을 앓으셨고 78세가 되던 해에는 치매가 발병을 했어요.”

10년 동안 치매를 앓았던 시어머니의 병세는 심각했다.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벽에는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들이 그렇듯 시어머니도 음식을 많이 드시니 쉽게 장이 탈이 났는데 그러면 온 방에 실수를 했죠.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씻겨드렸어요.”

어머니 뒷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무조건 칭찬을 했다는 조 보살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머님을 부처님 대하듯 모셨어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는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님께 경전 구절도 적어드리고 했는데 역시나 잘 알아듣지는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이해력이 좋은 젊은 시절에 불법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만 들뿐이었죠. 그랬다면 인간의 생로병사를 좀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아들의 죽음도, 자신의 죽음도 편안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88세의 나이로 삶을 마무리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니를 보며 불교 공부에도 의지를 불태웠다.

어린이들에게 하루 빨리 불법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조금 이른 58 세에 명예퇴직을 준비하며 4층 건물을 매입해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은 법당으로 3 · 4층은 가정집으로 꾸몄다. 그렇게 1999년 7월 룸비니 어린이 포교원을 개원하고 2000년 2월 초 학교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16년 동안 룸비니 법당을 운영해온 그는 단 한번도 회비를 받아 본적이 없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프로그램도 전문적이다. 영어 교사인 도반의 도움으로 매주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다도 수업, 수련회,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활동을 펼쳤다. 지도 교사들은 대부분 퇴임 교사들로 어린이 포교에 마음을 함께하는 도반들이었으니 학부모들의 호응도 컸다. 또한 수업 후 제공되는 급식에서는 반드시 유기농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룸비니 어린이포교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명상과 사경이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먼저 법화경 한글 독경을 시켜요. 반복해서 읽게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죠. 고학년이 되면 한자를 가르치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한자를 척척 읽어내죠. 또한 사경을 하다보면 산만하던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배려심도 생기는 점도 장점이죠. 지난 봉축일에는 진주 해룡사에서 우리 법당 아이들이 법화경 자아게를 음악에 맞춘 율동공연으로 선보여 대중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어요.”

전문화 된 지도교사들도 룸비니 포교원을 이끄는 공신이다. 법화경 강의를 담당하는 허은정 선생님, 다도를 지도하는 장양순 선생님, 영어를 담당하는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어린이 포교는 내 평생의 소임”



조선자 보살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사경을 통해 마음을 청정히 한다.



조선자 보살은 1999년 7월 룸비니 포교원을 개원했다. 사진은 개원 기념사진(제일 뒤 오른쪽 끝 조선자 보살)



진주 해룡사에서 진행한 2006년 여름수련회. 학생들과 함께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자 보살.

박정연 선생님 등은 모두 현직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재원들이다.

“모두가 교장, 교감까지 지낸 베테랑들이에요. 오랜 경험이 쌓인 교사들이다 보니 어떤 아이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죠. 다도 수업을 통해 예절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간화선과 명상도 지도해요. 또한 수업 후 공양 시간에는 모두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식사 예절을 익혀요. 특히 식사 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공양게를 외워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불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한다. “영어를 담당하는 박정연 선생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어로 해석해 연극대본을 직접 작성했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며 영어와 함께 불교를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을 찾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초창기에는 보통 30명 정도가 왔는데 요즘에는 10여 명으로 줄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원에도 가야하고 숙제도 해야 하니, 법회를 하는 토요일의 세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심이 있는 어머님들은 법회가 우선인데 대부분은 우선 순위가 학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데 다해줄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 꿈은 ‘세계 불국토 통일’

이렇게 법당을 개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를 조선자 보살은 수행에서 찾았다. 그는 법당 개원 이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진행했다. 하루에 3시간씩 법화경을 사경하며 법의 참뜻을 알게 됐다는 조 보살은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삶은 수행의 기본이라고 했다.

“예불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공부, 건강, 포교 등을 기원하며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오신채를 먹지 않으니 법당에 오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게 됩니다. 선생이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죠.”

룸비니 포교원을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도 따뜻하다. “아이들이 많이 떠들고 하니 지역에서 나무라거나 싫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웃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지켜봐줘요”

이렇게 룸비니 포교당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숨은 나눔이 한 몫을 했다. 지역의 학생들 가운데 매년 부모가 없는 학생 두 명을 선정해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연등과 떡을 지역민들에게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연등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죠. 혼자서 연등을 제작하니 많이 만들지는 못하는데 100여개 정도 만들어 떡과 함께 돌리며 축하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당을 찾는 아이들 중 환경이 열악하거나 지역 동사무소에 추천한 어려운 아동들을 찾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 찾아오면 흐뭇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뭐냐는 질문에 조선자 보살은 ‘세계 불국토 통일’ 이라며 웃었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처님 법을 알면 전쟁도 없어요. 생명 중심으로 남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자살 할 일도 없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포교입니다.”

학원 때문에 포교원을 찾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매년 전단지를 제작해 알려 나가고 있다는 조선자 보살. 오늘 인터뷰도 포교를 위해 용기를 냈다고 강조한다. “많은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살아있는 동안 단 한명의 어린이가 온다고 해도 법회를 진행 할 것입니다. 어린이 포교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삶의 대부분을 어린이 포교에 바쳐온 노보살은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국토를 꿈꾸는 그의 삶은 더 풍요로웠고 더 행복해 보였다.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파릇파릇한 불교의 과일나무를 위해

큰 절 법당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겠지만 불교의 노령화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로 심어지는 청년나무 없이 노령화된 나무만 가득 차 있는 과수원의 미래는 파산뿐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역시 심상치 않다.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로 분류되는 출판 빙하기에 200만 이상의 독자에게 선택받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이 등장했다. 40대 초반의 스님이 이렇게 불교의 테두리를 넘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한국불교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대사건이다.

또한 온라인 세상에 접속하는 관문인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삶의 고민을 질문하고 답을 듣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동영상이 소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법륜 스님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부처님의 금구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청년들이 청중의 중심이라는 점과 새로운 전법의 방식인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온라인과 청년 그리고 한국불교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스님, 청년들을 위해 책을 내보시는 게 어떠세요?”

“교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책을 냅니까?”

군종장교 제대 몇 개월을 남겨둔 2012년 말경에 석사논문 검토를 위해 만난 지도교수에게 황당한 조언을 받았다. 자격도 없는 나에게 책을 내라니…. 글쓰기라는 분야에 학창시절부터 재능도 없었고, 싫어하는 분야였기에 단 한 번도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마음에는 ‘작가는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지도교수의 조언이기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스터디 시간에 도반들에게 이 상황을 의논했는데 반응이 의외였다.

“스님, 책 내셔도 충분해요. 내보세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전법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당위성에 매력을 느꼈고, 결국 스스로를 설득해서 출판을 결심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심한 그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하나가 왔는데, 출판사였다. 내용인즉,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써 내려간 글들을 에세이로 묶어서 출판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바로 연구소로 달려온 편집장의 정성에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몇 개월 뒤 교보문고 강연장에서 작가라는 타이틀로 대중들과 만나 강연과 사인회를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쾌속하게 연결되는 인연들을 바라보며, ‘마음 하나’ 를 일으키고, ‘안된다’ 는 부정의 생각 벽을 무너뜨릴 때 그 ‘마음 하나’ 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참 흥미롭게 구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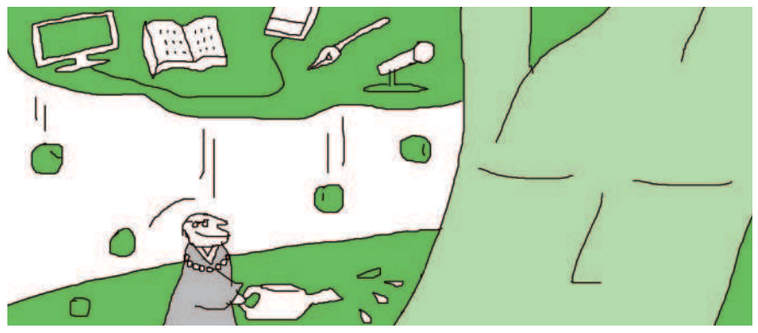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은 45년간 매일 아침 재가불자의 마을로 탁발을 나가셨다. 그곳에서 재가불자의 공양을 받고, 그들을 위해 축원하시고 설법하셨다. 즉, 전법대상이 모여 있는 ‘광장’ 으로 한걸음 먼저 다가가신 것이다. 현재의 한국불교는 분명히 노령화되었다. 도대체 청년들은 왜 불교를 배우지 않는 것일까? 그들에게 불교가 필요 없을까? 아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먼저 다가서는 전법 주체가 없었을 뿐이다. 청년들이 큰 절 법당에서 실종되었다고 불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책 속에서, 혜민 스님의 불교, 법륜 스님의 불교, 수많은 스님들의 불교를 엿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광장으로 탁발을 나가 그들의 손을 잡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진리로 살짝만 당겨줘도 한국불교의 토양에 파릇파릇한 과일나무가 심어질 수 있지 않을까?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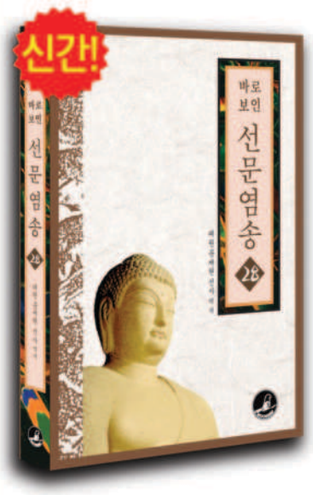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대행 스님

여러분의 근본은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가난을 벗어나고 업보를 벗어나고 인과응보를 벗어나고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벗어나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게 부모의 인연도 있잖아요, 형제의 인연도 있고. 전자 과거도 있지만 현실도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 놓으면 과거도 현실도 다 그냥, 그 얽히고설킨 인연줄이 다 소멸돼요. 소멸되면 지금 현실에 소멸되고 현실에 알았기 때문에 미래는 저절로 그냥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이죠.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없는 오늘이, 내가 없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수백이라면 죽는 사람도 수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자꾸 쳇바퀴 돌듯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생에 태어났다 하면 나중에 가을이 와서 가랑잎 떨어지고 그러듯이 벌써 죽을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늙었다 하면 다시 돌아서 살아날 봄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애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애가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태어나면 늙을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쳇바퀴 돌듯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건 현실에 무지하게 많이 겪는 얘깁니다. 이건 누가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럼 고만이죠, 뭐. 어떤 사람이 아내가 죽었어요. 삼 남매를 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자만 얻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어서 물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하도 가난하게 살면서 같이 벌었는데 돈을 막 벌자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 애착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죽은 아내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뚜렷하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부인만 얻었다 하면 그저 며칠 안 가서 병들어요, 그냥. 그러니 어떡해요. 그래서 여자를 셋을 죽이고 여자를 안 들이는 거예요, 이제. 금방 왔는데 금방 며칠 안 가서 병이 들고, 멀쩡했던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 무서워졌던 거죠.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하고 씽긋이 웃고선 그냥 어서 장가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놓은 줄 아세요? 묘하죠. 장가를 들게 하고 그 의식을 갖다 그 여자한테 넣어 준 거예요. 어때요? 그럼 그 몸뚱이를 빌려서 그 여자가 사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도 몰라요. 모르면서 잘 살 수 있어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둘이 아니니까. 의식 자체가 둘이 아니에요. 갖다가 한데 체인지 시켜 놓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한다고 또 그냥 흉내내다가 괜히 혼나지 말고요. 잘 알아서 하세요. 하하하.

아마도 얘네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소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한 소식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수없이 내가 말을 튕겨 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지, 먹어 보지 않은 음식 맛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튕겨 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 줘라 하는 뜻에서. 이거는 정말 아주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건방진 사람이 되고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해 준 사람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죠.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 인제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스님이 그냥 그렇게 해서 좋게 어떻게 잘해 준 줄만 알지 그 정도는 모르죠. 알면 또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허허허. 그래서 그 집이 안락하게 참, 애를 기르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재산도 없어지지 않고 상당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남을, 한 가정을 이익 하게 한다는 거, 이것도 고마운데 죽은 영혼들도 또는 산 사람들도 또는 어느 짐승도, 어떤 때는 "소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오죠. 젖소나 또는 시골에서 부리는 소 이런 것 때문에도 전화가 오죠. 개가 병이 나도 전화가 옵니다. 나는 그러게 쓰레기통이라니까요. 하하하. 아니, 쓰레기차!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아픈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프면 똑같아요. 이것 참, 나는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항상 지내는 게 그거니까. 쓰레기차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쓰레기 얘기 할 거밖에. 그랬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응? 개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 내가 말하자면 개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의사라면 개 의사가 돼야죠. 허허허. 그래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물든다고 그랬죠. 예전에 부처님께서 "아무개 보살아, 너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있으면 돼지 물이 드니까 빨리 나오너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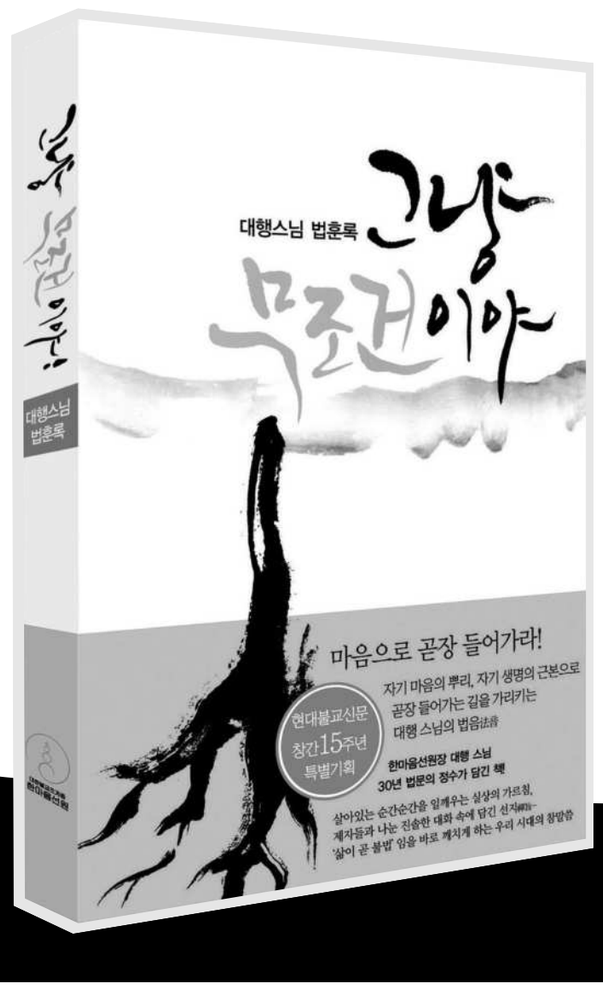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래서 개를 고치려면 개가 돼야 된다. 돼지를 고치려면 돼지가 돼야 돼.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돼지의 심정을 모르고 개의 심정도 모르고 꽃을 한번 응시해 보지 않으면 꽃의 심정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렇듯이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심정을 안다 이거죠. 그런고로 어느 사람이든지 타심통이라는 게 그게 그거예요. 남을, 속을 안다는 거는 둘이 아닌 까닭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내 왔고, 과거에 어떻게 살다가 지금 현실에 어떻게 지내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알지만 아는 것 가지고 이게 부처님 진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 그것을 포함해서 현실의 모든 것을 작업을 해서 자기가 녹일 수 있고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이 남편이 교육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서 편지가 오기를, 그 토굴까지는 아주 머니까요. 거기서 오려면 한 60리 가량은 되겠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와도 거기 오려면 한 너덧 시간, 아니 너덧십 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정성을 들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교육장인데 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때 승진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번에는 승진을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에 승진을 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승진을 하면 아니 되니까 승진을 하기 이전에 오히려 낮추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요. "그런 건, 나는 무꾸리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면 좋을 거고 내 말을 안 듣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떡하느냐?" 그랬어요.

그때도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죽는단 말을 안 하고 생명이 위태하다고 그랬어요, 참. 생명이 위태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죠. 하루는요, 내외가 술을 얼근히 먹고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스님은 사회 경험이 없고 산에만 처박혀 있어서 모르십니다." 이거예요. '처박혀 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허허허. "산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 현 실정을 모르십니다." 이겁니다. "나는 꼭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 돌아서서 나가고 난 뒤에 내 마음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데요. 도저히 그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라는데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그래서 그날로 그냥 토굴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다시금 며칠 있다 내려오니까 집이 비었어요. 승진을 해 가지고 벌써 발령을 받아서 춘천으로 갔다는 거예요. 돈을 먹였어요, 글쎄. 왜냐하면 내가 안되게 했거든, 자꾸. 그러니까 돈을 먹여서라도, 그냥 승진이 돼 가지고 간 거예요. 아이 참 내, 기가 막혀서! 식모하고 애들만 있고 애들 둘을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내외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내 가슴아팠던 얘깁니다. 그 문고리를 붙들고 말이에요,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왜? 하나는 '저렇게 진실로 믿으러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부처님께 누가 되고, 불도량에 누가 되고 하나는 '참,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럭하고선 '아,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나.' 그러면서 난 그 길로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그냥 다 찢어진 바지 하나 입고 주머니에다가 칫솔 하나 넣고요, 그러고는 치약도 없이 소금 조금 집어넣고는 그냥 그 집을 떠나서 그냥 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도 집에 와서, 그 여관 하는 집에 있었어요,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웬걸 며칠 안 있더니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국장이 됐다고 차가 나왔거든. 차가 나오니까 차 타고는 내외가 아주 좋다고 그냥 춘천 어딜 돌다가 차가 구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즉사하고 여자는 골이 전체 깨지고 이 뒤꿈치가 그냥 나가고요, 요만큼요. 이렇게 나가고, 이 뼈가 다 아스러지고 골이 다 깨지고, 다 그냥.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시켜서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보름이나 깨어나지 않았어요. 머리를 홀딱 깎고선 그거를 모두 꿰맸죠. 여기 꿰매려니까, 뼈를 꿰매려니까요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꿰맬 수가 없는 거예요. 뒤꿈치는 뒤꿈치대로 나갔죠. 그러니까 꿰매는 것만 꿰매고 쪽이 떨어져서 없어진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얽어매 놓고는, 없는 거죠. 그게 진이 묻어서 인제 딱딱하게 되면 그게 뼈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불쌍해서 말을 해 주면 그렇게 들어야 할 텐데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인력으로 못해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 가지고 보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고선 한 보름 있다가 깁스 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애들은 졸망졸망한 게 5남매나 됐어요, 그때. '아이고 참, 기가 차구나. 이왕지사 그랬더라도….' 그러고선 이래요. "스님, 스님! 왜 죽는다고 그러지 생명이 위태하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죽기 기약을 하고 말리기나 했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죽는다고 그래야 죽어요? 생명이 위태하다고 그랬지. 그게 쑬쑬하고 좋지 '너는 죽는다.' 이래야 속이 시원한가요?

그래서 이 깁스 한 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다리를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깁스를 뜯으라고 그랬어요. 뜯고 여기에다가 얇은 베니어에다가 솜을 넣고 감아서 양쪽에다 들이대고 붕대로 감아 줬어요. 감아 주고선 이렇게 뻗고 있으면서 친구들 불러다 화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하, 고도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친구들 불러다 놓고 노냥 화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신을 쉬면서 이거를 그냥, 그냥 살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선 큰 가마솥에다가 북어를 넣고 산에서 풀 뜯어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풀 뜯어다가 넣고는 삶아서는 그걸 한 그릇씩 하루 세 그릇씩 먹인 거예요, 그냥. 그래 가지고 이 진이 나서 뼈가 된 거예요. 발뒤꿈치도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걸어 다니고 지금 펄펄 날죠. 지금도 "스님!"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전에는 없었던 이치가 생긴 거예요. 보상금이 나가게끔, 그전에 안 줬는데, 그게 생겨서 보상금을 탄 거예요. 그래서울에 집을 사고선 이사를 왔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애들 다 길러서, 공부 다 시켜서 외국으로 보내고요. 지금 아들 하나마저 장가들여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 줄 아십니까? 전자에 자기 형이 버스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버스 안에 들어가서 속상하다고 그냥 불을 지르고는 죽었어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 그걸 막아 주기 위해서 "올 한 해만 참고 있어라." 그랬는데 아, 그걸 안 믿어요.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가 하는 모든 문제가 이세로 떨어진다는 것도 좀 아시고, 유전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라는 걸 아시고 그저 우리는 순수하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다 그냥 뭉청뭉청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만 그 얘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그만큼 여러분의 그 주인공 자체가 그렇게 보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 보배는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요량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그렇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그 도리를 배우고 나가면서. 그러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라는데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의 그 근본을 믿으라는데도 못 믿으면 믿지 말라죠, 뭐. 자기 몸뚱이 끌고 다니는 자기 믿으라는데 못 믿으면 믿지 말라죠, 뭐. 내가 걱정될 일 하나도 없죠. 허허허.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니 걱정이 되나?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 앵하지 뭐,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유, 그런 건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이에요, 매일 그냥.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부처님께서 아니, 그런 말씀도 다 해 놓으셨지만 어느 승려 둘이 사형 사제가 있었거든요. 우린 모두 사형 사제입니다, 나는 은사가 되지만. 사형 사제가 이렇게 둘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둘이 다 통달한 분들입니다. 통달을 한 분인데 예전에는 나라에 인군들이 스님네들 직위도 이렇게 해 주고 그랬지, 그냥 스님네들끼리 마음대로 한 예가 없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나라의 인군이 참, 사람을 시켜서 정성을 들이러 온 거예요. 지금 부인이 태기가 없어서 태자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 왕손을 잇지 못한다고 와서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거든요.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마시라고, 태자는 꼭 낳으시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아무리 태자 될 사람을 찾아도, 그 스님이 그 의식 혼백을 찾아도 태자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한 겁니다. "얘 아무개야, 너 태자로 가거라." 그러니까 내가 또 망건 쓰고 이거, 아이고, 귀찮아.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또. 응?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서 버선 신고 뭐 하고 아이고, 그거 다 귀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형님, 난 안 갔으면 좋겠어." 하니까 "그래, 태자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네 눈으로 봐라. 전부 둘러봐라." 그렇게 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네로 말하자면 참, 쓸 만한 집에 물건을 보내는데 그 품질이 그 집으로 들여보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이요, "그러면 한 철 또 망건 쓰고 귀찮아도 할 수 없지." 그러곤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그 집으로 갔어요. 몸뚱이는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냥 갔다고요. 허허허.

그래서 태자로 한 철 살다가 그냥, "형님, 나는 웬만하면 남한테 넘겨 줄 데가 있으면 넘겨 주고 바로 오리다." 이러고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태자 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로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가서 또 태어나 가지곤 늦게 만났죠. 그러니까 이이는 머리가 하얀데 열 몇 살에 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 형님!" 이게 태어났어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형님, 또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뭐요, 이게. 우리 인제는 아예 이 몸 어떻게 벗어납시다. 귀찮게 두지 맙시다." 이러니까 "그러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길잡이가 되는 사람도 될 만한 사람이 지금처럼 구지비끼리 해서 아마 나오나 봐요. 왜냐하면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귀찮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천 년에 한 사람 나기 힘들고, 오백 년에 한 사람 나기 힘든 거예요. 이 공부라는 거는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해요. 구지비끼리 해서 뭐 저거 하고 그러고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발령이 나야 어쩔 수 없이, 구지비끼리에 뽑혀서는 할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도리를 알면, 다시는 그렇게 끄달리고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래는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없는 내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악으로 산 사람은 미래가 바로 뻔하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잘 죽었어. 그이 잘 죽었어. 죽어야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 사람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그것 참, 더 살았으면 좋을 거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벌써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당으로 가겠죠. 승천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사는 행이 어떠냐,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남한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라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으니 좀 더 남한테 시간도 지켜야 하고 도의 의리도 지켜야 하고 또 말을 한마디 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하고 또 올바른 생각으로 항상 남을 이익 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익하게 되고 남을 따귀를 때리면 내가 꼭 따귀를 맞아야 하니까 남이 따귀를 때리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쳐야지 내가 도로 따귀를 때리려고 한다면 얽히고설키고 요다음에 또 만나서 또 따귀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체계는 없지만 인연의 관계를, 본래 진리가 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찰나로 돌아가면서 사는 찰나 생활이죠. 이것을 통달해서 안다면 이게 완성품입니다. 아주 자유롭고 찰나 생활이고 우리 인간이 났다가 구름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져서 딴 구름으로 모이고 이렇듯이 한 철이고요. 일생이 한 철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찰나 생활이고. 그것을 누가 끌고 다니며 그것이 왜 부처님께서 공했다고 했는가. 어떤 거 하나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많거든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다 또 자식이 됐다 남편이 됐다, 수없이 돌아가면서…. 생각이나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 공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공했다고만 했는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랬는데 나는 거기 한마디 더 붙여서요, 공한 것은 왜 공했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찰나로 돌아가니까 그렇다 이 소리예요.

오늘은 인연 관계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분도 오지도 않고 호젓하게 저, 오하이오 주 박사님들 석사님들, 허허허, 모두와 가지고선 이렇게 오붓했습니다. 참, 13시간 12시간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니까요. 물론, 자기들 위해서 왔겠지만. 나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가 둘이 아닌 까닭,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이런 게 층만하게 인간에게, 지수화풍 바탕 속에 다 있거든. 이것도 우주 개공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지수화풍으로다가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뭐예요, 이름이?

신도 컵이요.

큰스님 컵이죠.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 못했다 이거죠.

그럼 이걸로써 마치죠.

※위 법문은 1989년 12월 16일 뉴욕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랬는데 공한 것은 왜 공했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찰나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